



경기도사이버도서관



AEM001596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총 16개 지회 중 하나인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경기도 지방문화 진흥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주요 목표로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경기도민과의 문화적·지역적·역사적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지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정책연구>, <경기도 문화원 역량강화 사업>, <향토문화연구 및 콘텐츠 제작>, <경기도 민속예술제>,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 예절 교육>, <시낭송의 밤> 등이 있다.

경기일보는

1988년 8월 8일 창간한 경기도와 인천을 대표하는 언론사 경기일보는 수도권외 사정과 생활정보를 충실히 전할 뿐 아니라 복잡한 세상을 바르게 보는 관점과 안목을 제시하는 지역 최고의 정론지이자 필수적인 생활 미디어다. '민주언론 구현', '신뢰사회 건설',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 첨단 미디어 시대에 미래를 비추는 정보의 길잡이로서 경기도와 인천을 생각하고 그 뜻을 받드는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경기일보 본지뿐만 아니라 자매미디어인 '경기닷컴(www.kyeonggi.com)', '월간 포토경기'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contents

4 프롤로그

역사의 중심에 서다

History



12	수원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18	의정부	의순공주
24	구리	건원취타대
30	남양주	향토순례단
36	안산	안산향토사박물관
42	여주	명성황후 송모제
48	파주	율곡문화제
54	하남	도미설화

사람, 삶. 그것이 문화를 만든다

Culture



62	포천	실버악단
68	성남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시연회
74	시흥	청소년 독립운동 역사탐험
80	김포	중봉문화제
86	가평	'그까이꺼 재즈'
92	고양	상설공연 '고양의 일! 고양 600년에 춤추다'
98	광명	광명향토실버인형극단
104	동두천	어린이 향토사 장원경시대회
110	용인	규방문화연구소
116	안성	실버벽화예술단
122	의왕	여름갯벌체험
128	양주	역사문화대학
134	이천	설봉문화제
140	화성	화성춤클럽
146	과천	청소년사이버기자단 '효담보담'

마을공동체 회복의 길목에 서다

community



154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160	부천	부천농기고두마리 공연
166	오산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172	안양	안양만안문화제
178	양평	전통혼례지도자양성과정
184	평택	웃다리문화촌
190	연천	미수문화제

196	에필로그	경기문화원연합회의 어제와 내일
-----	------	------------------

202	후기	
-----	----	--



지역과 세계가 소통하는... 유쾌한 ‘문화 중심’을 꿈꾼다

우리 문화유산 뿌리 찾고... 도민들 문화욕구 충족
도내 31개 시·군문화원, 문화사업·지역축제 분석·정리
문화예술로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공동체’ 완성



글 | 정상중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회장

문화원은 전국 총 229개 문화원이 설립되어 광역단위 16개 지회를 통해 묶여 있다. 연합회라는 기구로 전국 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대 문화조직으로서의 자기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는 법률에 의거,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특색 사업을 구상하고, 그것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의원과 도내 시군문화원장, 문화원 회원들이 함께한 '시낭송의 밤'

그동안 문화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연구, 조사, 발굴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 사업으로 삼았다. 때문에 그 지역을 알려면 문화원을 통해야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빠른 속도로 마을이 해체되고 새로운 도시형태가 정립됨에 따라 외부 인구가 영입되고, 빠져나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인구 구성원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인구 구성원의 변화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틀거리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그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 분위기와 생활 형태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 일정 부분의 변화가 생긴다. 건물이 헐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기존 주택이 재정비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도 하고, 자립적 경제구조를 영위해 오던 지역 경제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지역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며 이른바 '베드타운'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문화가 '사람들의 총체적 삶의 모습'이라는 정의에 동의한다면, 지역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들의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이고,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적 양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기도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해 문화원이라는 네트워크 조직이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고 어떠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며, 어떤 모양을 갖추어야 하고, 그것이 지역문화의 차원을 넘어 광역단위인 경기도 내에 어떠한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의 문화정책 생산구조가 지역 정가에 맡겨지기도 하면서, 문화원이 가져가야 할 지역의 역사적 바탕에 근거한 문화정책 생산기능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기도 문화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이 지역의 문화적 흐름에, 경기도의 문화적 흐름에,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세계적 문화 흐름 속에 어느 지점에 서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유형, 장르, 대상, 소재에 따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이에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경인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인 경기일보와 공동기획을 통해 31개 시·군에 분포돼 있는 문화원의 다양한 문화사업의 적극적, 심층적, 반성적 분석 및 정리를 시도했다.



▲ 어르신 문화축제 실버FM <요즘 할매 요즘 할매>의 공연 장면

이번 기획을 통해 향후 변화하는 문화적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망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미 형성돼 있는 31개 시·군 문화원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니즈(Needs)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찾고자 한다.

본 기획은 4개의 키워드로 진행됐다.

첫 번째는 문화원형(문화유산, 역사문화인물, 자연환경, 지역민들의 삶과 정서가 반영된 민담 설화 등)을 기초로 한 도시브랜드 형성의 사례를 발굴, 현재 전개되고 있는 문화원들의 사업을 심층 분석해 사업 소개 및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향후 어떤 비전과 대안마련이 가능한지 점검했다.

두 번째는 31개 시·군 문화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사업 또는 지역축제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문화 흐름 속에 어느 지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세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문화원은 ‘관객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며, 문화예술을 깊이 있게 향유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우리는 그것이 현재의 문화 예술적 흐름 속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바탕으로 향후 대안과 비전 마련을 위한 단초를 찾았다.

그것을 통해 마지막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해체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 탄생된 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건강한 마을 공동체 확립을 위한 사업 유형을 소개하고 분석해서 문화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뤄가야 할 새로운 마을의, 도시의 모습을 그렸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은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통해 활력을 얻고자 함이다. 또한 여행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의 ‘낯섦’과 그것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를 가건 크게 다르지 않은 도시 풍경이 펼쳐진다.

문화는 ‘사람들의 삶의 총체’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문화적 양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결국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찾아야 하며 그 관계를 통해 창출되는 역사·문화·사회·예술적 형태의 다른 이름이다.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모호해졌다.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누가, 무엇이 결정하는가?’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이번 기획을 통해 31개 시·군 문화원이 전개하는 사업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형성되는지 살펴봤다.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내는 문화가 어떻게 경기도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문화적 양상이 어떻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세계적 문화흐름의 어디에 접점을 두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수원문화원 |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의정부문화원 | 의순공주

구리문화원 | 건원취타대

남양주문화원 | 향토순례단

안산문화원 | 안산향토사박물관

여주문화원 | 명성황후 송모제

파주문화원 | 율곡문화제

하남문화원 | 도미설화





역사의 중심에 서다

History



정조대왕 효심 따라 역사의 길을 걷다

을묘년(1795년), 조선의 성군 정조대왕은 길을 나셨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찾아가는 참배길이자 어머니 혜경궁홍씨의 회갑연을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행궁에서 열기 위한 효의 순례길이었다. 정조대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1789년에 수원부 화산(현 화성군 태안읍)으로 옮긴 후, 지금의 서울 창덕궁에서 경기 화성시 용·건릉까지 을묘년을 포함해 13차례나 무던히 이 땅을 밟았다. 시간이 흘러 효심을 바탕으로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나라의 융성을 꾀했던 으리으리한 정조대왕 능행차는 사라졌다. 길 위에는 낮은 기와집과 초가집 대신 높은 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섰다. 역사 기록으로 박제된 이 길을 다시 걷는 이들이 있다. 수원문화원(원장 염상덕)이 주관하는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단'이 주인공이다.



▲ 창덕궁의 정문 '돈화문' 앞에서 출단식을 가진 제9회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창덕궁에서 용릉까지 62.2km 3박4일 일정
 전문가 역사 유적지 설명 귀에 쏙쏙...역사·효심 꼭꼭 새겨
 우리나라 문화원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을만해

”

지식과 감성, 두 마리 토끼 잡는 체험순례

2012년 9회째 열린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는 매년 5월말쯤 참가 희망자를 접수 받아 6월초 최종 선발, 7월 중 진행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체험순례단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러 가던 길인 창덕궁에서 용릉까지의 62.2km를 3박4일 일정으로 걷고 또 걷는다.

단순히 수 백 년 전, 국가적 행사였던 능행차를 재현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정조대왕 재위 기간 동안의 그 위업과 치적을 되짚어가며 역사와 효심을 한 걸음씩 밟으며 꼭꼭 새기는 장이다.

특히 순례에는 전문가가 동행해 길 위에서 마주하는 유물과 유적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살아있는 역사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국에 산재한 국토대장정과 차별화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체험순례단으로 모인 성장기 청소년이 낯선 이들과 공존과 상생을 함께 깨우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조선시대 정조대왕 능행차도 그러했겠지만, 청소년들이 피약별 아래 62.2km를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전국의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의미 있는 체험순례단에 지원해 탈락자들이 항의할 만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만, 실제로 일정이 시작되면 ‘괜히 지원했다’고 하소연하는 참가자도 여럿이다.

지구 환경 오염으로 빨리 그리고 강하게 찾아오는 여름 더위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 해단식에서 순례기를 반납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최근 몇 년간 체험 순례가 진행되는 7월이면 한여름 절정의 무더위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까지 겹쳐, 순례단의 체력은 물론 정신력마저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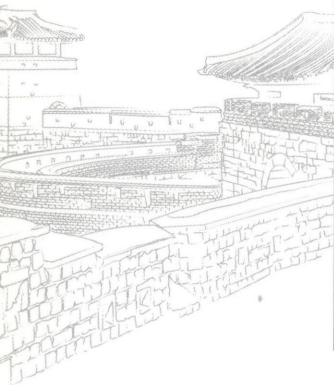
여기에 순례 일정 첫 날에 진행되는 서울구간은 다른 도시보다 복잡한 도로사정과 많은 교통량에 체험 순례단의 안전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 때 문화원측 인솔자와 전문가, 경찰, 자원봉사자 등 많은 이들이 총동원된다.

이처럼 힘든데 9년이나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단연 역사를 배우면서 효심과 극기를 키우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세부 일정이 그 근원이다. 주인군 문화원 사무국장은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화원 주관 행사 중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배우고 느끼는 한편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도시 수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그 의미가 깊다”며 “10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순례단 규모를 확대하고 순례 일정에 다채로운 이벤트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걸으며 배우는 생생한 역사책

짧다면 짧은, 그러나 그 시간의 수 백, 수천에 달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일정을 들여다보자. 체험 순례 첫날에는 이른 아침 7시쯤 서울 창덕궁 앞에서 모인다.



매년 잠기운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아이들이 억지스레 내달리고 부모와 참가 학생이 대화를 나누며 지하철 안국역 계단을 오르는 다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출단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창덕궁 돈화문에 걸리고 순례단원들은 청룡·백호·주작·현무·황룡·봉황 등 6개 팀으로 각각 나뉘어 줄을 선다.

이들은 정조대왕이 주로 지낸 궁궐이자 을묘년 능행차 출발지였던 창덕궁을 돌며 본격적인 체험 순례에 돌입한다.

수원문화원장의 출발 선언에 기수단 깃발을 선두로 한 순례단이 발걸음을 떼면 부모들은 걱정과 기대감으로 박수치며 자식을 떠나 보낸다. 이렇게 시작한 순례단의 첫 날은 광화문에서 수문장 교대의식을 관람하고 경복궁, 덕수궁, 삼각지, 노랑행궁, 남사초교, 과천 초교로 이어진다.

순례단은 이 길을 걸으며 보고 듣는다.

경복궁 동남쪽 모서리에 설치한 망루였으나 일제에 의해 담장을 잃고 섬처럼 도로 한 가운데 떨어져 있는 ‘동십자각’(東十字閣), ‘구중궁궐’(九重宮闕)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각 궁궐의 특징, 도심을 관통하는 아름다운 강이지만 능행차 때는 장애물이었던 탓에 정약용이 고안한 배다리(배를 줄로 이어 그 위에 널판을 얹은 다리) 등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 한 여름 도보 순례 중 찾은 수영장은 꿀 같은 달콤한 휴식 시간. 순례 도중 제법 친해진 친구들과 어울려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지금은 건물 하나만 남아있지만 정조대왕이 한강을 건넌 후 잠시 쉬었던 ‘용양봉저정’ (龍驤鳳翥亭 · 노랑행궁)도 오른다.

남은 일정도 알차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만큼 순례단은 서로 다독이며 서로 밀고 끌어주며 성장한다.

둘째 날의 첫 행선지는 정조대왕이 과천을 지날 때 들러 쉬던 객사 성격의 과천행궁이다. 이어 조선시대 지방에 설치한 국립 교육기관인 과천향교에서 전통 예법을 익히고,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까지 한 폭의 산수화 속 주인공인 듯 경치를 감상하며 걷는다.

사근행궁 자리에 위치한 고천동사무소에서 허기를 달랜다. 동사무소장은 터만 남아있지만 곧 복원 예정인 사근행궁을 설명하며 간식을 제공한다.

수원을 향해 발길을 재촉, 비탈길이어서 한 발자국 떼기도 힘겨운 지지대고개에 오르면 드디어 푸른 소나무가 도로 좌우에 늘어서 있는 노송지대를 마주한다. 이 길 끝에서 만난 둘째 날의 숙영지 대평초등학교에 도착하면 지친 순례단원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고.

늦은 밤, 순례단은 웅기종기 모여 앉아 이틀간의 고생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동안 편안했던 일상을 만들어 준 부모님에게 감사 편지를 쓴다.

정조대왕이 보여준 효심이 손 편지를 쓰는 고사리 손에서 한 그득 영그는 아름다운 시간이다.



▶ 순례단이 수원 양궁장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모자를 하늘로 던지며 3박4일 일정을 완주한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 순례 셋째 날에 찾은 만석공원 내 저수지 만석거를 걷고 있다

‘죽음의 이틀’을 보낸 순례단에게 나머지 일정은 ‘누워서 떡 먹기’다.

정조대왕이 농사를 위해 축조한 후 쌀을 만석 이상 생산해 이름 붙은 저수지 ‘만석거’, 취타대의 힘찬 환영 연주를 들으며 관람하는 세계문화유산 화성, 화성행궁과 수원화성박물관, 수원 향교, 용주사와 용릉 등이 남은 일정을 장식하는 관람지다.

이 같은 알찬 역사 교육에 신나는 수영장과 한 여름 밤 수원양궁장에서 펼쳐지는 캠프파이어로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나흘 동안의 순례를 마무리하는 해단식에서 순례기를 반납하고 인증서를 수여 받는 순례단의 얼굴에는 ‘해냈다’는 뿌듯함과 ‘배웠다’는 자부심이 만개한다.

노현호 수원문화원 주임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드디어 문화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며 “특히 수원문화원의 능행차 체험순례는 서울에서 화성까지의 각 지역 문화원과 전문가 등이 힘을 합쳐 만드는 것으로 우리나라 문화원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을 만하다”고 밝혔다.

글 |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수원문화원

T. (031)244-2161 F. 244-2164
442-083 |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8

Tip



‘비운의 의순공주’ 화냥년 굴레 벗고 부활하다

‘화냥년’에서 ‘정신대’까지,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할 때 역사의 희생양이 됐던 여인들이다. 조선의 공주 의순(義順)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일생을 살았다. 이름은 이애숙(李愛淑), 열 여섯살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공녀(貢女·여자를 재물로 바치는 일)’를 자처하면서 조선에서 가장 비운의 공주가 됐다. 나라를 구했건만, 동시에 나라의 치부가 돼 버린 의순공주. 그렇게 의순은 수 백 년 동안 역사에 의해 왜곡되고 짓밟혔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그녀가 살다간 의정부 금오동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것도 의정부 문화원(원장 조수기) 주도하에, 의정부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원형으로 말이다.



▲ ‘의순공주’ 쇼케이스 공연의 한 장면

“

370년 전 ‘공녀’로 청나라에 끌려간 ‘의순공주’
 뮤지컬로 부활 나라 구한 ‘여성지도자’로 복원
 의정부 대표할 역사문화원형 찾기 첫걸음

”

‘환향녀(還鄕女)’ 그리고 의순공주

단 두어달 만에 끝장나버린 병자호란이었지만 임진왜란의 기나긴 7년여의 전쟁과는 또 다른 피해가 사회 전반을 휩쓸고 지나갔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볼모로 끌려갔으며, 잡혀간 백성의 수는 무려 50여 만 명에 달했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청나라가 조선 백성들에게 매긴 등급에 따라 돈을 지불해야 했다. 국가나 군주가 해결해 줄 수 없던 이 상황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거나 빚을 내 청나라에 끌려간 누이나 아내를 데려와야 했다.

이렇게 힘겹게 돌아온 여인들을 ‘환향녀(還鄕女)’라 하여 온 동네 사람들은 고생했다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고향으로 돌아온 많은 환향녀들은 임신한 상태였고 ‘환향녀’는 ‘화냥녀’이라 하여 멸시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호로(胡虜)자식’(호로는 오랑캐를 뜻한다)이라 불렀다. 사회 전체가 환향녀와 그 자식들에게 냉혹한 시선과 편견의 잣대를 들이던 것이다.

비단 이런 경우는 힘없는 일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대부의 여자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의순공주였다. 복벌을 꿈꿨던 효종 원년(1650년), 청나라에서 사신이 가지고 온 칙서에는 ‘왕의 누이나 딸, 혹은 왕족이나 대신의 딸 중 재색을 겸비한 자들을 뽑아 보내라’고 적혀 있었다. 새로이 조선의 국왕이 된 효종은 청나라의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효종은 자신의 딸들을 오랑캐의 나라에 보낼 마음이 없었다. 대신들과 왕족들 역시 효종의 눈치를 보며 꺼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때 종실 금림군 이개윤이 자신의 딸을 보내겠다고 나섰다. 효종은 고마운 마음에 의순공주로 봉작한다. ‘의순(義順)’, 대의에 순종하라는 뜻이었다.

16세 어린 나이에 떠나면 청나라에 시집간 의순공주의 삶은 그리 순탄치 못했다. 의순공주가 도르곤에게 시집간 지 7개월여 만에 도르곤이 세상을 떠났고, 설상가상으로 도르곤이 역모를 획책했다는 혐의를 받고 부관참시 되면서 의순공주는 또 다른 황족이자 도르곤의 부하장수였던 박락(博洛)의 첩종이 됐다. 그러나 박락도 1년 뒤 세상을 떠났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의순공주 역시 다른 환향녀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 이개윤은 딸을 오랑캐에 팔아먹은 인물로 매도당했고, 의순공주 역시 환향녀라는 따가운 질책과 모멸 속에 28세를 끝으로 한 많은 일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단지 여자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굴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조선의 여인들, 환향녀 그리고 의순공주. 국가와 남자들이 자신들의 무능으로 전쟁 속에 내몰고 공녀로 끌려간 여인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자결이라도 해서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정녕 수 백 년 전의 과거 속 일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제의 대동아 전쟁 속에 끌려간 정신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의순공주는 우리만의 비극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강자에 의해 짓밟히고 깨지며 유린당해 왔는지 잘 알고 있다. 의순공주 이야기가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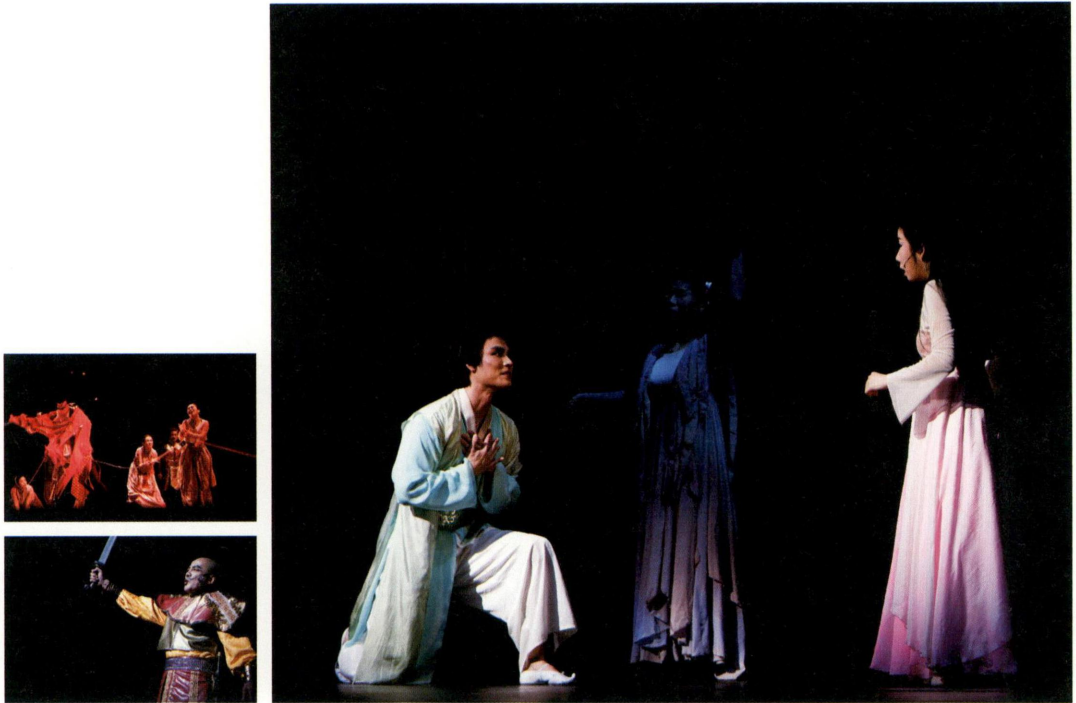
370여년 만에 '화냥년' 굴레 벗은 의순공주

의정부 금오동 천보산 끝자락에는 작고 초라한 묘가 하나 있다. 바로 의순공주의 묘다. 사람들은 '족두리 묘'라 부른다.

의순공주 묘가 어떻게 족두리 묘가 됐을까. 그 연유 속에는 우리 사회가 드러내기 싫은 치부가 깊게 서려 있었다. 구전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의순공주는 청나라로 가지 않았다. 도중에 평안도 정주에서 강물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강물에 빠진 시신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족두리만 가져와 '족두리 묘'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밟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자국의 공주가 오랑캐의 나라로 팔려가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 2010년 의정부문화테마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뮤지컬
'의순공주' 쇼케이스 공연의 한 장면

이 때문에 의순공주가 '화냥년'이라는 굴레를 벗고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낸 여성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되찾기까지는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373년이다. 지난 2009년 의정부문화원은 의정부문화테마발굴 프로젝트 사업의 소재로 의순공주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마침내 의순공주는 당당하게 후손들 앞에 섰다. 뮤지컬 '의순공주'를 통해서, 문화원은 완전한 뮤지컬 제작에 앞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한 중간단계로 쇼케이스 공연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올렸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조수기 문화원장은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해 각 세대별로 6천명이 관하고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세대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며 “질적으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후 2011년에는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한 경기도 문화원형 발굴사업 공모에 참여해 의정부의 문화원형 소재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화원은 2012년 말까지 시나리오 작업을 완료,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2013년 10월 완성된 작품을 대중 앞에 선보일 계획이다.

물론 아직도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돼 2010년 쇼케이스 이후 한 걸음 더 내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박정근 문화원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의정부문화원이 만들고자 하는 뮤지컬 ‘의순공주’는 앞서 제작됐던 대형 역사 뮤지컬 ‘명성황후’, ‘남한산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인물 혹은 사건을 이야기하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숨어 있는 역사적 보물을 찾자는 것이다.

조 원장은 “전국 230개 문화원 가운데 의순공주 같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원형적 콘텐츠가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며 “의정부문화원이 그 시발점이 되어 좋은 선례를 남긴다면 전국적으로 문화원형 복원의 불이 일거라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 의정부 금오동 천보산 끝자락에는 초라한 의순공주의 묘가 남아 있다

▶
'의순공주' 쇼케이스
공연의 한 장면



의순공주여! 역사 앞에 다시 서라

의정부 금오동에는 언제부턴가 의순공주의 님을 기리는 '정주당놀이'가 전해져 오고 있다. 매년 3월, 한 많은 일생을 살다간 공주를 달래는 진혼굿을 비롯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잔치를 벌인다.

의정부문화원은 뮤지컬 제작과 함께 '정주당놀이'를 향토무형문화재로 등재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만약 등재가 이뤄지면 의정부로서는 향토무형문화재 1호를 갖게 되는 셈이다. 대대로 금오동에서 살아온 금림군 일가는 손가락질을 견디다 못해 이제는 파주, 포천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다행히 의순공주 묘역 바로 밑에 홀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후손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다. 정주당놀이 보존회장을 맡고 있는 이진형씨다.

“역사적으로 의정부는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했던 곳입니다.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지금도 최전방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죠. 애숙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을 바쳐 나라를 구했던 거죠. 의순공주와 의정부는 한 몸입니다.”

의정부가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 위해 서라도 의순공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글 |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의정부문화원 T. (031)872-5678 F.853-0433
480-072 | 의정부시 산단로 123

Tip



“구리시 문화 전파대 등장이요”

“명금일하 대취타(鳴金一下 大吹打)”

등채가 머리 위로 올라가고 집사의 호령으로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대기실에서의 화기애애하고 귀엽던 아줌마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약간은 긴장된 표정과 함께 전립(戰笠)을 쓰고, 황 철릭을 입고, 남전대(藍纏帶)를 두르고, 미투리를 신은 모습은 근엄하기까지 하다. 2009년 인연을 맺은 취타대에 꼭 빠져 배움에 여념이 없는 이들은 구리문화원(원장 김문경)의 자랑거리 ‘건원취타대’ 다.



▲ 평균연령이 50대 후반으로 90%는 여성들로 구성된 건원취타대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지역 축제의 명물로 평가받고 있다

“

주2회 연습, 출석률 90% 이상 기록
 자율적으로 운영될 만큼 궤도에 올라
 신입 단원 영입 및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하늘로부터 탄생한 취타대

구리시에는 남한 최대의 조선왕조 능인 동구릉과 아차산 고구려 보루, 유적 유물 등이 있다. 특히 동구릉은 2009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 40기에 등재되었다.

구리문화원은 동구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학술회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취타대를 꼽았다. 즉, 이를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 취타대를 구성하게 됐다.

취타대가 연주하는 대취타란 왕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 또는 개선 등에 취타와 세악을 대규모로 연주하는 행진곡풍의 군례악(軍禮樂)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이기도 하다. 현재 민간의 광고 악대나 시찰의 의식에 사용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취타에 사용되는 악기는 유일한 선율을 낼 수 있는 태평소와 단음의 취악기 나발과 나각, 그리고 무율 타악기인 북, 장구, 징, 자바라 등이다.



▲ 2011 동구릉문화제 민속공연에 참가한 건원취타대

구리문화원이 구성한 '건원취타대'는 2009년 '하늘아리'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11년 문화원 자체지원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나이제한은 없지만 평균연령이 50대 후반으로 90%는 여성들로 구성돼 있다.

이쯤에서 '건원취타대'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졌는지가 궁금해진다.

동구릉은 태조 이성계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태조의릉을 건원릉(建元陵)이라고 하다. 이 능의 이름을 따 '건원취타대'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2009년 당시 '하늘아리'라는 이름 역시 하늘을 상징하는 '건'과 아래의 '아리' 또는 한강의 '아리수'가 섞인 이름이겠네요?"라는 질문에 윤승민 문화원 사무국장은 "아, 그럼요. 구리에 한강도 있잖아요"라며 허허 웃는다.

프로보다 더 프로다운 사람들

30대 중반의 강사는 단원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인데도 소통뿐 아니라, 단원들을 이끄는 카리스마가 남달라 단원들이 무서워하기도 한다.

아직 원숙미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대원의 교체 없이 맡은 파트를 3년간 해 오면서 기량이 월등히 좋아져 외부의 공연의뢰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취타대의 특성상 한 가지 악기를 전문적으로 맡아야 하는데 악기 배정에 대한 트러블은 없었을까.

이 뜬금없는 질문에 “가벼운 악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었고 가격대가 비싼 악기나 무거운 악기는 부담스러워 하기도 했지만, 남성의 경우 깃대를 들고 체격(?)에 따라 악기를 배정하기도 해서 맡은 악기에 대해 이미 프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라는 답이 돌아온다.

공식적으로 주2회, 오후 4시라는 수업시간이 직장인들에게 그리 만만한 시간이 아닐텐데도 출석률은 90% 이상이다.

“취타대는 의장대인거예요. 엄격한 규칙과 규율이 존재하죠. 그 시작이 출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엄격함만 가지고는 지금처럼 오지 못했을 겁니다. 현재 70%는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의 시간을 내어 참여할 만큼 취타대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 그 열의가 대단하죠. 자부심과 목표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윤 사무국장의 취타대와 대원들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다.





사람 몸이 내 맘대로 되나, 기다리고 보듬어야지!

흔히 접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닌 탓에 배움의 속도가 모두 달라 고생도 했다. 생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식과 함께 연주까지 해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기에 마음을 모아 잘 해보자고 의기투합하지만, 실력이 하루 아침에 향상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연습 때는 더 조바심을 내기도 한다. 공연 때마다 무대 뒤에서는 밝은 표정이면서도, 설레고 떨리는 마음을 뒤로 감추는 단원들에게는 항상 비장함이 보인다.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잡고 음악에 맞춰 왼발 먼저 움직여요. 단장님의 뒤를 따라 무대로 올라가지만 뒤따라가던 신입 단원은 매번 엉뚱한 곳으로 간다니까..” 1년차 회원인 윤미경씨는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하지만 아무리 말로 지적해도 나이 탓인지 안되는 부분이 많아 ‘으악’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투정 역시 취타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섞인 자랑으로 들린다.

이와 관련 장미경 단장은 “단원 모두 잘하면 좋겠지만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 젊음의 유리한 점과 연륜의 지혜로움이 함께 있어 조화를 느끼며, 이 모든 것이 큰 자산이란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제 건원취타대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만큼의 궤도에 올랐다.

공연수익으로 연2회 워크숍도 가고, 신입 단원의 의상이나 악기구입에도 사용할 만큼이라고 하니 즐겁게 일할 맛도 날 듯하다.



▲ 건원취타대 멤버들은 주2회 연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취타대는 구리시의 행사 뿐 아니라 기신제나, 환구대제, 별산굿 놀이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에 초청받고 있다.

외부 공연의뢰를 받을 때마다 개인이 아닌 구리문화원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문화원의 이름을 걸고 초대되는 만큼 열의와 책임감도 느낀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김문경 원장을 찾아 자랑과 투정을 부린다고 한다. 그 때마다 ‘늘 잘했다. 자랑스럽다. 칭찬 받으며 좋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아느냐’며 사무국장은 빙긋이 미소를 짓는다.

“문화원에서 참견하지 않아도 스스로 너무도 잘 꾸려가고 있어요. 예산운영에서부터 회의구조까지 모두 자율에 맡겼습니다. 자율성을 부여하니 자율 속에서 문화원에 대한 애착도 더 생기는 것 같구요.”

소속감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 문화원의 이름으로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무게감과 그것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관계야말로 오늘의 취타대를 있게 했다. 그들의 관계가 부럽기까지 하다.

원원취타대는 2013년에 세 가지의 계획이 있다.

매년 5명 정도의 신규단원을 양성하고, 기존 단원이 자신의 악기 외에 배우고 싶었던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취타대의 활동이 구리의 초등학교에 많이 알려 관심을 갖도록 이끌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취타대를 각 학교의 어린이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목표다.

단원들은 말한다.

“나의 예술적 혼을 깨워주는 아주 귀한 활동이기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잘 갖고 닦아서 동구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고 싶어요. 또 이곳에서 단원들의 각각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른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배우고, 기다려주고, 다독이고, 소통하는 동안 그들에게 이곳은 삶의 의미가 되어 있는 듯하다.

글 | 유쾌한 책상머리

구리문화원

T. (031)557-6384 F. 553-3993

471-829 | 구리시 동구릉로 217-14

Tip



역사와 퀴즈, 전래놀이 합친 ‘남양주 스타일’ 향토순례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은 고민한다. 방학시즌이 되면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어 기본적으로 영어캠프다, 경제캠프다, 심지어 다이어트캠프까지 알아본다. 아예 해외로 보내 야구, 골프 등을 지도 받으며 영어도 배우는 스포츠캠프를 보내는 부자엄마도 있고, 진로탐색이나 인성교육을 위해 국내 청학동 예절, 해병대 캠프 등을 찾는 엄마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 일단 가격이 비싸고, 멀리 떠나면 좋은 프로그램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자칫 우리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악몽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 가면 휴대폰·왕따·기합이 없는 ‘3無 향토순례’가 있다.

남양주문화원(원장 이용복) ‘향토순례단’은 역사와 퀴즈, 그리고 전래놀이가 합쳐진 ‘내 고장 역사와 문화 바로알기’ 프로젝트로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기를 듬뿍 받고 있다.

남양주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100명으로 구성된 제15기 향토순례단이 2012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의 대장정을 무사히 마쳤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완주에 성공한 향토순례단의 2박3일을 따라 가봤다.



▲ 2012년 8월 13일 저녁 학생들이 남양주시의 문화재와 관광지를 홍보하는 포스터 만들기가 한창이다

“

휴대폰 · 왕따 · 기합 없는 ‘3無 향토순례’

지역의 자랑스런 문화재 · 자연환경 탐사 통해

애향심 키워...학생 · 학부모들에 인기

”

내 고장을 걷고, 또 걷고...

2012년 8월 13일, 남양주시 삼패한강시민공원에서 제15기 남양주향토순례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2박3일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살인적인 8월 무더위에 단원들은 도보행군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더워 죽겠어요”, “더 이상 못 걸겠는데”...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병부리는 단원도 있었다.



▲ 2012년 8월 15일 오후 평내동 서경청소년수련관에서 2박3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친 100명의 단원들과 남양주시 대학생 플래너즈 멤버들이 이용복 문화원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둘째날 '도전! 남양주골든벨'이 열린 가운데 100명의 학생들이 그간 숨은 퀴즈실력을 뽐내고 있다

그 가운데도 남자단원은 두 개의 배낭을 들기도 했고 체력적으로 힘든 여자단원들을 위해 손에 쥔 손수건을 끌어주기도 했다.

향토순례단원들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장의 역사 유적지나 명소를 직접 찾아가면서 그 숨은 뒷이야기를 듣고 내 고장에 대한 애郷심을 키워보고자 걷는 것.

삼패한강시민공원에서 12km를 걸어 도착한 첫 번째 목적지는 '조선 실학의 집대성자'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와 실학박물관이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012년은 다산 정약용 선생 탄생 250주년을 맞는 아주 특별한 해로 시대를 앞서간 대학자이자, 개혁가로 정치·경제·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세계적인 인물이 남양주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단원들은 다들 놀라워했다.

이튿날 14일, 단원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왕조 500년 역사' 여행이 가능한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26대 고종(1852~1919)과 27대 순종(1874~1926)이 모셔진 홍릉과 유릉에 도착했다. 해설사로부터 듣는 재미있는 역사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왔다. 특히 1895년 10월 일본 자객들에게 암살된 뒤 1919년 고종과 함께 현재의 금곡동 홍릉에 합장된 '비운의 국모' 명성황후의 스토리를 듣고선 개구쟁이 녀석들도 순간 숙연해졌다.

이와 함께 단원들은 남양주시 명소로 꼽히는 남양주역사박물관, 유기농박물관을 차례대로 답사하면서 우리 동네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비록 몸은 고될지라도 아이들의 표정에서 내 고장을 알아간다는 사실이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했다.

무엇보다 단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명소는 바로 화도읍 금남리에 위치한 ‘피아노폭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서 만든 91.7m 높이의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폭포인 ‘피아노 폭포’를 보고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인공폭포와 함께 대형 그랜드피아노 모양의 화장실을 직접 사용하면서 신기해 했다.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해 더 재미있어요”

향토순례단은 밤마다 수상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 첫 날 밤엔 팀별로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관광포스터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고, 둘째 날 밤엔 ‘도전! 남양주골든벨’이 열려 단원들의 그간 숨은 퀴즈실력을 뽐냈다. 영예의 1위를 차지한 김한별군(덕소초교4)은 “‘나의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님과 같은 역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라 평소 역사책을 많이 읽고 특히 가족들과 남양주시의 주요 유적지를 다녀본 경험이 퀴즈를 잘 풀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 ‘조선 실학의 집대성자’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와 실학박물관이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를 방문한 학생들



마지막 날에는 전래놀이 ‘색동저고리팀’과 함께 투호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 전래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컴퓨터도 휴대폰도 없는 2박3일이었지만 단원들은 지루해 하지 않았다. 오로지 걷고, 달리고, 넘어지고, 잡고, 춤추며 신나게 몸으로 놀았다.

그런데 단원들을 24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수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행군할 때 힘들어하는 단원들을 이끌어주고, 밥 먹을 때 반찬 챙겨주고, 신나게 놀아주고, 잠도 같이 자고 그야말로 엄마처럼, 선생님처럼, 친구처럼 ‘1인3역’을 담당한 이들은 누구일까.

바로 단원 100명의 파트너를 자처하며 2박3일을 동행한 ‘남양주시 대학생 플래너즈’ 멤버들이었다.

‘남양주시 대학생 플래너즈’ 단장을 맡고 있는 함승영(20·한국재활복지대학)씨는 “아르바이트하랴, 스펙관리에 취업준비 하랴 다들 바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어린 동생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나마 주고자 25명이 참여하게 됐다”며 “어머님들께서 지역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니깐 믿고 맡기신 만큼 특히 안전에 유의해 행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 남양주향토순례단 100명의 단원들이 2012년 8월 13일 삼패시민공원에서 2박3일의 대장정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에 소재한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를 방문한 단원들



쌍둥이자매 방찬·방송(별내초교4)을 참여시킨 학부모 이유경씨는 “딸 가진 부모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 참여한다고 해서 믿고 보냈다”며 “알찬 프로그램과 믿을 만한 인력풀이 향토순례단의 최고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8월 15일 오후 서경청소년수련관에서 해단식을 갖고 2박3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100명의 향토순례단원들은 남양주시의 다양한 문화재와 관광자원, 자연환경을 답사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인내력과 애향심으로 똘똘 뭉친 ‘남양주스타일’의 어린이로 변신해 있었다.

3일 만에 엄마 품에 안긴 김세민(장현초4)양은 “밥도 맛있었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지역 곳곳을 누비다 보니 남양주 어린이로서 자부심이 생겼다”며 “하룻밤만 더 자고 갔으면 좋겠다”고 미소 지었다.

이용복 문화원장은 “올해 향토순례단이 탈 없이, 낙오자 없이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열정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 플래너즈의 역할이 컸다”며 “남양주시의 훌륭한 지역성과 알찬 정보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문화원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남양주문화원 T. (031)592-0667 F. 592-0668
472-809 | 남양주시 경춘로 883-36

Tip



향토사와 역사가 숨쉬는 안산 시민들의 역사교과서

프랑스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은 모네의 수련 연작을 전시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본래 식물원이었지만 수련 전시에 초점을 맞춰 1999년부터 6년간 건물 개조공사를 벌인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모네의 소망대로 길게 펼쳐진 수련 연작을 자연 채광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작품을 위한 미술관'으로 구축한 것. 걸만 웅장하고 화려하게 완성한 전시공간과 그 품격이 다른 것은 두 말 하면 잔소리다.

갑자기 왜 머나먼 이국땅의 미술관 타령인가. 안산문화원(원장 김봉식)이 이처럼 유물을 수집한 후 그에 맞춰 정체성이 뚜렷한 공간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기실 그 규모와 역사는 비교할 수 없지만, 수많은 공연미술공간과 문화교육센터의 등장에 갈 길을 잃고 휘청거리는 문화원이 '선 소프트웨어, 후 하드웨어'를 지향하며 마련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우위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의미가 깊다.



▲ 2011년 9월 11일 안산 이화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안산향토사박물관 견학 후 전통놀이 시간에 북과 장구를 배우고 있다

“

버려지고 잊혀진 유물 발품팔아 수집

민속유물 · 전통놀이 다양한 즐길거리 풍성

전통문화 전승 · 문화공간 역할 톡톡

”



도내 문화원 중 유일한 ‘등록 박물관’

“저희가 자랑거리가 아주 많아요. 다른 문화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이렇게 잘 지은 문화원 건물에 향토사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박물관도 있잖아요. 지역 교사와 학생의 놀이터나 다름없어요.”

22년간 안산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우 사무국장은 연신 자랑에 침 마를 새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안산 시민의 생생한 역사 교과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물관의 유물 대부분이 이씨가 20여 년 전부터 직접 수집하고 매입한 것들이다.

도내 문화원 중 최장수 사무국장으로 꼽힐 만큼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이씨는 지난 1991년부터 도시개발사업에 사라져가는 안산의 마을 곳곳에서 ‘고물’을 주웠다.

“힐리는 마을에서 나온 것은 우리 지역의 생활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인데 막 찍어버리고 물어버리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수 천점을 모으고 기증받아 향토사료관을 만들었어요.”

포크레인을 동원해 땅 속에 묻혀있는 ‘연자방아’를 꺼내고 야산에 방치되다시피 버려져있던 ‘태실’도 수거했다. 이 태실은 왕가의 태를 묻은 석실로, 안산 단원구 고잔2동 주공아파트 8단지에서 출토됐다.

또 제보를 받고 찾아간 안산 반월동의 한 빈집에서 찾은 고문서와 고서적 300여권을 발견, 주인을 찾아 문화원이 위탁관리하기로 했다.

안산문화원은 그렇게 10여 년간 모은 것을 보여주는 향토사료관을 운영하는 한편, 꾸준히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과 기록물을 수집하고 매입했다. 2008년에는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기에 이른다.

“도내 문화원이 운영하거나 추진 중인 중인 향토사료관은 있지만 등록박물관은 유일하죠. 그 요건을 갖추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예산 지원이요? 그것보다 전문가가 평생직장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최우선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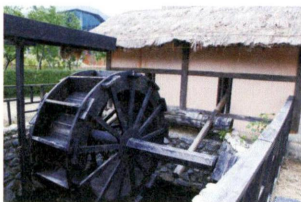
전국에서도 유사 모델을 찾기 어려운 ‘문화원이 등록한 박물관’은 전문인력 확보에서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 안산향토사박물관 전시실 전경





▲ 왕가의 태를 묻은 석돼지



▲ 물레방아

역시 사람이 힘이다.

지역문화원들이 하나같이 ‘예산 지원에 대한 간절함’을 부르짖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주장하는 것이, 정답임에도 낯설고 색다르다. 그 색다른 것은 ‘지자체장 변화에 따른 문화원 인력 물갈이’와 같은 불편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저라고 왜 자리 내놓으라는 압력이 없었겠어요? 초창기부터 향토사에 푹 빠져 안산을 살살이 뒤지고 기록했는데 그게 다 제 머리에 있으니 힘들게 살아남은 거죠. 문화원장이 바뀌거나 자치단체장 변화에 상관없이 문화원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근무한다면 1층 박물관 등록이 어렵겠습니까.”

연중무휴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교과서

2012년 9월 11일 오전 10시. 새소리와 닭울음소리가 허공을 가르던 문화원이 시끌벅적해졌다. 인근 이화어린이집의 4~5세 원아 20명이 문화원 1층의 안산향토사박물관을 찾은 것이다.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자못 진지했던 아이들은 체험공간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썰 새 없이 조잘거리며 낯선 옛 물건을 서로 만지며 까르르 웃는다.

시간이 흘러 한산해진 박물관이 또 다시 어린이들로 북적인다.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방과 후 들러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친구들과 전시장을 구경한 후 떠난다. 이 같은 초등학교생들의 방문이 오래됐나보다. 박물관 정수기에는 종이컵 대신 약수터에서 볼 수 있는 바가지 하나가 걸려 있다.

최현호(석호초 4년)군은 “지난번에는 엄마랑 같이 왔었는데 재미있었다”며 “그 이후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가끔 들러 전시를 본다”고 말했다.



▲ 어린이들이 맷돌 돌리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연중무휴 어린이의 놀이터이자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는 안산향토사박물관은 1종 박물관으로 등록한 후 도비와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건평 약 2천200m² 규모의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수장고 등이 있다.

보유 유물 2천517점 중 300여점을 상설 전시하며 매년 2~3회에 걸쳐 주제별 유물을 돌아가며 선보인다.

이 곳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선사시대, 삼국시대에 안산에 사람이 살았음을 방증하는 유물을 전시하고 현재 주요 시설과 지정문화재 등을 모형과 멀티미디어 자료로 보여준다.

일상생활에 사용했던 민속유물을 의식주로 나눠 전시하는 한편, 안산의 전통 놀이인 둔배미 놀이를 소개하면서 지역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박물관은 또 맷돌과 다듬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역사적 의미가 깊은 유물부터 매일 알 낳는 닭을 키우는 전통가옥 등을 만날 수 있는 야외 전시실도 있다.



야외전시실에서는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의 폐능지에서 출토한 ‘석양’과 왕가의 태를 묻었던 ‘태실’, 직접 돌릴 수 있는 ‘연자방아’ 등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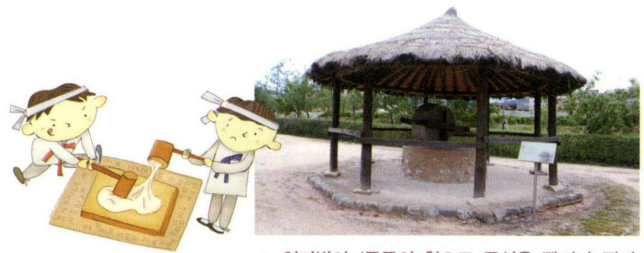
이처럼 보고 즐길 것이 많으니, 조영주 학예사의 “한 번 와도 다 익히고 갈 수 없어요. 끊임없이 아이들이 몰려 온다”는 말에 공감하게 된다.

김봉식 문화원장은 “안산향토사박물관은 문화원의 정체성을 집약해 보여주는 공간이자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과 시민들의 문화공간 등 본 기능을 수행하는 효자”라며 “지역에서 높아진 문화원의 위상만큼 질적 수준이 더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기획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사진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 전통초가집



▲ 연자방아 (동물의 힘으로 곡식을 빻거나 찧기 위한 농기구)

안산문화원

T. (031)415-0041 F. 415-0043

426-894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44

Tip



불꽃같은 삶을 살다간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의 탄신을 기리다

명성황후(1851~1895)는 조선시대사뿐만 아니라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행보를 보여준 왕비였다. 열여섯 살 소녀 민자영이 조선의 왕비가 되어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결국 일본인들에게 비참하게 시해되기까지의 일대기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통한의 역사 속에서 불꽃같은 삶을 살다간 명성황후를 통해 조선말의 혼란했던 역사적 상황과 대한민국 근대사의 아픔을 엿볼 수 있어 그녀는 아직도 각종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 그리고 책 등 다양한 장르의 주인공으로 사랑받고 있다.

여주문화원(원장 김문영)은 명성황후의 고향, 여주에서만큼은 그녀를 '비극적인 국모'가 아닌 '대한민국 여장부'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2012년 생일잔치를 성대하게 치렀다.



▲ 2012년 11월 17일 여주읍 능현리 명성황후 생가 유적지에서 명성황후 탄신 161주년을 기념해 송모제가 거행되고 있다

여주문화원 ‘제161주년 명성황후 숭모제’ 개최
 왜곡된 명성황후 인식 바로잡고 업적 재조명
 “‘왕비 간택례’ 직접 보니 신기하네”

영리하고 재기발랄했던 소녀, 조선의 국모가 되다

명성황후는 여흥 민씨로 1851년(철종2) 음력 9월 25일 여주군 근동면 섬락리 (지금의 여주읍 능현리 250-2)에서 태어났다.

8살에 아버지 민치록을 여원 이후 명성황후는 어머니와 함께 여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와 운현궁 앞 여흥 민씨 종가 내 감고당에 머물렀다. 조선시대 대를 이을 사내아이가 없는 집안은 이미 몰락을 예정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12촌인 민승호가 양자로 들어와 집안의 제사를 맡기는 했지만, 사실상 명성황후는 어머니와 단둘이 외로운 성장기를 보냈다. 명성황후는 어린 시절, 영리하고 재기발랄 함으로 인해 인근의 칭찬이 높았다.

그때 당시 철종이 창덕궁에서 승하하고 닷새 뒤 흥선군 이하응(李昰應 1820~1899)의 둘째아들 명복이 조선 제26대 임금으로 즉위하니 이가 곧 고종이다. 흥선군은 실권을 장악하고 고종의 왕비 책립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원군은 명성황후가 총명하기는 하나 주변에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 자신의 집권에 방해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명성황후를 조선의 국모로 삼았다.

1866년(고종3) 3월 7일 민치록의 딸 명성황후를 고종의 왕비로 맞아들인다는 조칙이 반포되었고, 3월 9일 납채례(納采禮·청혼서를 보내는 의례), 3월 11일 납징례(納徵禮·혼수를 보내는 의례), 3월 17일 고기례(告期禮·신부 집에 혼인 날짜를 알리는 의례), 3월 20일 책비례(冊妃禮·왕비를 책봉하는 의례)에 이어 21일 별궁에서 친영례(親迎禮·신랑이 신부집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 22일 인정전에서 문무백관의 하례속에 상견례(相見禮)가 거행됐다.

이때 나이 만 14세 6월, 비운의 황후로 기록된 명성황후의 국모로서의 삶은 이렇게 시작됐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비극...명성황후 시해사건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된 명성황후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남편 고종에겐 이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아버지 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명성황후는 아들을 두 명이나 낳았지만 모두 요절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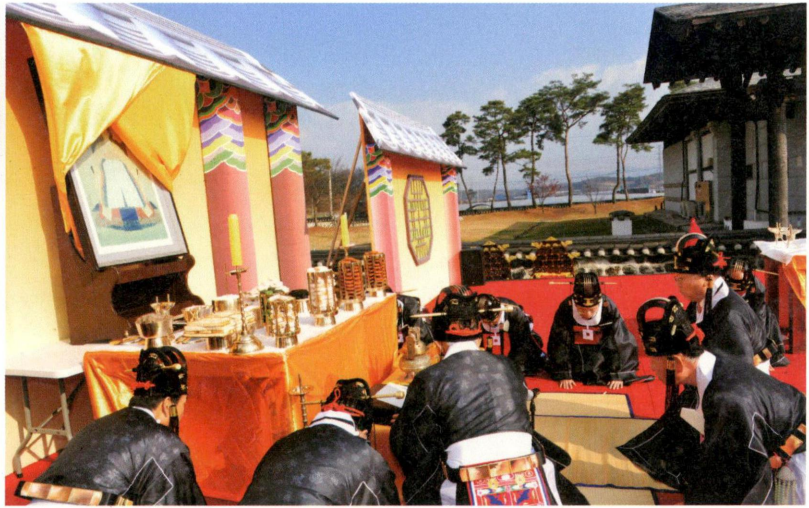
명성황후와 대원군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이기 전에 조선의 독립과 부국강병을 누구보다 갈망했다. 대원군은 쇄국정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보수세력에 의한 부국강병을 추구하려 했다. 반면 명성황후는 친일본으로 대표되던 개혁세력을 바탕으로 근대화를 시도했다.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 심했다.



▲ 명성황후 승모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1895년 음력 8월 20일 새벽,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청궁의 옥호루에서 명성황후는 난입해 들어온 일본 낭인들의 손에 처참하게 시해 당했다.

시신마저 향원정의 녹원에서 불살라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사건)이다. 이 을미사변을 지휘한 것은 일본 정부의 지시를 받은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였다. 명성황후의 시해사건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였다. 국내에서는 일본에 왕비 살해의 원한을 갚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국제적으로는 일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졌다. 시아버지였던 대원군은 이 틈에 잠시 정권을 되찾는 듯했지만, 고종이 이미 아버지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공관에 안전을 의탁하는 아관파천을 행함으로써 곧 실각했다.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으로 인해 조선은 국격을 훼손당하고 망국으로 가는 길을 한발 더 내딛게 됐다.



▲ 명성황후 탄신 161주년을 기념해 승모제가 거행되고 있다

명성황후는 시해 직후 대원군에 의해 폐위돼 서인으로 강등됐다가 같은 해 고종에 의해 복호됐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명성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황후로 추봉됐다. 장례는 죽은 지 2년 만인 1897년에 가서야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홍릉에 안장됐다.

탄신 제161주년 기념 ‘명성황후 승모제’ 거행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살해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엇갈린다. 그녀가 망국의 왕비로서 나라를 망치게 한 장본인이라는 평가부터 구국을 위해 몸을 바친 시대의 여걸이었다는 평가까지 극단적이고 다양하다. 이것은 아마도 19세기 말 시대적 혼란 상황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정국운영의 다양한 면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들조차도 그녀를 ‘동양의 호걸’, ‘여장부’로 평가했다. 명성황후는 총명하고 정치에 적극적이었으며, 시대를 앞선 매우 현대적

인 자존감을 가진 여인이었다.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여주문화원(원장 김문영)은 2012년 11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에 있는 명성황후의 생가(경기유형문화재 제46호)에서 명성황후의 탄신 161년을 기념해 숭모제가 거행했다.

종전에는 매년 10월 '추모제'를 열던 것을 지난 2011년부터 여주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낸 것을 경축하고자 '숭모제'로 전환했다.

사전행사로 취타대·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예조판서 행렬이 등장해 황후 탄생을 경축했고 여주향교유림회와 전주 이씨 종친회의 집례로 헌작례를 올렸다.

공식행사는 김춘석 여주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헌화와 분향, 기념사, 축사, 축시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왕비 간택례'로, 고종의 후손인 '이석'이 왕 역할을 했고 왕후, 상궁, 사대부가 규수(처녀) 등이 함께하며 왕비 간택 의례를 생생하게 재현해 냈다.

또한 헌작례는 향교 유림회와 전주이씨 종친회에서 집례하고 김춘석 여주군수가 초헌관으로, 아헌관은 이우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산복면 분회장이, 종헌관에는 민병진 여흥민씨 종중삼방과 종중회 이사장이 맡아 진행했고 성우 박일씨가 홀기마다 설명과 해설을 들려줌으로써 행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여주문화원은 '명성황후 숭모제'를 통해 우리 역사의 한 시대를 장식했던 명성황후의 넋을 위로하고 왜곡된 명성황후의 인식을 바로잡고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여주문화원

T. (031)883-3450 F. 883-3200

469-809 | 여주군 여주읍 신록사길 6-6

Tip



파주가 낳은 대선현 율곡 선생을 추앙하는 축제, 세계로 通한다

율곡 선생은 1536년 외가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다. 사임당 신씨가 율곡을 낳던 날 밤, 검은 용이 바다에서 침실로 날아와 아이를 안겨줘 어릴 적에는 '현룡(見龍)'으로 불렸고, 훗날 '율곡(栗谷)'이라는 호를 사용했다. 호는 자신이 성장한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서 따온 것이다. 이처럼 율곡 선생의 본향(本鄉)이며, 문향 파주(文鄉坡州)의 근간인 파주 지역에서 2012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뜻 깊은 축제가 열렸다. 파주가 낳은 대선현 율곡 선생을 추앙하는 '제25회 율곡문화제'가 바로 그것. 파주문화원(원장 우관제)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율곡선생유적지에서 개최한 문화제는 조선 중기 선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에 충분했다.



▲ 율곡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된 자운서원 문성사에서 선생을 추모하는 추향제가 열리고 있다

“

울곡 선생 구도장원 후 귀향길 재연
 자운서원서 엄숙하게 ‘추향제’ 봉행
 울곡 선생 유적지 국가 사적 승격 추진

”

울곡 선생의 유덕을 기린다

울곡고등학교에서 울곡 선생 유적지까지 이어지는 유가행렬 재연·시민 길놀이가 ‘제25회 울곡문화제’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울곡 선생이 구도장원 후 귀향길을 재연한 유가행렬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예년과 다르게 참가자들은 미리 주문받았던 재미있는 분장을 하고 울곡 선생의 가치를 알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어 울곡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된 자운서원(경기도 기념물 제45호) 문성사에서 선생을 추모하는 ‘추향제’가 열렸다. 추향제는 집례관의 참홀에 따라 초헌관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 아헌관 이명세 파주시 노인회장, 종헌관 기우남 여충사 도유사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봉행됐다. 이어 권종인 파주시장 부인, 이평자 파주시의회 부의장, 종헌관 이상면 성균관 석전교육원 겸임교수 순으로 헌작을 하는 신사임당 추향제도 이어졌다.

추향제가 진행되는 동안 눈에 띄는 단체가 있었다. 이번 문화제의 꽃인 ‘이야기로 만나는 울곡기행’에 참가한 200여 명의 참가자들. ‘이야기로 만나는 울곡기행’은 파주문화원 소속 문화해설사 15명이 울곡 이이 선생의 발자취를 유적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로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오랜 시간 울곡 선생의 생전 모습이 담겨 있는 유적지가 파주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타 지역민은 물론 파주지역 신도시에 등지를 뜬 시민들조차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뜻 깊은 기행이 마련된 것이다.

오전 9시에 모인 기행단은 오전 추향제에 참여한 이후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제자들과 시와 학문을 나눴던 화석정, 율곡 선생이 자란 율곡리마을, 파주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원인 파산서원을 둘러봤다.

장작 7시간 동안 진행된 기행에서 이들은 화석정의 유래를 시작으로 밤나무골 이야기, 임진강을 밝힌 화석정, 효성이 깃든 시묘살이, 화석정과 우계를 오가며 쌓은 우정(友情) 등 500년을 이어 온 이야기들을 만나며 민족사를 빛낸 율곡 이이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
대북으로 율곡 선생의 글귀를
써내려가는 서예 퍼포먼스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연

율곡 선생의 제례를 마치고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는 율곡 선생 유적지 내 잔디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 몇 분이 시선을 잡아끌었다. 율곡 선생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파주 설화를 보며 그림에 맞는 지역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파주이야기’를 진행하는 문화해설사였다.

국학진흥원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수업을 받고 있는 이들은 파주 역사 속 이야기, 옛날 미담 등을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들려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과거 시험을 보는 듯한 전국한시백일장엔 웃지 못 할 풍경도 벌어졌다.

장원급제를 위해 화선지를 깔고 먹을 가는 청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백발 노인들이 자리를 메웠던 것. 포부만큼은 젊은이들 못지않았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백일장 참가자들은 율곡 선생의 주옥같은 글을 되새기며 온고지신의 지혜를 자신의 글 속에 풀어냈다.

백일장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에서 올라 온 박병성(68)씨는 “율곡 선생의 뜻을 기리며 애국정신을 주제로 글을 써내려갔다”면서 “수상 여부를 떠나 선생의 훌륭한 학식과 인품을 느낄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마당을 쓰는 빗자루만큼이나 큰 붓으로 율곡 선생의 글귀를 써내려가는 서예 퍼포먼스가 진행될 때에는 관람객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 몰리며 장사진을 이뤘다.

이밖에 파주 역사, 파주의 인물을 맞추는 장원급제 퀴즈대회, 율곡 백일장·사임당 미술제, 전통예절 배우기, 사물놀이 배우기 등의 관광객 참여행사와 국악뮤지컬 갈라 ‘효녀심청’, 서원음악회, 국악한마당 등의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은 율곡 선생을 기리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연을 누렸다.

▼ 국악뮤지컬 갈라 ‘효녀심청’을 관람한 시민들이 공연 후 배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국악뮤지컬 갈라 '효녀심청'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은 “율곡문화제는 제레만 지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율곡 선생을 알리는 것이 중심”이라며 “율곡 선생이 자라고 누워있는 이곳에서 방문객들이 끌려가는 행사가 아닌 자신이 직접 참여해 행사를 이끌어어나가는 문화제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율곡문화제, 세계로 향한다

율곡문화제는 2012년 25살 청년이 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른 지역 축제나 문화제처럼 규모가 크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율곡 선생이 잠들어 있는 이곳 파주가 지역적 특색상 교통이 불편한 탓에 율곡 선생 유적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의 율곡문화제에도 해 뜰 날이 기다리고 있다. 2013년 파주의 동서를 연결하는 56번 도로가 개통되면 운정신도시, 서울지역, 강원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율곡 선생을 알고 싶은 이들이 언제든지 이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붓글씨를 써내려가고 있는 어린이들

▼ 율곡기념관 전경



특히 2012년 12월 12일 그 동안 파주시에서 추진해온 ‘파주 율곡 이이 유적 사적승급’ 신청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사적분과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다. 2013년 2월 초 열리는 심의에서 최종 승격 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파주문화원이 율곡 선생의 덕행을 기리기 위해 야심 차게 기획했던 ‘율곡문화제’가 지역 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순간이 머지 않았다.

우관제 문화원장은 “현재 경기도문화재인 율곡 선생 유적지가 국가문화재로 최종 승격되면 율곡 이이의 본향이 파주라는 점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율곡 선생의 유덕을 기리는 문화제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고 파주를 문화의 도시로 알리는데 힘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사진 | 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파주문화원

T. (031)941-2425 F. 941-2511
413-030 | 파주시 중앙로 160

Tip



도미와 아랑의 사랑으로 시작된 하남의 뿌리 찾기

하남은 삼국시대초 백제 시조 온조왕 13년에 현재의 하남시 춘궁동 일대를 도읍으로 정하고 '하남 위례성'이라 부른 이래, 백제 근초고왕 25년까지 백제의 도읍지였다. 1989년 1월 광주의 일부 읍과 면이 합쳐져 지금의 하남시로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시로 승격한지 이미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하남은 역사적 정체성이 미비했다. 공동체 의식을 추구할 기제가 필요했다. 이에 하남문화원은 역사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해 2009년 그 첫발을 내딛었다.



▲ 2011년 '이야기가 있는 도미와 아랑의 사랑과 꿈' 공연. 모두의 축복 속에서 도미와 아랑이 되찾은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장면

“

2004년 학술대회서 ‘하남이 백제의 왕성이다’ 사실 확인
 도미설화 공연물로 재현…역사적 정체성 대중화에 앞장
 하남시와 경기도 대표 지역 브랜드로 다각적 활용 계획

”

하남에서 동아시아까지, 쉽지 않은 여정

2009년 하남문화원은 ‘도미설화 학술대회’를 통해 하남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가볍지만은 않은 여정에 올랐다.

우선 도미설화의 발원지가 하남임을 알리려는 노력이 2009년에 시작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두 번째 학술대회를 가졌다. 한성백제시대의 도읍지가 하남일대일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재검토하는 대회였다. 공주와 부여가 백제시대의 185년을 보낸 백제 도읍지라고 한다면, 나머지 500년은 한성백제시대가 된다. 즉 백제시대의 2/3에 해당하는 시간이 한성시대인 셈이고, 하남시 춘궁동 일대가 백제의 첫도읍지였다는 역사적 근거를 다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문헌자료를 분석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가지고 삶을 추정하고 복원하는 방식과 지명을 통해 상황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다. 2010년에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백제 지명 학술 대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백제지명 한홀(漢城)과 그 예속지명, 하남시 지명과 유적으로 복원한 한성백제 역사에 대한 토론문, 하남시 일대의 지명 변천 이렇게 3섹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하남 일대에서 백제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는 공식 발표로 인해, 지명을 연구하는 방식을 택해 학술대회를 진행한 것이다.

한성 백제 왕성이 하남에 있었다는 것은 단지 하남시에 과거 왕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 개로왕의 갖은 핍박과 고통을 딛고 다시 만나는 도미와 아랑



▲ 도미와 아랑이 서로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장면

백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남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행사들이 가볍지 않은 이유다.

문화 콘텐츠로 역사와 정체성을 찾다

하남문화원은 학술대회를 통한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도미 설화의 발원지로서 하남시민들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설화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기획했다.

2010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향토사대중화사업 공모에 응하기로 하면서 하남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대중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야기가 있는 무용-도미와 아랑의 사랑과 꿈’을 타이틀로 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인 나누리 예술단(단장 박진희), 청소년 역사문화교육원(원장 김성호), 한국고전 설화와 콘텐츠화에 관심이 있는 교수(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최래옥) 등 관계자들이 연계하면서 창작품 ‘찾아가는 내 고장 이야기-도미와 아랑의 사랑과 꿈’이 그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0년에 진행된 ‘이야기가 있는 무용-도미와 아랑의 사랑과 꿈’은 설화를 공연물로 재현했다는 것을 지나, 한성백제의 왕성에 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미설화 공연작품에 직접 참여하는 25명은 무용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도미설화를 극화하는 과정에 스스로 의견을 내놓았다.

설화의 내용과 등장인물 분석을 통해 각각의 표현 동작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제작에 개입했다.

3개월간의 제작기간, 3개월간의 공연기간을 통해 10개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공연과 시민 공연으로 마무리 됐다.

도미설화를 기초로 만들어진 2010년의 이야기가 있는 무용극은 2011년 노래와 무용이 있는 뮤지컬 형태로 다시 제작됐다.

하남문화원은 또 도미설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20개 학교를 확정해 도미설화에 대한 교육과 공연감상을 진행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 본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은 도미설화를 기본으로 연극, 국악창극, 판소리, 창작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작 등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도미설화를 기초로 한 하남시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대로 된 하나의 콘텐츠가 있다면 이것을 근간으로 다른 여러 문화 창작물을 전개시킬 수 있다는 복안인 한편, 도미설화를 하남시의 문화원형으로 삼고자하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한성백제 옛 도읍지 위례임을 알리는 조용한 선언이기도 하다.

글 | 김 설 자유기고가



Hamam Cultural Center

도미설화 콘텐츠 단계별 추진전략

1단계

2010~2011년에 제작된 도미설화 창작 무용극을 토대(삼국사기 도미부인 열전을 원전으로 삼음)로 2012년 지역 극작가의 감수를 거쳐 만든 창작 대본을 완성, 이를 뮤지컬 작곡 전문가와 연출가의 지도를 통해 하남시의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출연하는 창작 뮤지컬을 제작한다. 이후 극장 공연과 찾아가는 지역 내 공연을 통해 내 고장 설화가 창작 예술 작품으로 문화콘텐츠화한 결과를 공유한다.

2단계

2013년에는 창작 뮤지컬 대본을 토대로 애니메이션 창작 대본을 확정한다. 애니메이션 '도미와 아랑의 사랑 이야기' (가칭)를 만들어 전자출판과 동영상 보급으로 작품 향유 계층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 사업의 과정과 진행 중인 사업의 내용 요소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축해 도미설화가 하남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시의 문화예술 단체와 공동 사업으로 전개하고 그 결과를 지역 축제나 공연 등을 통해 공유한다.

3단계

2010~2013년 이뤄진 도미설화의 문화 콘텐츠화 사업을 진단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미설화 인물 캐릭터'를 창출한다. 도미설화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을 역사 문화의 전형으로 구현한 후 기존에 창작된 도미설화 무용극과 뮤지컬 및 애니 등을 상설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장 및 박물관을 마련한다. 이를 시민의 특화된 문화예술 관람 명소로 조성하는 한편, 도미설화를 시와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로써 다각적으로 활용한다.

포천문화원 | 실버악단

성남문화원 |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시연회

시흥문화원 | 청소년 독립운동 역사탐험

김포문화원 | 중봉문화제

가평문화원 | '그까이꺼 재즈'

고양문화원 | 상설공연 '고양의 얼! 고양 600년에 춤추다'

광명문화원 | 광명향토실버인형극단

동두천문화원 | 어린이 향토사 장원경시대회

용인문화원 | 규방문화연구소

안성문화원 | 실버벽화예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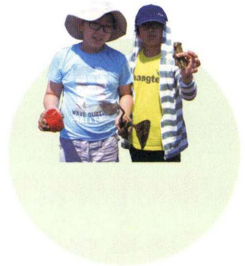
의왕문화원 | 여름갯벌체험

양주문화원 | 역사문화대학

이천문화원 | 설봉문화제

화성문화원 | 화성춤클럽

과천문화원 | 청소년사이버기자단 '효담보담'





사람, 삶. 그것이 문화를 만든다



Culture





▲ 2012년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태평양 하모니카 페스티벌'에 참가한 실버악단은 은상을 수상하고 이만구 문화원장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하모니카 선율로 아시아를 평정하다



포천 어르신들이 바람(?) 났다. 최고령 79세 젊은이 60세 젊은(?) 어르신까지 이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묘령의 여인을 만나 키스를 한다고 한다. 어르신들과 여인의 데이트 현장은 포천뿐 아니라 서울 홍대, 경기도,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지역과 국가를 불문하고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다. 어르신들의 입술을 빼앗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목격자를 만나러 직접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으로 달려 가봤다. 불과 '120그램의 갱마른 스타일'이라는 단서를 들고 말이다.

“

60세부터 79세 어르신들까지 총 10명
지역 각종 행사에서 섭외 1순위 등극
국내외 화려한 수상으로 실력 입증

”



평균연령 70세...양로원, 노인대학 등에서 무료공연하며 '제2의 인생'

“아이고 소문 듣고 왔구먼. 우리가 유명하긴 한가벼.(하하) 묘령의 여인은 무슨, 우린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실버악단 멤버들이여. 입술을 빼앗긴 건 맞네.(하하) 2009년 처음 만난 이야기부터 찬찬히 들려 줄게.”

최치선(64·군내면) 어르신은 묘령의 여인 실체부터 속 시원하게 공개했다. 포천 지역 여러 어르신들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하모니카’였다.

하모니카 선율에 매료돼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는 포천문화원 실버악단은 포천의 명물이다. 60세부터 79세까지 평균 나이 70대의 어르신 총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원 남성 멤버들이다. 건반, 기타, 아코디언 각 1명 외엔 모두 하모니카를 연주한다.

최치선 어르신처럼 수년간 포천의 남성마홀합창단 단장으로 활동했고 현재도 포천어린이집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실력과 뮤지션도 포진해 있다. 피아노와 기타 등 악기를 능숙히 다루며 이론도 뛰어난 홍순선(60·신읍동)씨가 지도강사를 맡고 있다.

어르신들과 하모니카와의 첫 만남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포천시의 지원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하모니카, 기타, 건반, 아코디언 교육이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2년 동안 하모니카를 악착같이 마스터했다.



▲ 솔모루성당에서 공연중인 실버악단

어르신들은 그저 하모니카를 배우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다. 일정 이상 실력을 갖춘 어르신들은 하모니카를 들고 연습실을 뛰쳐나갔다. 찾아간 곳은 노인 대학, 실버타운, 장애인 복지시설 등 문화소외지역. 그리고 포천시민의 날, 명성산 역사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 무대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서울 홍대 앞 ‘나이없는날 행사’ 공연부터, ‘전국문화원의 날 행사 초청공연’,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행사’ 등 100여 회 이상의 공연실적을 쌓고 있다.

요즘엔 포천 지역 행사에 실버악단의 축하공연이 빠지면 ‘양꼬 없는 찐빵’이라는 소릴 들을 정도다. 게다가 인접 지자체 각종 행사에서 섭외 1순위로 꼽히는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최고참 임석환(79·소흘읍) 어르신은 “우리에게 음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 중에서 하모니카처럼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악기도 드물다”며 “느지막이 하모니카를 만나 취미생활도 하고 공연 다니면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좋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자랑했다.

임두빈(77·신읍동) 어르신도 “하모니카는 호흡을 통한 리드의 떨림이 음색을 결정하므로 바른 연주 자세와 호흡법 그리고 부는 입의 모양새가 매우 중요



한데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설명하면서 꼭 배워볼 것을 추천했다.

‘제9회 아시아-태평양 하모니카 페스티벌’서 은상 수상 쾌거

하모니카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재능기부도 하면서 신명난 삶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연주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화려한 수상경력이 어르신들의 각오와 집념을 입증해준다.

실버악단은 2011년 11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제4회 효 실버 하모니카 경연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후원한 대회로 전국에서 모인 13개 실버 하모니카 연주팀이 열띤 경연을 펼친 가운데 대상을 차지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어르신들의 실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2012년 8월 2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태평양 하모니카 페스티벌’에서도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 제10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에서 아름다운 하모니카 선율을 선보이고 있는 실버악단



‘아시아-태평양 하모니카 페스티벌’은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약 30여 개국에서 하모니카 연주 약 2천여 명이 모여 연주 실력을 겨루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하모니카 대회로 2년에 한번씩 아·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실버악단은 ‘노들강변’과 ‘아리랑’을 합성해 새롭게 편곡한 4분짜리 곡 ‘노들강변 아리랑’을 들고 무대에 올라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리 민족의 전통과 애환이 서린 곡으로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우리의 전통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완벽한 연주를 위해 홍순선 강사의 지도와 한국 하모니카연맹 회장이며 국제하모니카계의 권위자인 이해봉 선생의 특별과외(?)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번 수상으로 우리 가락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경기도 포천시의 위상을 아·태 지역에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만구 문화원장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단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큰 결과를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우리 포천에도 하모니카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포천문화원 실버악단은 불과 4년 만에 ‘노년의 끈기’와 ‘짙짙한 실력’으로 포천 지역을 비롯해 대한민국, 그리고 해외에서 ‘포천 실버의 파워’를 입증해 보였다.

이 같은 성장세 뒤에는 실버악단을 이끄는 포천문화원의 숨은 노력과 무한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결과 포천문화원은 2012년 11월 열린



▶ 실버악단 어르신들이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자선공연을 하고 있다



▲ 매주 목요일 오후 다같이 연습을 하는 실버악단 어르신들

‘제14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경기도 지방문화원 어워드 시상식’에서 최우수 문화원상을 수상하고 상패와 부상으로 사무용 컴퓨터를 받았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내 문화원 중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한 문화원을 선정해 시상하고자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처음 제정한 상으로 도내 31개 문화원 중 포천문화원이 제1회 최우수 문화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포천문화원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행의 길동무로 사랑받고 있는 하모니카를 통해 ‘포천의 소리’를 알리는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13명의 어르신들은 오늘도 120그램의 가벼운 하모니카와 입술을 맞추며 행복한 노년을 만끽하고 있다.

글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포천문화원

T. (031)532-5015 F. 536-1020

487-803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92

Tip





▲ 지경꾼들이 양산도 타령에 맞춰 집 터를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품앗이로 집터 다지는 민속놀이 관람객들도 후끈

“에이여라 지경이여, 에이여라 지경이여...” 단풍이 곱게 물든 남한산성 자락에 풍악이 울려 퍼진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나온 등산객,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아이 등 가족 행락객의 발길이 자연스레 구수한 전통 가락에 이끌려 멈춰 선다. 이내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라고 멋스럽게 써내려간 붓글씨가 관람객들에게 공연 시작을 알린다. 평소와는 다른 사물놀이어서 그럴까. 어느새 남한산성유원지 놀이마당에는 풍악을 함께 즐기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이무술’이 술인지 사람 이름인지, 집터는 왜 다졌다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으로 그 소리의 역사를 따라가 봤다.



이무술은 성남 이매동의 옛 지명
집터 다지며…안녕과 복록 기원
주민화합 민속놀이로 발굴·복원



이무술은 왜 집터를 다졌나

‘이무술’은 술도 사람 이름도 아니다. 지금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옛 지명이다. 300년 전 천렵을 즐기던 한 농부가 냇가에서 커다란 고기를 안고 나와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고기가 바로 천 년 만에 승천할 이무기였던 것. 마을 주민들이 죽은 이무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위령승천제를 지내자 그 자리에 난데없이 매화나무 두 그루가 솟아 그 후부터 ‘이매동’으로 불리기 시작했단다.

이 마을에서는 자손을 분가시키거나 새로 집을 지을 때 집터를 닦고 지반을 튼튼하게 다졌는데, 이때 집을 짓는 동안의 안녕과 집은 지은 후의 복록을 기원하기 위해 소리를 내며 작업을 해왔다. 바로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다. 과거 이무술 자연부락 사람들은 주로 밤에 집터 다지기를 했다. 귀신이 밤에 움직인다고 믿어 컴컴해진 뒤에야 굿은 액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이때 집주인은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마련하고 지경돌과 햇불을 준비한다. 고사 술상을 준비하고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며 술을 사방에 뿌리고 동네 사람들과 나눠 마신 뒤 햇불을 켜들고 터를 다지기 시작한다. 선소리꾼이 선창하면 지경꾼들이 후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경꾼들 말 들어라 일시에 들었다 일시에 놓고 힘 있게 들었다 힘차게 놓자 한눈팔다간 큰일 난다 앞무릎 발등을 조심들 하세” “에이여라 지경이요” “남한산성 나린 줄기 영장산의 힘을 얻어 학의 등에 터를 닦고 온 천하에 부귀영

화 이 집터에 다 들었네” “에이여라 지경이요”

소리가 고된 작업을 흥으로 바꿔 힘든 줄 모르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하고,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때부터 이웃들과 집터를 다지는 미풍양속이 이어져 오면서 이매동의 집터 다지는 소리는 특색 있게 발달돼 현재 후손들에게까지 전해 내려오게 됐다. 방영기 총연출(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전수조교)은 “18대가 이매동에서 쫓 살아왔다. 내가 우리 민족의 얼을 찾기 위해 집터 다지는 소리를 발굴하고 전승한지 30년이 됐다”며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웃집에 따라가 집터를 다지고 쌀 떡국을 먹으며 보고 기억한 걸 그대로 옮겼다”고 말했다.

출연자, 관람객 모두가 즐기는 집터 다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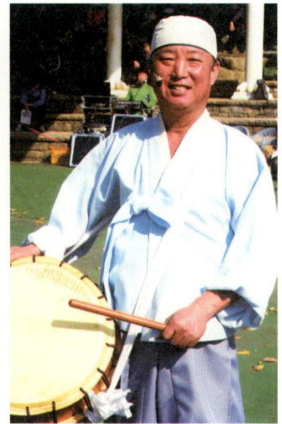
2012년 10월 20일 오후, 남한산성유원지 놀이마당에서 펼쳐진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시연행사에는 방영기 총연출과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보존회원, 성남농협주부농악단원, 한국국악협회 성남시지부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옛날 모습 그대로를 재현했다.

▼ 지경꾼들이 양산도 타령에 맞춰 집 터를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 성남농협주부농악단원들이 흥겨운 사물놀이로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있다



▲ 방영기 총연출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전수조교)

집터를 다지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복장은 모두 제각각이었다. 알록달록 예쁜 한복을 입은 여인부터, 누더기 옷을 입은 아낙네, 광목 그대로를 입은 처자까지. 당시 동네 사람 개개인마다의 생활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경꾼들은 가래줄로 집터를 고르고, 지경돌을 이용해 초지경 다지기를 시작했다. 방영기 총연출의 북소리와 함께 선소리는 빠질 수가 없다. 양산도 타령에 맞춰 초지경을 다지며 옆집 아저씨가 힘들까, 건넌마을 아낙 팔이 아프진 았을까 서로 역할을 바꾸기도 한다.

한참 터다지기를 하더니 고된 작업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마당놀이 한판이 벌어진다. 음식을 담당하는 아낙네들이 지경꾼들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고 김치 지짐이 한 조각, 쫄깃한 인절미를 입속에 넣어준다. 맛있는 음식을 먹은 그들의 노랫소리는 더욱 커진다.

여기에 지경꾼들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관람객들과 함께 탁주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옛날 그 시절의 정을 불러일으키자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워졌다.

뱃속이 든든해진 지경꾼들은 잠시 일을 내려놓은 채 방아타령을 부르며 흥겹게 춤을 추며 뛰놀고서, 마무리 터다지기 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저기 다지던 지경돌을 다시 중심으로 갖다놓고 지경꾼들도 각자 제 위치로 돌아온다.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도록 땅이 잘 다져졌다 싶을 때쯤, 지경꾼들은 자손 대대로 만년유택을 누리고 평생 풍년이 들라는 의미에서 ‘풍년가’를 부르며 작업을 마무

리한다. 흥이 절정에 다다른 지정꾼들은 박수를 치고 있는 관람객들을 집터로 모시고 나와 함께 장단을 맞추며 어깨춤을 춘다.

‘이무술의 집 터 다지기’는 품앗이로 집터를 다지며 상부상조하는 동시에 평소 어울릴 수 없었던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성남지역 민속놀이 전승 작업 한창

최근 신도시가 우후죽순 개발되면서 지역의 향토문화들이 자칫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농촌지역이었던 성남 분당구 이매동 일대 역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면서 그 옛날 이곳에서 불리던 집터 다지는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됐다.

이에 성남문화원은 지역의 사라져가는 민속 예술을 조사·재현하는 민속놀이 보존 전승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시연회’를 이날 세 번째로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판교지역에서 새해 초,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인 ‘판교 쌍용거줄다리기’와 2012년 6월 선보인 ‘구미동 오리뜰 농악’ 등 성남에서 잊혀가는 민속놀이를 발굴해 후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지정꾼들이 양산도 타령에 맞춰 집 터를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 지경꾼이 음식을 담당하는 아낙네가 건넌 막걸리를 들이키고 있다

다만, 옛것을 지키기 위해 성남문화원, 이매동 집터 다지는 소리 보존회 등 지역 민속놀이 분야 전승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미비한 지자체 예산 지원과 민속놀이 복원을 시민들의 소극적인 참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보인다.

한춘섭 문화원장은 “개원 34주년이 된 우리 문화원은 그동안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도시화의 물결 속에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을 보존·전승해 성남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글 |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사진 | 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

성남문화원

T. (031)756-1082 F. 756-1056

461-814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15번길 7

Tip





▲ 2012년 9월 15일 제2회 청소년 독립운동 역사탐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걸린 대형 태극기 앞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국민영웅 각시탈 제2의 이강토를 꿈꿔요”

2012년 여름 초등학생들 사이에 각시탈 ‘붐’이 불었다. 허영만 화백의 원작 ‘각시탈’(1977년)을 드라마화한 KBS 2TV 수목드라마 ‘각시탈’의 힘이 크다. 드라마 주인공 이강토는 일제강점기 민족영웅으로 위안부로 끌려가는 처녀들을 구하기도 하고, 한일합방식을 초토화시킨다. 그리고 일본인에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이강토는 초등학생들의 영웅이 됐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초등학생들이 각시탈을 직접 만들거나, 구입해 “이 각시탈이 용서치 않을 것이야”라고 외치는 ‘영웅놀이’가 인기를 끌었다. 그 가운데 ‘제2의 이강토’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있었다. 2012년 9월 15일 시흥지역 어린이 120명이 항일 독립운동의 장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둘러보는 ‘청소년 독립운동 역사탐험’에 참가해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

시흥 지역 초등학생 120명,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방문
역사 강의 듣고 퀴즈 풀고 태극기 핸드 프린팅까지
“민족 정체성 갖게 하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



역사 조기교육, 빠를수록 · 많을수록 좋다

시흥문화원(원장 정상종)이 주최한 제3회 ‘청소년 독립운동 역사탐험’은 토요일 프로그램 홍수 속에 여타 프로그램과는 궤를 달리 한다. 우선 포커스가 ‘항일’, ‘독립’이다. 다소 어려울 수도, 딱딱할 할 수도 있는 주제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정에서 소홀했던 역사교육을 문화원에서 체계적으로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야심작이다.

2012년 7월 22일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8월 10일까지 총 4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3회 프로그램에는 시흥 관내 120명의 초등학생이 대거 참석했다.

재잘재잘 떠들던 녀석들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도착하자 일순간 조용해졌다. 독립운동가들의 수형기록표를 전시해 그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전시관 2층 민족저항실에 들어선 아이들은 애국심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보안청사과의 지하 취조실과 각종 고문현장을 둘러보고선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극악무도한 일본의 만행에 흥분해서 성토했다.

정규광(12)군은 “드라마에서 일본 순사가 조선인을 대못상자에 가둬 발로 굴러서 못에 살이 찢기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장면을 봤는데 여기 와서 진짜 대못상자를 보니 가슴이 아프고 섬뜩하다”며 “머리를 욕조 물속에 처박아 물고문을 하고 불로 살을 지지는 악랄한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결코 순

탄한 길이 아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강제징용, 고문현장, 창씨개명 등 일제시대 고통을 겪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서 역사책으로 느낄 수 없는 아픔을 함께 느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마련한 태극기 핸드 프린팅 이벤트에 참여해 애국심을 공고히 했다.

1시간 넘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둘러본 아이들은 대형 태극기 앞에 섰다. 드라마 ‘각시탈’에서 이강토를 필두로 몇 천 명의 조선인들이 각시탈을 쓴 채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아이들도 각시탈을 쓰고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민족의 영웅’ 안중근을 만나다

조국 독립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역사 현장을 둘러본 아이들은 서둘러 남산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안중근을 잘, 그리고 친숙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구한말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가 참담한 종말을 맞고 있을 때 침략의 원흉인 이토히로부미를



처단해 우리 민족의 혼과 기개가 살아있음을 세계 만방에 알린 '민족의 영웅'으로 말이다.

안중근의사기념관 중앙홀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대형 좌상을 보곤 조용히 참배했다. 이어 안중근의 생애와 활동, 사상과 정신·자취를 꼼꼼하게 둘러보며 위대한 독립투사였을 뿐 아니라 탁월한 정치 사상가이기도 했던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흑백 사진 속 안중근은 여전히 대한민국 꿈나무들의 영웅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뤼순 감옥에서 행해진 안중근 의사의 사형장면을 둘러보며 그의 최후 유언을 읊기도 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 나는 천국에 가셔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 각시탈을 쓴 시흥 지역 초등학생들



▼ 어린이가 직접 서대문형무소 독방에 들어가 감옥체험을 하고 있다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르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김정은(9)양은 “사진 속 안중근 의사가 힘들어 보여 마음이 좋지 않다”며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죽인 것 말고도 나라를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올바른 역사안목과 호연지기 키워주기 위해 노력

시흥문화원의 ‘청소년 독립운동 역사탐험’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다. 사전에 시흥 지역 역사전문가로부터 역사문화강의를 듣고 주요 역사현장을 둘러보고 퀴즈도 풀고, 역할극 활동으로 역사인물로 변신해 보는 등 그야말로 전천후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역사탐험을 지역 언니, 오빠들이 발 벗고 나서 돕고 있다.

고3이지만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형재영(19)군은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으로서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동생들과 함께 하는 이 순간이 개인적으로 무척 소중하다”며 “어린 학생들이 한중일 삼국의 동양평화를 원했던 안중근 의사의 생명평화정신을 이어받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성장한다면 지금과 같은 독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모든 일정을 같이 한 하세용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 어린이들이 직접
서대문형무소 독방에 들어가
감옥체험을 하고 있다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잔디밭에서 열린 대형 태극기 핸드 프린팅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손바닥에 빨간색 물감을 찍어 태극기를 찍고 있다

은 “중국 속담에 ‘자식에게 만권의 책을 사주는 것보다 만리의 여행을 시키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이 있다”며 “직접 보고 듣는 현장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속담으로 역사교육만큼은 조기교육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기초 역사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민족정체성을 갖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역사의 무관심과 잘못된 역사교육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에 시흥문화원은 부족한 예산으로도 자라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안목과 호연지기를 키워주기 위해 ‘청소년 독립운동 역사탐험’을 진행하고 있다. 좋은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예산 문제없이 지속돼 시흥에서 ‘제2의 이강토’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사진 | 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

시흥문화원

T. (031)317-0827 F. 317-0828

429-240 | 시흥시 연성로 13번길 3

Tip





▲ 2012년 5월 30~31일 양일간 열린 중봉문화제 현장

임진왜란을 예견한 의병장 중봉 ‘조헌’을 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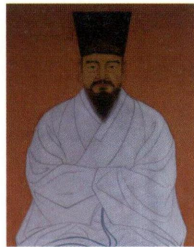
한국의 역사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국제전쟁이었던 ‘임진왜란(壬辰倭亂)’이 2012년 일어난 지 420년을 맞았다. 많은 이들이 임진왜란하면 이순신 장군을 기억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중 투철한 조국애와 뛰어난 전략으로, 나라와 민족을 왜적으로부터 방어하고 격퇴함으로써 한국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인물의 한사람으로 역사에 남겨졌다. 이에 반해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년) 선생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그는 임진왜란 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격퇴하는 등 나라사랑의 모범이 되고 겨레의 사표가 된 인물이다. 중봉은 사생취의의 정신으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투쟁하다 8월 18일 금산전투에서 700명의 의사와 함께 순절한 인물이다.

중봉 조헌이 태어난 경기도 김포에선 그의 애국애족 정신과 용감한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 김포문화원(원장 강보희)은 중봉문화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김포시민들이 지역의 사표(師表)로 중봉 선생의 삶과 사상을 고구(考究)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

김포시 감정동 출생으로 ‘김포의 얼’
 역사적 위상에 비해 연구 등 부족한 실정
 우저서원서 고유제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



◀ 중봉 조헌 선생 영정

조선왕조 최대 사건 ‘임진왜란’을 예언한 조선 중기 문신 ‘중봉’

조선 왕조 최대의 사건으로 통하는 임진왜란은 누구나 알다시피 1592년(선조 25년)부터 1598년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왜군들이 조선 땅을 짓밟은 사건이다. 7년간 지속한 전쟁은 조선, 일본, 명나라 3국의 군사 100만 명이 동원됐다.

이처럼 임진왜란은 한반도 전쟁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제적 사건이자 일본세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첫 사례로서 중국 중심의 전통적 체제를 뒤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다.

조선 16세기 후반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속화되고 일본의 조선침략이 가시화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국제정세에 어두워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봉은 일본의 침략을 예언하고 있었다. 중봉은 46세(1589년) 4월에 올린 ‘논시폐소(論時弊疏)’에서 과도한 세금과 부역과 그리고 지나친 형옥(刑獄)으로 인해 당시 민생의 곤궁함과 국가 운명이 기울어지는 위급한 상황에 대해



▲ 2012년 중봉문화제는 25여 개의 전시 및 체험 부스는 가족단위 방문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조선시대 의상 체험과 떡 메치기, 영정사진 무료 촬영, 조현 캐릭터 만들기와 조현 선생과 함께하는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수많은 백성들을 밀어 뚫린 배에 태워 출항하였다가 바다 한 가운데 풍파를 만나 행방을 잃은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만약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내란과 외침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단기·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임진왜란이라는 대참변을 겪은 후에야 사람들은 중봉 선생의 선견지명과 예지를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다.

남다른 ‘혜안’과 굳건한 ‘의기’로 겨레의 사표가 된 인물

중봉은 고려 말 홍건적을 격파하고 전사한 천주의 후손으로 1544년 경기도 김포 감정리에서 태어났다. 김항에게 수학하고 성균관에 유학했으며 24세 때 과거에 급제한 이래 정주, 파주, 홍주목의 교수와 도서관의 저작, 박사를 거쳐

예조좌랑, 통진현감, 공조좌랑, 전라도사, 종묘서령, 보은 현감 등을 역임했다. 토정 이지함, 우계 성혼, 율곡 이이에게 수학했으며 특히 율곡의 학덕을 배우고 기린다는 뜻으로 '후율(後栗)'이라 자호했다.

16세기 조선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과 실천적 학문관을 토대로 정치·교육·경제·군사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론을 제시했으며 철저한 민생 안정을 주장했다.

왜적의 침입을 예견하고 대비할 방책을 거듭 상소했으며 그의 예측대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충청도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다. 충청도 공략 본거지를 탈환하는 전과를 거뒀으나 의주로 북상하기 전 왜군에게 함락당한 금산 공격을 강행하다 순국했다. 700여명의 의병과 함께 말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다 순절한 의병장은 많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봉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봉 선생의 의병활동은 그의 사상이 학문적 체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현실 참여를 통한 실천성의 발휘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봉은 정암 조광조로부터 내려오는 조선의 도학정신이 퇴계 이황을 거쳐 율곡 이이에게 계승되었음을 강조하고 이 도학정신의 계승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도학과 절의를 겸비한 중봉의 학문 정신은 대대로 민족을 수호하는 원동력으로서 크게 구실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상사에서 조현이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봉 선생의 태가 문헌 김포에서 아직까지 중봉 선생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김포에는 조현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지방의 유학교육을 담당



하기 위해 지은 교육기관으로 우저서원(牛渚書院)이 소재하고 있다. 매년 2월 중정일(中丁日)과 조현의 기일인 음력 8월 18일에 향사(享祀)를 지낸다.

‘중봉의 숨결, 우리 곁으로’ ...2012 중봉문화제 성료



중봉 조현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2012 중봉문화제’가 2012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김포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열렸다.

기존 중봉문화예술제가 인물 소재의 축제와 예술제가 혼재돼 축제의 정체성 구현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2012년부터는 상반기는 중봉문화제, 하반기 김포예술제로 분리돼 개최했다.

‘중봉의 숨결 우리 곁으로’라는 주제로 중봉 선생의 숭고한 업적을 이어받아 희망을 가슴에 안고, 전통과 현재, 미래의 소통을 통

▲ ▼ 감정동에 위치한 우저서원에서 중봉 조현 선생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한 춘향제가 열리고 있다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우저서원(경기도유형문화재 제10호)

해 김포의 얼을 재형상하기 위해 김포문화원 주관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축제 첫날인 2012년 5월 30일 오전 우저서원의 고유제를 시작으로 오후 3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개막식, 임진왜란 420년 역사 속에 조헌선생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 중봉의 얼에 주안점을 둔 경연 형식의 5월 문화행사(사생, 백일장, 사진, 회화)가 청소년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이어 31일에는 풍물공연, 오카리나 연주, 품바공연, 한국무용 '회상' 등이 열렸고 오후 4시 폐막식으로 마무리됐다.

강보희 문화원장은 “2012년 중봉문화제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중봉 문화예술제에서 분리된 중봉 선생의 선양과 문화향유의 장”이라며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민간주도형으로 실시된 새로운 시도인 만큼, 지속 성장할 중봉문화제의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축제의 의미를 부여했다.

글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김포문화원

T. (031)982-1110 F. 983-1110
415-801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26(시민회관 3층)

Tip





▲ 가평구역사

가평의 추억 한아름 내 삶이 곧 재즈



“여기 사람 아니면 어디에 붙여야 잘 보이는지 몰라요!”

행사 홍보 걱정은 기우였다. 언제 연락이 되었는지 다양한 연령층의 20여명이 가평군 곳곳을 뛰어다니며 포스터를 붙인다.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른 이보다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것 마냥 모두 열심이다. 대학로 소극장 주변처럼 여기저기 초록색 테이프로 붙여진 포스터가 인상적이다. 순식간에 포스터를 붙인 이들은 한국 생활음악협회 가평지부 회원들이다. 가평에는 생활음악협회 뿐 아니라 문학회와 사진동호회 등 자생적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많다. 그들이 하나같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서로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가평문화원(원장 조정현)의 가장 큰 자랑이다.



“

실력과 열정으로 뭉친 생활음악협회 17개 동아리들
폐역사에서 주민들 과거 이야기 전시·공연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

내가 좋은 것만 하나, ‘마당쇠’도 해야지

가평 생활음악협회는 다른 곳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 협회 소속 17개의 음악동아리가 그것이다. 고등학생부터 70대의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다. 색소폰, 난타, 기타, 밴드 등 장르 역시 다양하다.

가평하면 떠오르는 재즈라는 음악적 이미지에 걸맞게 이들 역시 단순히 취미 생활 수준의 ‘동아리’로 접근하면 큰 코 다칠 만큼의 실력과 열정으로 푹푹 뭉쳐 있다.

특히 연세 지극하신 어르신이 많은 색소폰 동호회는 그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폐활량을 자랑한다.

각 동아리 단원들은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홍보에서 뒷정리까지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이처럼 일을 가리지 않고 즐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모든 회원의 공통분모다.

세대별 장르별 다양한 음악 동아리가 오미조밀 모여 있어 서로의 공연에 협주가 가능하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직장인과 학생임에도 매주 연습이 가능한 지 묻자 “아이고,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여기서 다 풀어요. 나는 이거 안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요”라는 답이 돌아온다.

정택원 생활음악협회 가평지부 사무국장은 “생업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며



▲ 한국생활음악협회 가평지부의 공연 모습

각 동아리 모임이 가진 큰 힘을 강조한다.

가평문화원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동아리가 있다. 가평지역을 글로 노래하는 ‘글두레 문학회’다. 가평 지역을 ‘시’라는 문학적 언어로 다듬어 온지 18년째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노래로, 사진을 찍는 사람은 작품으로 가평을 담아 놓듯이 우리는 글로 가평을 기억하죠. 가평에서의 추억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나요? 모두들 실력도 있으시지만, 작품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김주린 글두레 문학회 회장의 말이다.

그들의 작품에는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것은 탄탄한 글솜씨뿐 아니라 가평과 함께한 그들의 삶과 애정이 고스란히 서려있다.

회원 중 소영숙 시인의 작품 ‘하얀 고무신’은 노래로 만들어져 재즈보컬리스트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소 시인은 음악 가득 편 얼굴로 누구보다 열심히 박수치며 공연장을 지켰다고.

문학회 회원 역시 하나같이 자신의 글이 노래가 된 것처럼 반색하며 “내년에도 또 만들어 주나요? 내년엔 내 시가 뽑힐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시를 노래로 만드는 작업은 문인에게 색다른 경험이자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열정적인 각 동아리의 활동과 장르가 다른 단체간 유기적 협업은 가평 문화원이 자랑하는 보석이다.



2012년 10월 27일 ‘그까이꺼 재즈!’

“재즈의 탄생배경은 삶의 예술적 투영입니다”

가평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로 유명하다. 하지만 정작 주민에게 재즈는 어렵고 복잡한 음악 장르일 뿐, 내 삶의 이야기가 곧 재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지난 2012년 10월 27일 가평 구역사에서 열린 ‘그까이꺼 재즈!’ 행사는 음악이라는 공통된 단어로 묶인 이들에게 재즈 역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역임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당초 가평 구 역사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운 좋게(?) 비가 내리는 바람에 2010년 이후 열린 적 없던 가평 폐역사에서 열렸다.

프로그램은 가평 주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을 과거의 기억과 그것에 연관된 내 생애 단 한 곡을 접수받아 라디오 공개방송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이스크림통이 사회자석, 표 파는 곳은 음향 부스, 대기실은 전시장으로 폐역사 내부의 모든 물건이 고스란히 공연장이자 전시장이 됐다. 카페분위기로 꾸며진 역사 안에는 가평역의 지나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진과 동영상이 펼쳐졌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에서부터 경춘선의 마지막 운행모습까지, 마을 주민 뿐 아니라 먼 길을 찾아 달려온 사람들에게도 하나쯤 가지고 있던 경춘선과의 인연을 끄집어내게 했다.



▼ 한국생활음악협회 가평지부의 공연 모습



폐역사 내부에 들어간 주민들은 과거 이야기로 들렸고, 사연 소개와 음악 연주에 주민들은 '진짜 라디오에서 사연이 소개되는 것 같은 기분'이라며 바그레해진 얼굴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사춘기 소녀가 됐다.

이날 방문한 코레일의 부역장 역시 "신 역사에서도 이런 공연 했으면 좋겠다. 비가오니 더 운치 있고, 이 분위기, 마치 재즈카페 같은데요"라며 그간의 우려를 씻어내며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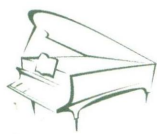
공연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만들고 즐기며 함께 박수쳐주는 모습이 보는 이들에게까지 생생한 에너지를 이끌어냈다.

이날 행사는 가평문화원을 창구로 생활음악협회와 글두레 문학회, 코레일과 그림마을, 가평군청, 문화집합 36.5가 소통하고 네트워킹한 산물이다.

"저희는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저희가 전문가의 손길로 혜택을 주려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이분들이 모든 걸 만들어 가셨고, 저희는 서포트한 모양이 되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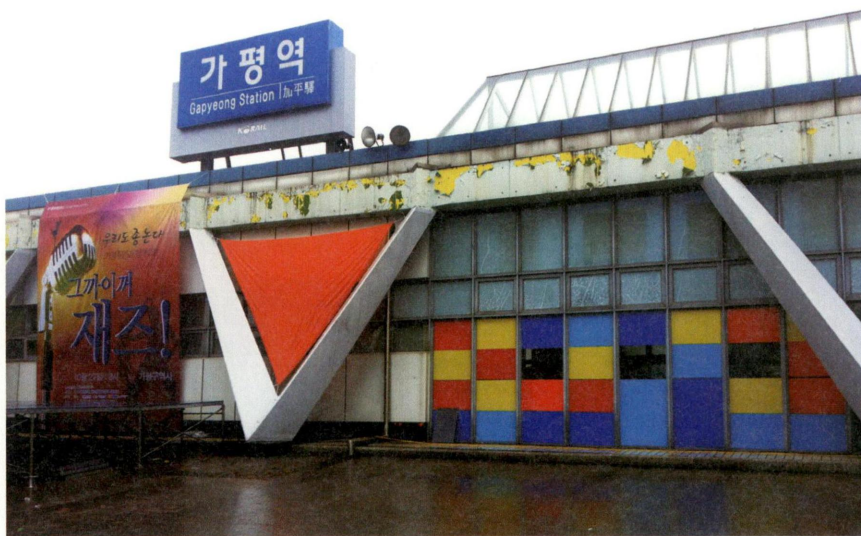
문화집합 36.5의 기획자들은 문화원과 주민들의 소통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말한다.

조정현 문화원장은 "시작은 문화원이었지만 이제는 주민과 각 동아리가 함께 어울려 스스로 너무 잘 해냈다"며 "가평 폐역사를 박물관으로 만들고 레일바이크도 설치한다는 등 많은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많은 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비오는 날에도 많은 관객이 '그까이꺼 재즈'와 함께 했다





▲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 곳에 준비된 무대에서 공연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또 “아직은 동아리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관이나 객석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걱정 없이 정말 즐겁게 공연하고 작업할 수 있는 상설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한 대안적 문화공간 창출, 그리고 지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즐거운 삶을 이뤄가는 과정까지 제도권에서 해야 할 일이 문화원에서 해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냥 우리가 하는 일들이 즐겁다’며 조출하게 선물한 지역 상품권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주변 식당으로 가는 주민들을 보면서 끈끈한 지역 사랑이 다시 한 번 느껴졌다.

글 | 유쾌한 책상머리

가평문화원

T. (031)582-2016 F. 582-8667

477-804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

Tip





▲ 2012년 9월 14일 저녁, 고양문화원에서 열린 상설공연에서 LED타악연주단 '카타'의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정겨운 우리 소리에 취하고...
흥겨운 우리
춤사위에 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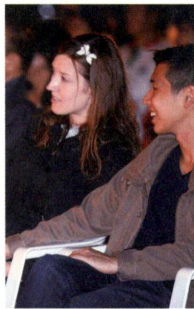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던가.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살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라고 칭하는 고양시. 최근 이곳에서 판소리, 풍물판 굿, 경기민요는 물론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전통공연이 시민들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들려오는 민요를 따라, 팽과리 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마당 가득 사람들이 앉아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바로 고양문화원(원장 방규동)이다.

“

판소리서 퓨전 국악까지...신명난 무대
 전통문화 체험의 장 시민들 자긍심 커
 ‘고양’ 명칭 600년 국제적 예술도시 우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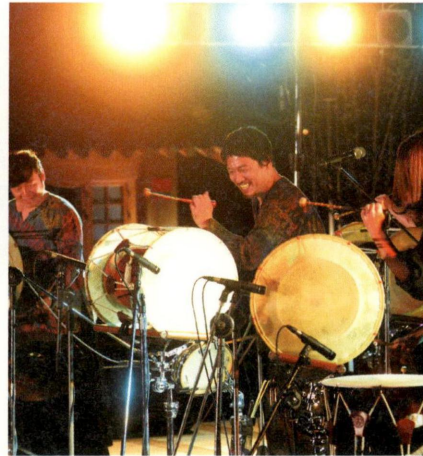
◀ 우리의 전통공연을 즐겁게
 관람하고 있는 외국인들

도내 유일 한옥 문화원, 전통문화의 꽃 피우다

도시의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 자연과 인간을 품은 한옥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옥의 선과 빛에 반해 다가가니 정겨운 우리 소리가 들려온다. 여긴 어딜까? 가만히 살펴보니 ‘고양문화원’이라는 문패가 보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화원이라면 3~4층쯤 되는 건물에서 문화강좌를 하는 곳인데, 한옥 건물에 넓은 마당까지 있다. 쪽 둘러보니 문화원 옆에는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자리 잡고 있어 바라보는 풍경도 아주 그만이다. 고양문화원은 서예가 이경무 용이 전통문화를 위해 써달라며 50억원을 기부하고, 고양시가 20억을 지원하면서 2011년 건립됐다. 문화원이 독립된 공간을 갖는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한옥으로 지어진 것.

전통문화 전수실은 물론, 공연장까지 갖춘 고양문화원은 인근 호수공원, 킨텍스, 한류월드 등과 연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한옥 문화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012년 9월 14일 저녁 고양문화원에서 열린 전통문화 상설공연에서 LED타악연주단 '카타'의 타악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야외 놀이마당은 물론 폐백실까지 마련돼 문화체험과 전통 혼례식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까지 할 수 있어 고양시가 전통문화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류연일 사무국장은 “도내에서는 한옥으로 지어진 문화원으로 유일하다”며 “최근에는 타 지역 문화재단에서 한옥 건물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견학 오겠다는 연락까지 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옥이 공간 효율성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고 감동한다”면서 “시민들도 고양시에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다는 데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며 뿌듯해했다.

5살 아이부터 60대 노인까지 어깨를 들썩이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2012년 여름, 7월부터 9월까지 고양문화원의 금요일 밤은 시원했다. 황진이 퓨전국악 밴드, 고양 12채 연희단, LED타악연주단 '카타' 등이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것.

마지막 공연이 있던 2012년 9월 14일 저녁 7시, 디지털 악기와 어쿠스틱 악기로 가슴이 확 트이는 타악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었다. 귀만 즐거운 공연이 아니라 눈까지 즐거웠다. 그들이 사용하는 악기가 바로 LED 바디드럼과 LED 북 등이었기 때문. 어린이 관람객들은 빛을 따라 눈동자를 돌리며 평소와는 다른 연주에 즐거워했다.

이어서 무대에 오른 김진희 무용단. 등장부터 화려했던 무용단은 꽃춤, 교방춤, 남무, 소고춤을 재구성한 가인지무(佳人之舞)로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국 고유의 서정과 신명이 그들의 손끝에서 춤사위로 아름답게 펼쳐졌다.

홍순호(62·여)씨는 “친구들과 호수공원에 산책하러 나왔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 왔다”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전통춤을 보여주니 정말 아름답다. TV에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봐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고양 12채 연희단이다. 입담 좋은 봉사가 나와 마치 눈이 보이는 것처럼 이웃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고양시를 소개하더니 어린이 관람객들을 무대에 올려 공연을 이끌어간다. 어린이는 무대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느라, 어른들은 재치 있는 말솜씨를 들으며 깔깔깔 웃느라 정신없다.

곧이어 풍물판 굿이 벌어지고 사물놀이패가 관람객들의 흥을 돋우기 시작했다. 장단에 맞춰 박수를 치던 관람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소고를 치던 단원이 비보이 공연자만큼이나 현란한 발 솜씨를 선보이며 상모를 돌렸던 것.

그뿐만이 아니다. 이에 질세라 장구를 치던 단원이 앞자리를 차지하더니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구를 치며 팬들의 박수를 유도하고 나섰다.

관람객들의 열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사자 한 마리가 나와 엉덩이를 찔룩거리며 춤을 춰 어린이 관람객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공연 내내 손뼉을 열심히 치던 이지훈(7)군은 “사자가 갑자기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엄청나게 웃겼다”며 “뛰어다니며 줄을 돌리는 아저씨(상모)들은 자빠질 것 같아서 무서웠는

▼ 고양문화원에서 열린 전통문화 상설공연 현장



데 재밌었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5살짜리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유영록(45·여)씨는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과 이곳을 찾았다. 아이들하고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아이들도 보여주고 저도 오랜만에 가야금 소리를 들어서 좋았다”며 “아이들이 팽과리를 좋아했는데 마지막 공연이라 아쉽다”고 전했다.



고양 600년, 문화원도 춤추게 한다

2013년 고양시가 ‘고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꼭 600년이 되는 해다. 고양은 선사시대 때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다, 600년 전 지방행정체계개편에 따라 고양이라는 명칭으로 정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고양 600년은 오래전부터 수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의 고양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이미지를 넘어 ‘국제적 문화 예술도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고양문화원은 3년간 이어왔던 전통문화 상설공연과 더불어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에 관련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 김진희 무용단이 '가인지무'를 선보이고 있다



▲ 전통문화 상설공연에서 많은 주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또 고양 600주년에 맞춰 시민들이 전통혼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전통혼례사업도 준비 중이다. 고양문화원의 전통혼례식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이 하는 다른 기관과의 전통혼례와 사뭇 다르다. 이미 결혼한 부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초혼을 화려한 전통혼례로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

방규동 문화원장은 “고양 명칭을 사용한 지 600년이 되는 2013년은 고양문화원에서 더 많은 전통문화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계속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 모두가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고양문화원을 사랑해 고양시 전통문화가 계속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한다”며 “내년에도 고양문화원을 더욱 사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 |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사진 | 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

고양문화원

T. (031)963-0600 F. 969-2776
411-802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0

Tip





▲ 2008년 창단된 광명향토실버인형극단 '영걸스'

인형극에 푹 빠진

백발성성한 '영원한 소녀들'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말이 있다. '광명향토실버인형극단' (단장 오승민) 할머니들이 바로 그렇다. 나이 70이 넘으면 삶을 마무리할 때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 극단 할머니들은 인형극단 단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백발성성한 할머니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데에는 광명문화원(원장 이영희)의 어르신문화학교가 있었다. 이원희 원장은 "할머니들이 극단 활동을 하면서 자존감이 생기고 삶의 보람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실버극단을 문화와 복지를 결합한 사회적 성공 모델로 키워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

향토인물 소개 위해...2008년 창단해
백발성성하지만 열정만큼은 프로
전문 극단 버금가는 실력 갖춰 초청공연 쏟아져

”

한 장면을 위해 수 백 번 연습하는 열혈 할머니들

2012년 8월 7일 오후 1시. 광명문화원 공연장에 할머니들이 하나 둘씩 모여 들기 시작했다. 본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씩 연습을 해오고 있지만 이날은 다음날 있을 춘천인형극제 참가에 대비해 2시간이나 일찍 모였다.

극단 이름은 ‘영걸스’. ‘영원한 소녀들’이란 뜻이라고 했다. 그래서 인지, 공연장에 들어서는 할머니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해맑다.

금이야 옥이야 조심스레 다루는 인형들은 인형극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 스펀지로 만든 인형 팔에 철사를 연결해 움직이는 손 인형이다. 이런 형태의 인형은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조정한다. 자연스런 극을 위해서는 단원들의 호흡

이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다. 남의 대사까지 줄줄 외울 정도가 돼야 한다니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야 할지 예상이 됐다.

70대 전후의 할머니들에게 인형 조작은 꽤 까다롭고 힘든 일이었다.

창단 이후 할머니들을 지도해온 장영주 강사는 “한 장면을 수 백 번 이상씩 연습했다”며 “열정만큼은 그 어느 인형극단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흘린 땀이 일궈낸 열매는 풍성했다. 2011년 춘천인형극제 아마추어 경연대회에 참가해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큰 박수를 받았고, ‘할머니 인형극단’의 솜씨를 본 이들을 중심으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화성인형극제 등 공연 초청이 쏟아졌다.

인형극 공연은 할머니들의 삶에도 큰 활력을 줬다.

김신자 할머니(68·광명시 일직동)는 “손주들이 ‘할머니 최고!’라고 한다. 아이들이 우리 공연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지 모른다”고 말했다.

우리 고장 오리 이원익·민회빈 강씨, 인형극으로 배워요

‘광명향토실버인형극단’은 4년 전 광명문화원이 창단한 실버극단이다. 본래 목적은 문화원이 마련한 관내 답사 프로그램인 ‘광명은 내 고향’과 연계해 아이들에게 향토 인물을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효성 문화원 사무국장은 “2008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보다 쉽게 향토 인물을 소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형극을 생각하게 됐다”며 “인형극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커튼 콜 때 모습을 드러내면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아이들, 어르신 모두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원이 모두 할머니라고 알보면 큰 오산이다. 2008년 처음 모인 7명의 1기 단원들은 10여년 정도 함께 호흡을 맞춘 숨은 베테랑들이다. 이들이 인형을 다루는 솜씨는 웬만한 전문 인형극단에 버금갈 정도다.

“인형 자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인형이 말을 하고, 아무 감각이 없는 팔다리에 감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인형에 생명을 불어 넣는 거예요.”

오승민 영결스 단장(70)은 “인형과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 마냥 즐겁다”고 했다.





극의 내용은 관내 답사와 연계된 만큼 광명 대표 향토인물의 삶과 철학을 다룬다. 지난 4년 동안은 조선시대 여성무역상으로 활약한 소현세자빈 민회빈 강씨의 극적인 삶을 그린 ‘여장부 강빈’을 무대에 올렸다. 2012년부터는 선조, 광해군, 인조 등 조선시대 3대 임금에 걸쳐 40여 년 동안 정승을 역임하고, 청백리의 대표인물이 된 오리(梧里) 이원익을 소재로 한 인형극을 선보이고 있다.

오승민 단장은 “광명시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와서 본다”며 “오리 이원익 선생의 충효사상과 청렴한 삶이라든지, 민회빈 강씨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해준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하는 자긍심을 갖고 공연을 한다”고 말했다.

“경로 우대석에 앉아 공연관람이나 해야 할 나이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훌륭한 위인들의 업적을 알려 아이들이 건전한 인성을 갖도록 하는데 작게나마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절로 납니다.”

만언니 박용자 할머니(73·구로구 구로1동)가 인형극의 기쁨을 이야기하자 단원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문화 - 복지 - 봉사 결합 사회적 꿈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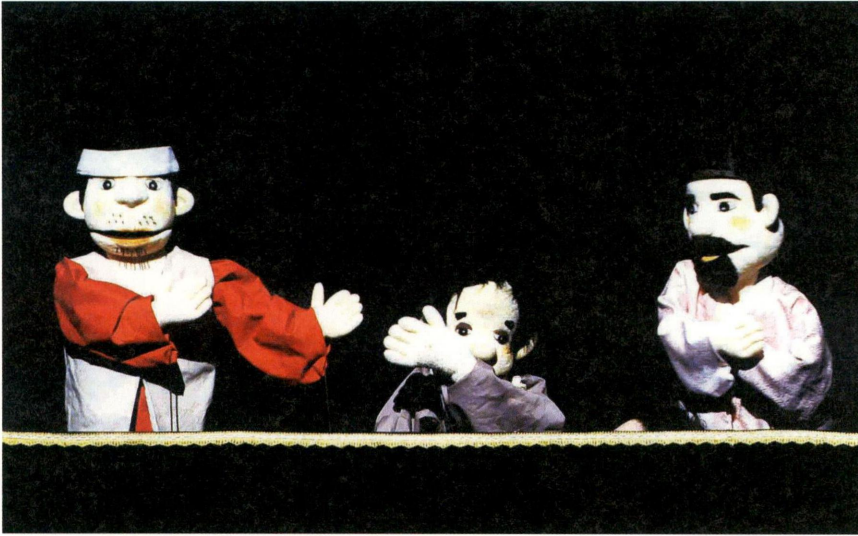
영결스는 2012년 6월 2기 단원 10명을 뽑았다.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인형극을 한 번 보고 간 학교들에서 다시 한 번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도 인원 충원의 한 이유가 됐다.

이효성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문화원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복지단체 등 대외적인 봉사활동도 늘려 나갈 계획”이라며 “문화와 복지, 봉사를 결합한 사회적 꿈을 실현하기 위해 광명향토실버인형극단을 문화 전문 노인 자원봉사단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대만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영결스 할머니들.

▼ 인형팔에 철사를 연결해 움직이는 손인형으로 연습중인 어르신





▲ 단원들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형극

“저희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두 편(민회빈 강씨, 오리 이원익) 말고 좀 더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발굴해 작품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인형극을 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 있음을 느낀다는 영걸스 할머니들의 꿈이다. 열정으로 무대를 접수한 영걸스 광명향토실버인형극단, 이들의 몸짓이 지역사회에 작지만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

글 |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사진 | 전형민기자 hmjeon@kyeonggi.com

광명문화원

T. (02)2618-5800 F. 898-0900
423-855 | 경기도 광명시 철망산로 42

Tip





▲ 제3회 어린이 향토사 경시대회에 참여한 동두천 지역 내 4~6학년 초등학생들이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

향토사 익혀 '장원급제' ... 인성교육 · 애향심 · 효교육 3마리 토끼 잡는다

조선 중종(16세기) 이후 맑고 소박한 연못이 있다 해서 '이담골(伊淡골)'이라고 불리던 마을이 있었다. 지금은 이담골이라는 지명을 기억하는 이는 없지만 왜 이담골이라 불렀는지 증명이라 하듯 이 마을엔 생연동(生淵洞), 못골, 방축골 등 연못이나 저수지와 연관지어진 지명을 가진 곳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담골은 과연 어떤 곳일까? 동쪽에 머리를 두고 흐르는 천이 있다는 지금의 '동두천(東豆川)시'가 바로 그곳이다. 동두천을 살살이 아는 사람이 드물기에 이담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동두천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어린이들이 모였다. 2012년 11월 21일 동두천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동두천문화원(원장 안민규)이 개최한 '제3회 어린이 향토사 장원경시대회'에 참여한 어린이 180여명이 그 주인공. 학교 시험만큼이나 학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장원경시 현장으로 가보자.



“ 동두천 9개 초교 4~6학년 학생들, 구석기서~조선까지
향토사 배우고 내 고장 자긍심 · 정체성 절로 생겨 ”

동두천, 내가 제일 잘 알아~

‘딩딩 쿵덕쿵 쿵따쿵따 쿵타쿵~’ 신명나는 사물놀이가 제3회 어린이 향토사 장원경시대회의 막을 올렸다.

동두천 지역의 9개 학교에서 모인 4~6학년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갖 추고 앉아 풍물패의 공연을 지켜봤다. 이런 와중에도 지난 7월 동두천문화원 에서 받은 ‘이담골 역사기행’ 책을 뚫어져라 보는 아이들도 있었다. 노란 형 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장원’의 자리를 노 렸던 것.

풍물패 공연에 박수갈채가 이어지고서 드디어 시험이 시작됐다. 동두천문화원 에서 이사,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는 이들이 이날만큼은 감투를 버리고 할아버 지, 할머니 시험 도우미로 나서 손자, 손녀들에게 시험지, 답안지, 볼펜을 나 뉘줬다.

시험지를 받는 그 순간까지 아이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시험지를 받 아 든 아이 옆에 자리를 잡고 문제를 보니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6문항으로 구성돼 있었다. 동두천에 미군이 있다는 것만 아는 기자의 눈엔 시험지의 까 만색은 글씨요, 하얀색은 바탕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린이 향토사들은 구석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동두천 에 대한 역사, 임금님이 떠 마셨다는 ‘어수정’,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송서울 창’ 등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낸다.

문제는 주관식이었다. ‘소요산 자재암에서 보관하고 있는 1994년 10월 17일



▲ 제3회 어린이 향토사 경시대회에 참여한 동두천 지역 내 4~6학년 초등학생들이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

▼ 2012년 제3회 어린이향토사경시대회 전경



보물 제1211호로 지정된 이 판본은 ~(이하 생략), 이것은?', '닥채 나무를 많이 재배해 종이를 생산하는 부락이라 해 종이골이라 불리다가 (?)로 부르게 되었다' 등.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한참을 고민한 끝에 답을 써내려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 결국 칸을 채우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다.

40분간의 장원경시가 끝이 난 뒤 아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동두천 어린이 향토사로서 한 발자국 내디딘 대견한 모습들은 모두 같았다.

최영은(11·생원초4)양은 “공부를 하면서 어유소장군 등 우리 고장의 역사를 알 수 있어 좋았다”며 “시험이 조금 어려웠지만 장원이 꼭 돼서 상장을 받고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용철 사무국장은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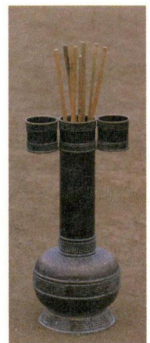
장원경시에 투호놀이까지… 재미가 두 배

전통 투호놀이 대회가 시험을 마친 어린이 향토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투호놀이라는 색다른 체험을 통해 전통놀이문화를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

학교별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단체전이 진행되는 동안 병 속에 화살이 들어갈 때마다 응원석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물론 화살이 바닥에 떨어질 땐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와 응원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개인전은 단체전에 비해 더욱더 치열했다. 향토사 장원경시처럼 투호대회에도 상장과 부상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투호가 일반 백성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놀이었다는 것을 교재를 통해 배운 어린이 향토사들은 책 속의 내용에 실제 체험을 곁들여 자신들만의 실력을 뽐냈다.

한바탕 투호놀이를 한 아이들이 떠난 뒤 동두천문화원 관계자들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장원경시 채점이 시작된 것. 180여 장의 답안지를 채점한 뒤에 순위가 가려졌다. 81점을 얻은 이담초등학교 6학년 이가연(13)양이 장원을 차지하며 시장상을 거머쥐게 됐다. 강민호(13·송내초6)군, 심규혁(13·이담초6)군이 각각 78점, 71점으로 뒤를 이어 시의장상을, 3위와 장려상을 받은 9명의 어린이 향토사는 동두천문화원장상을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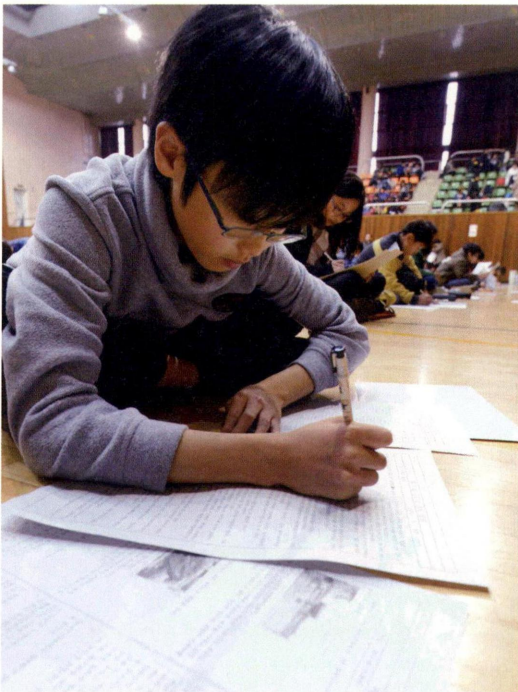
어린이 향토사 양성, 지원이 절실하다

제3회 어린이 향토사 장원경시대회는 시험도 보고 놀이도 즐기는 일석이조의 대회였지만, 몇몇 아이들에게서는 볼멘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담골 역사기행’ 교재에서 모두 출제됐다는 시험문제 중에서 모르는 것들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제1회, 제2회 향토사 장원경시 때는 시험 6개월 전부터 이창선 신흥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지역 내 초등학교를 순회 방문하며 향토사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동두천의 역사부터 역사적 인물,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3회째를 맞는 2012년에는 어린이 향토사 장원경시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어 교재를 나눠주는 게 전부였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해 아이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동두천문화원이 지난 2010년부터 어린이들의 인성교육, 지역 애향심, 효(孝)교육 등을 위해 야심 차게 마련한 행사가 기관, 지자체의 부족한 지원 탓에



▲ 제3회 어린이 향토사 장원경시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 안민규 문화원장과 어린이 향토사 경시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동두천초등학교 성은지양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현 초등학교 교과과정으로 편성된 내 고장 알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동두천에 관한 역사, 문화, 주요사적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어린이 향토사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된다.

안민규 문화원장은 “문화도 복지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동두천문화원의 어린이 향토사 장원경시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 |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사진 | 전형민기자 hmjeon@kyeonggi.com

동두천문화원 T. (031)865-2923 F. 863-1020
483-120 |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4

Tip





▲ 규방문화연구소 전문가과정 수강생들과 변인자 소장(사진 오른쪽)이 조각보를 선보이고 있다

예술이 된 바느질,



전통과 현대를 수놓다

여기, 느리고 더딘 손바느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규방문화연구소'라는 작은 사랑방에 모여 오래된 옛 이야기를 꺼내듯 전통과 우리 문화를 손으로 그려내는 이들은 참 느리다.

규방공예는 조선시대, 엄격한 유교사회에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었던 양반집 규수들의 생활공간이었던 규방에서 생성된 공예장르다. 규방에 모인 여인들이 바느질로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들던 것에서 비롯됐다. 이제 규방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 여인의 창조적 에너지가 가득한 규방공예가 최근에는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용인문화원(원장 김장호)은 다른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규방문화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고자 부설 규방문화연구소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규방문화연구소(소장 변인자)에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예술혼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규방공예를 배우기 위해 여수, 광주, 대전, 서울, 남양주시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다.

“

생활용품에서 인테리어 소품까지 조선시대 여인들의
예술혼 고스란히 다양한 연령대 수강생들 전국서 모여

”



◀ 변인자 규방문화연구소 소장

규방공예, 생활 속으로 들어오다

2012년 9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용인시청 문화예술원 3층에 자리 잡은 규방문화연구소 강의실엔 수상한(?)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넘쳐흘렀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인들은 하나 같이 ‘바늘’과 ‘실’을 들고 앉아 수다잔치를 이어갔다. 여인들의 수다엔 불편한 시대이야기,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 말썽쟁이 아이, 친구 험담은 없었다. 오로지 보자기, 바늘방석, 복주머니, 저고리, 노리개, 매듭 등 작품이야기 뿐이었다. 수강생들은 ‘사선단보 만들기’가 한창이었다.

1년 과정의 규방공예 전문가 과정을 이수중인 수강생 25명은 각기 다른 사연과 인연으로 용인에 모였다.

소선희(40·화성 동탄)씨는 규방공예를 배울만한 곳을 찾다 찾다 어렵게 규방문화연구소에 들어왔다. 소씨는 “대기자로 있다가 입학하게 된 케이스인데 스트레스 받을 때 바느질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곱고 아름다운 손끝에서 바늘과 실이 만나 완성된 작품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규방공예에 빠진 겁 없는 20대도 있었다. 한지혜 (25·용인 신갈)씨는 “그냥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평생 규방공예를 하면서 살고 싶어 바느질을 시작했다”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규방공예를 한다고 하니깐 ‘어떻게 먹고 살거냐’고 걱정도 하셨지만 충분히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공예분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통문화를 잇는데 일조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김성미(41·서울 상암)씨는 새벽밥을 먹고 바느질을 하러 온 ‘열혈 바느질쟁이’다. 일본인 남편과 결혼한 김씨는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식, 전통차 등을 여러 가지를 배워봤지만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규방공예야말로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인들과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문화콘텐츠”라며 “특히 일본인과 프랑스인들이 바느질의 섬세함과 화려한 한국 전통색이 잘 어우러진 규방공예 작품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수강생들은 “규방공예를 돈 많은 부잣집 사모님들이 하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공예라고 생각해 입문을 꺼리는 이들이 많아 아쉽다”며 그 동안 만든 작품 한 무더기를 꺼내 놓았다. 색실로 수놓인 손수건부터 시원한 모시발이나 조각보 등 은은하고 단아함이 깃든 작품들이다.

▼ 변인자 소장이 수강생들에게 천의 종류와 바느질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특히 자투리 천을 이어 만든 ‘조각보’는 규방공예의 꽃이라 할 정도로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멋스러웠다. 수강생들이 저마다 한두 장씩 들고 나온 조각보를 펼쳐드는데 아름다운 색상과 디자인은 물론 남은 천을 활용한 선조들의 지혜까지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규방공예, 손끝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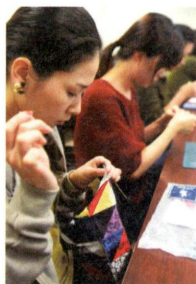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2012년까지 규방문화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일반과정 및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수강생들은 총 60여명. ‘규방공예의 대모’로 통하는 변인자 소장이 규방문화연구소의 안방마님이다.

어렸을 때 바느질 솜씨가 남달랐던 변 소장은 용인으로 시집와 30년 넘게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다. 우연한 기회에 규방공예를 접하고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시작한 지 10여년. “바느질이 좋아 취미로 시작했는데 취미가 직업이 됐고 어느새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녀는 “건강과 인생을 되찾게 되어 행복할 따름”이라면서 “한때 갑상선암으로 고생했을 때도 바느질이 큰 힘이 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변 소장은 2010년 열린 'G20 정상회의' 때 한국 대표로 조각보와 규방공예품을 전시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실력파다. 그녀의 수업을 받고 싶어 만삭의 몸으로 대전에서 용인까지 오가며 매주 강행군을 한 수강생도 있었다고 할 만큼 전국 각지에서 수강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규방문화연구소는 2011년 1월 1년여 동안의 교육활동을 통해 쌓은 수강생들의 기량을 선보인 첫 번째 졸업작품전 '느린 손바느질 이야기'展을 개최하기도 했다. 수강생들이 정겨운 규방공예 소품부터 규방의 꽃인 조각보까지, 스물 일곱여 가지를 만들면서 완성한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손끝에서 영근 결실을 맛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우리 시대에 되살려야 할 규방문화, 용인에서 꽃피우다

전국적으로 규방공예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은 많지만 정작 제대로 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흔치 않다. 전문가 과정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나마 용인문화원 부설 규방문화연구소는 일반과정(1년)-전문과정(1년)-예비연구반(1년)-연구회(1년)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규방문화연구소도 용인문화원 부설이긴 하지만 용인시의 예산 지원 없이 오로지 수강료로만 운영되고 있어 살림살이는 빠듯한 형편이다. 그래도 변인자 소장은 우리 전통공예의 멋과 맥을 이어간다는 뜻으로 웃으며 강의한다.



▶ 사선단보 만들기가 한창인
규방문화연구소
전문가과정 수강생들



▲ 자투리 천을 이어 만드는 조각보는 규방공예의 꽃이라 할 정도로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멋스럽다

김장호 문화원장은 “규방문화연구소는 도외시되었던 한국의 규방문화의 연구 및 자료수집, 기술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부설기관으로 사랑과 정성을 담은 기도의 산물인 우리의 규방공예품이 21세기 또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용인이 규방공예의 본고장이 될 수 있도록 규방문화의 전승·공유·교육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에선 오늘날도 옛 여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규방공예를 재연하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며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바느질이 계속되고 있다.

글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사진 | 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

용인문화원

T. (031)324-9600 F. 324-9634

449-70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Tip





▲ 2012년 10월 31일 3개월간의 이론 강의와 현장 실습을 마친 실버벽화예술단 소속 어르신들이 종강식을 기념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황혼의 예술 열정... 제2의 인생 꽃피우다



“아름답게 늙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정이나 사회 한쪽에 물러나 있던 ‘노년’들이 젊은이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으로 ‘화려한 실버’를 보내고 있다.

조선시대 전국 제일의 남사당으로 이름을 떨쳤던 안성 남사당의 고장, 안성에 나이의 부담을 털고 반란을 꾸꾸는 이들이 있다. 바로 안성문화원(원장 양장평) 실버벽화예술단. 20여명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벽화예술단은 주름진 손으로 안성시내 노후된 건물이나 공사장 차단벽 등의 공간에 벽화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다. 2012년 10월 31일 오후 2시, 안성시 공도읍 문기초등학교 교에서 있었던 ‘2012년 실버벽화예술단’의 종강식 현장을 다녀왔다.

“

학교·노후 건물 등 벽화그리기 구슬땀
 젊은이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 새로운 재미 선사
 취미·봉사활동 두 토끼 잡는 실버문화 롤모델

”



취미생활·봉사활동·친구사귀기 '1석3조'

문기초등학교 창고 담벼락에 60~70대 어르신들이 매미처럼 달라붙어 붓질이 한창이다. 바쁜 손놀림만큼이나 어르신들의 입도 바쁘다.

“아이고~ 허리야!”, “추운 날씨에 손가락이 얼어 붓질이 잘 안 되네.,” “강사님, 하트 모양은 좋은데 색깔이 너무 강해요. 색을 좀 죽여주세요.,” “어이~ 김씨, 사다리 좀 잘 잡아줘.”

오늘은 '2012년 실버벽화예술단'의 마지막 수업이면서, 어르신들이 3개월 동안 배운 그림실력으로 합동작품을 마무리 짓는 아주 특별한 날이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회에 걸쳐 총 18회 차 수업을 마친 20여명의 어르신들은 문기초등학교측의 벽화그리기를 부탁받았다. 지도강사 강종찬 작가와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창고인 만큼 고심 끝에 “그림에다 꿈과 희망, 행복을 그려 넣자”고 마음을 모았다.

바탕색을 칠하는 사전작업부터 도안 스케치, 페인트 조색, 리터치 등의 작업까지 모두 어르신들이 직접 도맡아 진행했다. 꼬박 3일 동안 벽화를 완성했다. 어르신들은 각종 새와 나무, 어린이를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재미있는 그림들로 창고 양쪽 벽면을 새롭게 변신시켰다.

바쁜 농번기라 종강식에는 어르신들이 다 참석하지 못했다. 강종찬 작가는 “벽화 그림 작업하시다 집에 깨 털러 가신 어르신도 있어요.(하하)”라고 귀띔해줬다.

완성된 벽화를 본 초등학교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와! 멋있어요”를 연발했다.



▲ 지도강사 강종찬 작가와 보조강사의 도움을 받아 벽화 그리기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어르신들

하곳길에 만난 유정(9)·유소연(11) 자매도 “요 며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창고 주변을 왔다 갔다 하셔서 청소부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칠했던 창고에 예쁜 새들이 훨훨 날아다니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로 미술사 같아요”라며 한동안 벽화를 구경하느라 자리를 뜨지 못했다.



실버시대 老年의 유쾌한 반란

안성문화원에서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 김창호(67·석정동)씨는 실버벽화예술단 활동을 하면서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김씨는 “좀 고상한 취미를 가져볼까 고민하던 중 실버벽화예술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접수했는데 학창시절, 미술시간 이후 그림을 처음 그려봤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작업을 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멋진 벽화를 그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욕심이 났다”며 “소리치며 좋아하던 어린이들의 응원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작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들과 목재사업을 하는 이인숙(68·봉담동·여)씨도 “3개월 과정의 실버벽화예술단 활동이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다”며 “환갑을 훌쩍 넘어 내 생애 첫 번째 수채화를 그려봤고 이를 통해 벽화 그리기를 하면서 나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게 됐다”고 종강 소감을 밝혔다.

집안일 하라, 농사일 하라, 소 키우라 바쁜 여건 속에서도 실버벽화예술단 활동에만 매달리는 게 힘들었을 법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오히려 배운 게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노년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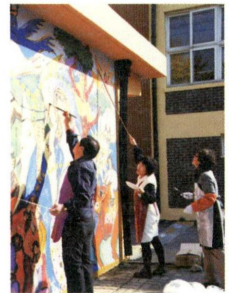
허름한 시골 학교에 뉴욕 골목 못지않은 거리 갤러리를 선물한 어르신들은 어느새 ‘실버 행복전도사’라는 훈장도 얻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실버벽화예술단 활동을 통해 얻은 배움과 노하우를 안성 지역에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포부다.

안성실버문화의 롤모델이 되기 위한 조건

이 같은 어르신들의 포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안성문화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성문화원이 2011년 이어 2년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벽화예술단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실시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개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림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성지역에서 활동하고



◀ 지도강사 강종찬 작가와 보조강사의 도움을 받아 벽화 그리기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어르신들

있는 전업 작가를 강사로 초빙해 환경미술에 대한 기초강의, 벽화디자인 강의 등 이론수업과 함께 야외 스케치 및 미술관 견학 등 현장수업을 곁들여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했다.

그러나 1천만 원의 예산으로 강사 인건비와 도구 및 재료를 해결하는 것도 벅찬 것이 현실.

양장평 문화원장은 “은퇴 이후 안락한 삶을 위한 재테크를 뜻하는 ‘로테크’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노년의 삶을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재미있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실버벽화예술단의 경우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실버문화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며 “농촌 안성은 도시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및 교양 프로그램이 다양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실버벽화예술단이 운영됨으로써 안성 지역에 새로운 실버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실버문화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했던 봉정우 사목국장도 어르신들이 과거 직장생활에 쫓겨 손도 대지 못했던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여윌롭게 즐기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다고 했다.

▼ 실버벽화예술단 어르신들은 도내 유명 미술관을 견학하면서 안목을 키웠다





▲ 실버벽화예술단 어르신들 가운데는 처음 붓을 잡거나 그림 공부를 하지 않은 이들이 더 많다

봉정우 문화원 사무국장은 “농촌에서 실버벽화예술단을 지속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3개월 동안 실버벽화예술단 어르신들을 지도한 강종찬 작가도 “어르신들께서 그림을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실버벽화예술단”이라며 “단기교육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이어 심화교육을 받고 지역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꿈은 크지 않다. 단지 긴 세월을 밟고 선 자리에서 붓을 들고 안정을 예쁘게 그리고 싶을 뿐이다.

글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사진 | 전형민 기자 hmjeon@kyeonggi.com

안성문화원

T. (031)673-2625 F. 672-6815

456-872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

Tip





▲ 2012년 8월 6일 충청남도 태안군 별주부마을로 갯벌체험을 떠난 의왕시 초·중학생들



‘바다의 허파’

갯벌에서 즐기고 배우다

산과 들로 쏘다니며 산딸기 따먹고, 개구리 잡으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던 시절이 있었다. 놀이터가 필요 없었다. 집 앞 공터, 산과 바다가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손에 잡히는 자연이 놀이도구였다. 맨질맨질한 돌맹이 다섯 개만 있으면 공기놀이 하고, 나무로 팽이 만들어 돌리고,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아이들의 ‘최초의 놀이터’는 자연이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꿈을 키우고 자연감각을 몸에 익힘으로써 자연의 다양한 현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작은 생물이나 풀꽃에도 배려하면서 지냈다.

하지만 도시화·산업화로 아파트숲이 들어서면서 아이들의 땅(놀이터)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컴퓨터 온라인 게임과 플라스틱으로 꾸며진 실내의 어린이놀이터가 꿰찼다.

아파트 속에서 자라고 있는 동심들에게 자연으로 돌아가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자는 취지의 이색프로그램이 의왕문화원(원장 박용일)에서 열리고 있다. 목적지는 ‘바다의 허파’ 갯벌이다. 불별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2년 8월 6일, 충청남도 태안군 별주부마을 갯벌은 아이들의 천국으로 변신했다.

“

충남 태안군 별주부마을에서 이색체험
 생물 관찰하며 자연의 소중함 배워
 아주 특별한 여름방학 추억여행으로 딱 좋아

”



친환경 놀이터...아이들 갯벌을 접수하다

태안은 ‘기적의 여행지’다. 지난 2007년 발생했던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되돌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태안의 바다와 해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름다운 자태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숲을 품고 있는 별주부마을 해변은 아이들이 잠시 쉬어가기에 더없이 매력적인 장소였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아이들의 코끝을 자극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살갓을 어루만진다. 아이들은 서해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울창한 숲 아래 자리를 잡았다. 솔숲의 촉촉한 모래는 도시 아이들에게 색다른 촉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오전 11시, 썰물 때 70여 명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본격적인 맛조개 잡이를 위해 드넓은 갯벌로 갔다. 별주부마을 주민의 맛조개 잡는 시범이 이어졌다. 베테랑 어민의 재빠른 손놀림 끝에 맛조개가 잡히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우선 걸모래를 한번 쓸어내면 송송 뚫린 직경 1cm 미만의 구멍이 보이는데 그곳에 소금을 뿌리면 맛조개가 입을 벌리며 더듬이를 드러낸다. 이때 더듬이를 재빨리 잡고 호미로 모래를 훑어내면 맛조개가 올라온다. 맛조개가 들어갈 것 같다면 더 힘차게 당기면 된다.

아이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호미를 들고 생전 처음 해보는 조개잡이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호기심 가득찬 눈빛으로 조용하던 갯벌을 여기저기 쭈시고

다니던 아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숨을 쏘아냈다. 푸념도 이어졌다. “아! 놓쳤어요~엄마, 조개가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요”, “로또 당첨보다 맛조개 잡기가 힘드네요.”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갯벌에서 맛조개잡기는 아이들에게 ‘노동’에 가까웠다. 또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맛조개잡이 삼매경

갯벌 체험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 맛조개를 잡는 순간. 아이들은 맛소금을 맛조개가 있을 법한 갯벌의 구멍에 뿌리고 잠시 후 맛조개가 슬며시 고개를 내밀고 인사를 하는 순간을 눈 빠지게 기다렸다.

한 10분쯤 지나자 갯벌 여기저기서 맛조개를 잡은 승자의 환호와 맛조개를 놓친 패자의 탄성이 교차했다.

“우와~ 잡았다.”, “에이~ 또 도망갔네.”

맛조개가 쑥 올라오는 모습이 어찌나 재미있고, 신기한 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맛조개 잡이에 매달렸다.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처음에는 맛조개살이 살짝 올라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 하더니 차츰 신기해 하며 자기가 하겠다고 호미로 열심히 맛조개 구멍을 찾았다. 아이들은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맛조개를 잡았다. 1시간을 주그리고

앉아서 맛조개를 잡기 위해 갯벌을 캐다보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다. 새삼 그동안 먹은 조개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내 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

다고 아이들은 입을 모았다.

손맛을 본 아이들은 자리를 뜰 줄 모르고 맛조개 잡이 재미에 빠졌다. 아이들만큼이나 신이 난 엄마, 아빠도 호미질하느라 손과 다리에 생채기가 나는 줄도 모르고 땀 꽤나 흘렸다.

이번 갯벌체험 행사에 참여한 이영현(의왕 갈피초 3학년·여) 학생은 “엄마, 동생과 함께 시원한 바닷가





▲ 태안군 남면 원청리 별주부마을 앞 갯벌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의왕시 어린이들이 맛조개 캐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에 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맛조개잡이가 특히 재미있었고, 갯벌 생태에 대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오늘 저녁메뉴는 아빠와 함께 조개탕을 끓여 먹을 것”이라고 즐거워했다.

이날 생애 첫 갯벌나들이에 나선 중학생 3인방도 있었다. 의왕 모락중학교 1학년 동창사이인 정민철, 정보웅, 최진호군은 “끈적끈적 찰흙 같은 갯벌 속에 발을 넣으니 처음엔 기분이 좀 이상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민철군은 “평소 친구들과도 컴퓨터 온라인에서 만나 게임을 즐겨했는데 오늘은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발 빠른 맛조개잡이를 하니 협동심도 생기는 것 같고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두 자녀와 참여한 유보영(40·내손동)씨는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며 “수 억년 세월이 만든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 갯벌에서 저 또한 동심으로 돌아가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돼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의왕문화원, 창의적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

싱그러운 갯내음 속에서 ‘맨발의 동심’을 만끽할 수 있었던 2012년 갯벌체험은



▶ 태안군 남면 원청리
별주부마을 앞 갯벌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의왕시
어린이들이 맛조개 캐기
체험을 하고 있다



▲ 2012년 8월 6일 충청남도 태안군 별주부마을로 갯벌체험을 떠난 의왕시 초·중학생들

의왕문화원이 2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야심작이다.

박용일 원장은 “요즘 초·중고생들은 방학 때도 보충수업 받으랴, 학원 가랴, 방학숙제 하랴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며 “힘든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갯벌체험 프로그램 마련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

오세진 문화원 사무국장은 “의왕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승, 발전은 물론 향토사의 보존, 전통문화육성, 문화축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문화학교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원의 기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해 창의적인 문화활동과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의왕문화원

T. (031)456-4994 F. 452-2174
437-070 | 경기도 의왕시 백운로 15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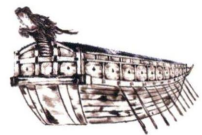




▲ 11기 학생들이 화성 웅진릉을 답사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배우고... 답사 떠나고...

역사의 뿌리찾기 삼매경



‘독도는 한국땅? 일본땅?’, ‘조선족은 한국인일까? 중국인일까?’, ‘제사상은 홍동백서(紅東白西)가 맞을까, 조율이시(藥栗梨柿)가 맞을까?’ 그 진실이 궁금하다. 선사시대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 속엔 수많은 물음표가 존재한다. 모호함만 가득한 궁금증, 어딜 가도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곳은 없었다. 하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 보고, 직접 맛보며 역사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인기가. ‘오감만족’ 역사교육을 시켜준다는 양주문화원(원장 박성복) ‘역사문화대학이’ 바로 그곳이다.

“

향토사부터 우리나라 역사까지 강의실서 예습하고
전국 유적지 탐방, 졸업생들에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부여

”



중·노년 男女, 역사에 빠지다

2012년 10월 8일 양주문화원 강의실에 들어서니 어린 학생은 없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조부모님들이 앉아 있다. 강의실 뒷쪽에 자리를 잡고 가만히 듣고 있자니 교수와 나이 많은 학생들은 서로 거침없이 질문을 주고 받는다.

양주 역사와 우리나라 주요 지역 역사를 배우는 1학년, 백제·고구려·신라를 아우르는 2학년을 거쳐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를 배우는 이들은 바로 3학년 졸업반 학생이다.

추석 이후 첫 수업인 만큼 ‘제례와 효도’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종손, 종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제사는 몇 대까지 지내는지, 제사상 차리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제사와 효도의 관계성까지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제사·차례와 관련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제사상에는 조기를 올린다, 문어를 올린다’, ‘차례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 위한 수단이므로 밖에서 외식을 해야 한다, 부모님을 위해 상을 차려야 한다’ 등 누구든 아는 내용이지만 진짜 정답을 찾지 못했다.

이때 홍정덕 지도교수가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았다. 조율이시, 홍동백서, 좌포우해(左脯右醢), 어동육서(魚東肉西).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칙은 조선시대 노론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 세상이 바뀐 만큼 앞으로는 ‘좌치우



▲ 학사모를 던지며 즐거워하고 있는 제9회 졸업생들

피(왼쪽은 치킨, 오른쪽은 피자) 원칙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교수 말에 심각하게 토론을 하던 학생들은 ‘하하하’, ‘깔깔깔’ 웃기도 했다.

이처럼 40~60대로 이뤄진 역사문화대학 학생들은 학창시절에 배웠던 역사 혹은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문화를 이곳 역사문화대학에서 다시 한번 배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직생활을 했던 오순옥(69·여)씨는 “퇴직을 한 뒤 양주 문화와 잊혀가는 역사를 알기 위해 입학하게 됐다”며 “뭇 사람은 늙어서 무슨 공부냐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던 분들과 함께 역사를 이해하며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양주 토박이 이성신(66)씨는 “집이 가까워 문화원에서 붓글씨 수업을 듣다가 역사 공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60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역사·문화를 알고 싶다면 그곳에 가라

역사문화대학 수업은 단지 책으로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 매주 돌아가며 월요일에는 강의실에서, 수요일은 답사지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1학년과 2학년은 답사 6회로 수업이 이뤄지고, 역사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3학년은 11차례 답사를 간다.

답사지 역시 다양하다. 1학년 때에는 회암사지, 권율 장군 묘, 양주관 아지 등 양주 역사 문화지를 시작으로 보는 삼년산성, 충남 서부지역 윤봉길 의사 생가, 경주 석굴암,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수원 행궁 등 우리나라 주요 유적지를 둘러본다.

2학년은 공주·부여 등 백제의 고도와 월정사 등 신라의 흔적들을, 3학년은 의정부, 강원 영월, 충북 단양 등 국내 유적지와 더불어 오사카, 교토, 나라, 아스카 등 일본 관서지방의 역사 문화탐방을 한다.

답사지에서 유적을 보고, 듣고, 만져보고, 그곳에 깃든 역사의 향기와 지역 전통음식 맛보기까지 현장 수업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어 학생들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다.

학생대표 장이근(55)씨는 “수업 내용, 인터넷 검색 등 역사에 대한 간접적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 입체적으로 배우니까 가슴에 와 닿고 감회가 새롭다”며 “답사와 함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전했다.

6년째 역사문화대학을 이끌고 있는 홍정덕 교수는 “학점을 따





▲ 양주문화원 역사문화대학 수업은 '수박겉핥기식'에 그치지 않고 역사 유적지와 현장 답사를 통해 수업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려는 어린 대학생들과 달리 자기가 역사를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참가해 열의가 대단하다”고 밝혔다.

양주 시민들의 뜻으로 만들어진 ‘역사문화대학’

어렵다던 역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역사문화대학은 누가 만들었을까. 지난 2001년 문화원에서 민요, 서예를 배우던 양주지역 여성지도자들이 양주를 위

해 마음을 한 데 모아 개설했다.

이들끼리 유적지를 탐방하며 역사에 대한 배움을 필요로 했고, 많은 지역민과 역사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대학을 만드는 발판이 됐다.

여성들로만 이뤄졌던 대학은 2009년부터 남녀 공학으로 바뀌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2년 초 12기 모집에는 정원(40명)을 배로 넘는 80여명이 지원해 문화원 관계자들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결국 2개 반을 구성하고 홍 교수와 함께 한순자 조교수가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역사문화대학 1기 졸업생인 한순자씨가 조교수를 맡아 학생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 역사문화대학을 졸업한 이들에게 양주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이 우선적으로 주어짐에 따라 현재 15명이 양주의 사라져가는 역사문화유적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박성복 문화원장은 “참여하시는 분 대부분 퇴직하고 노후를 즐기려고 이 곳을 찾는다”며 “그분들이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외적으로 역사전통을 홍보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 역사문화대학을 양주문화원의 전통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매년 역사문화대학에 대한 양주시민의 사랑이 커지고 있지만 11년째 열악한 문화원의 환경에 아쉬움이 남는다.

박 원장은 “양주문화원 부설 역사문화대학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 |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양주문화원

T. (031)836-6467 F. 837-6467

482-841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29번길 20

Tip





▲ 이천민속축제한마당에서 흥겨운 '소슬패'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소문난 이천 잔치’ 전국이 들썩



옛날 가난한 집에 효성 깊은 삼형제가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간 형제가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산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온 형제는 어머니가 없자 찾아 나섰고,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낭떠러지 밑에서 어머니가 호랑이에 쫓기고 있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세 아들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는데 그 순간 세 덩어리의 바위가 됐다. 이천시 설봉산에 있는 ‘삼형제 바위’의 전설이다. 이처럼 유명한 설봉산의 이름을 따 26년째 이어오는 축제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이천시 대표 문화브랜드로 거듭난 ‘설봉문화제’다. 이천문화원(원장 조명호)이 개최한 2012 설봉문화제 현장을 둘러봤다.



개회·폐회식 없이 시내 곳곳이 축제의 장
사진전·시낭송회 등 다양한 재미 선사
도자기축제·조각심포지움, 독립행사로 키워

이천 지역문화의 중심 '설봉문화제'

설봉문화제는 개회식과 폐회식이 없다. 한 장소에서 하루 이를 열리는 축제와 달리 이천 시내 곳곳에서 열리기 때문. 2012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 제26회 설봉문화제는 10월 20일 설봉공원에서 '이천민속축제 한 마당'으로 문을 열었다.

이천문화원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슬패'가 신명나는 가락을 전하며 참가자들의 흥을 돋았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에서 월드뮤직상을 수상한 5인조 퓨전국악그룹 '이스터눅스'가 무대에 올라 서양리듬이 아닌 우리 장단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설봉공원 놀이마당에서 펼쳐진 '허수아비 가족축제'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축제와 달리 올해는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진행돼 63개 다문화가정 총 203명이 참여해 각 나라의 특색을 살린 개성 있는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이때 만들어진 허수아비는 25~28일 열린 이천쌀문화축제 행사장에 전시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특히 설봉문화제 프로그램 중 청미문화제가 가장 눈길을 끈다. 이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공간이었던 장호원의 지역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 평을 받고 있는 것. 청미문화회, 장호원미술인회, 청미 사진 동우회 등 장호원의 문화단체가 중심이 돼 시화전, 미술전, 사진전



▲ 청미문화회, 장호원미술인회, 청미사진동호회 등 장호원의 문화단체가 중심이 돼 시화전, 미술전, 사진전, 시낭송회 등으로 이뤄진 청미문화제가 진행돼 장호원 지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과 더불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낭송회가 진행돼 장호원 지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설봉문화제의 대미 장식은 제14회 이천쌀문화축제와 함께 진행됐다. 무병장수와 마을의 안녕, 풍년을 기원하는 이천거북놀이가 단연 돋보였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된 거북놀이는 짚으로 만든 커다란 거북이 등에 소원을 써서 걸고, 작은 거북이는 등에 멘 채 참가자들이 함께 춤을 추는 축제로 이뤄졌다.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원이 적힌 짚거북이를 태우며 남은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이와 함께 이천의 초·중고 학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학생국악경연대회, 수준 높은 서예작품을 선보이는 이천 연합 서예전, 사진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모여 작품을 출품한 이천 사진전이 열려 설봉문화제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또 다른 지역 축제를 탄생시키다

2012년 스물 여섯돌을 맞은 설봉문화제는 오랜 시간 이천 지역의 전통문화와 민속 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특색 있는 향토문화제로 자리매김했다.

설봉문화제는 축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며 본래 문화제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이천국제조각심포지움, 도자기축제를 개별 축제로 탄생시키고, 이천쌀문화축제의 발전을 도왔다.

이천의 대표 축제로 불리는 도자기축제는 지난 1986년 설봉문화제의 일환으로 설봉호텔 회의실에서 소규모 행사로 첫 문을 열었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없





“설봉문화제가 지금까지 산실의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전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창의적 실험을 시도해야 할 시점”



이 이천문화원 단독 주최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지속되자 주인공이
어야 할 도예인들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다. 문화원은 전통도예를 테마로 하
는 축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고, 1995년 당시 문
화체육부의 호응을 얻게 됐다. 결국 집중지원축제로 선정됐고 설봉문화제의
일부분이었던 도자기축제는 독립된 축제로 자리 잡았다.

1998년 7월 ‘사랑과 평화’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움 역시 올
해로 15회째를 맞으며 이천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 행사로 발돋움했다. 문화
원은 당시 이문열 작가와 강대철, 박찬갑 등 이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각가를
중심으로 조각심포지움을 시도하고 불가리아 조각가 토노브 벤치슬라보브, 독
일의 도스텐 딕만, 네덜란드의 톤 칼레 등 전 세계 조각가들을 초청했다. 이

▼ 허수아비축제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허수아비를 직접 만들고 구경하고 있다



처럼 규모가 커진 심포지움은 지난 2006년 개별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자체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만큼 큰 성과를 이뤘다.

이천하면 떠오르는 ‘이천쌀문화축제’도 설봉문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한 축제다. 1999년 이천농업인축제로 시작해 2001년 이천협쌀축제, 2004년 이천쌀문화축제로 변화한 이 행사는 2012년 47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270억원 가량의 경제효과를 거두는 등 이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축제로 변모했다. 이동준 사무국장은 “설봉문화제는 전통문화 계승, 공동체 문화 보존 등을 이어오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역 축제”라며 “다양한 장르의 축제를 분화시킨 산실”이라고 말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변용 꿈꾼다

이천문화원은 척박한 문화토양 속에서 50년사를 거쳐 오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인식, 시도하는 방식으로 설봉문화제를 이끌어왔다. 특히 이천시가 2010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지정된 이후에는 이천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살리는 작업에 주력했다. 도시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지역 문화가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 제10회 이천시학생국악경연대회
참가한 학생들이
흥겹게 북연주를 하고 있다



▲ 5인조 퓨전국악그룹 '이스터눅스'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이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 역사, 예술에 대한 이해와 교양을 갓출 수 있는 문화교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농촌 지역의 경우 노령인구 증가로 문화와는 단절되는 현상이 심화돼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마을만이 갖는 이야기가 담긴 코스'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조명호 문화원장은 “설봉문화제가 지금까지 산실의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전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창의적 실험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천 지역만이 갖는 독특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변용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이 이뤄지는 진정한 축제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 |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이천문화원

T. (031)635-2316 F. 637-7486
467-020 |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63

Tip





▲ 화성 춤 클럽은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그 동안 갖고 뒀던 춤 실력을 바탕으로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춤 바람난 은빛 청춘... 나이 잊은 황혼의 열정



“넌 어려서 대중해도 이빠!”

옆에서 듣고 있던 김숙이 과장(화성문화원)은 슬며시 웃음이 나온다. 분장실은 항상 분주하다. 오늘이 가장 예쁜 모습이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집중한다. 눈썹에, 입술에, 볼에, 옷 맵시에, 버선코의 날렵한 선 하나하나에까지. 그러나 지나가는 세월은 어제보다 오늘 더 흔적을 남겨 놓는 법이다. 그래서 젊어서 좋겠다는 시샘 아닌 시샘을 툭! 던져 본다. 60세에서 75세로 이뤄진 ‘화성 춤 클럽’. 화성문화원(원장 우호철) 동아리로 자리 잡은 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다. 부채춤, 장고춤, 태평무, 진도북춤 등 여러 형태의 한국춤을 배웠고 특히 운학 이동안 선생의 춤을 함께 배우면서 춤의 깊은 맛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중이다.

“

60~75세로 구성, 2011년 동아리 출범
부채·태평무 등 다양한 춤사위 배우며
문화나눔 봉사·우리춤 전파 등 맹활약

”



‘한국춤의 대가’ 윤학 이동안 선생의 정신 이어가는 실버 춤동아리

이동안 선생의 춤을 배우는 데에는 화성만이 갖는 특별함이 있다. 이동안 선생은 화성시 향남면 송곡리 113번지에서 태어난, 한국춤의 대가로서 예인이었던 6대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화성 재인청의 도대방을 지낸 분이다. 재인청은 화성에 만들어진 가·무·악(歌舞樂)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6대조 할아버지가 처음 도대방을 지냈고, 이동안 선생이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1922년 강제 폐쇄될 때까지 도방을 맡았으니 마지막 도대방이 된 셈이다.

화성 재인청은 전국의 예인들을 통솔 관할했던 기관으로 전국에 각 지부를 두어 예인을 양성했던 곳이다. 이곳의 인정을 받아야 관아에 들어가 공연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동안 선생은 본인 대에서 끊어진 재인청을 복원하고 싶어 했다. 우리 전통 문화가 올바르게 전승되기를 바라며 1995년 89세로 타계할 때까지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과 지도에 몰두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양문화의 유입으로 전래적인 춤과 외래적인 춤이 섞인 신무용이 학교교육을 통해 확산되면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 온 춤보다 지나치게 빠르고 기교위주로 흘러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양팔을 꺾 벌리면 그 안에 춤이 그득 들어 있어야 해! 한 팔을 들고 밀 때는 태산을 밀듯이, 한 팔을 끌어당길 때는 집채만 한 바윗덩이를 끌어당기듯이 해야지 춤이 되지. 몸만 나폴댄다고 춤추는 게 아니여!”

선생이 춤사위를 지도하면서 하신 말씀에서 한국 춤의 진중한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동안 선생의 춤은 기초수련무, 기본무, 살풀이, 승무, 태평무 등 30여 가지가 넘는데, 화성 춤 클럽은 현재 기본무, 신칼대신무, 진쇠무, 살풀이를 배우고 있고 기본무와 신칼대신무는 공연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 어르신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아 한국무용협회 화성지부장은 화성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동안 선생의 춤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우선 화성에 사는 지역민들이 배워야한다는 생각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춤은 정신적인 것이잖아요. 내면적인 것의 표현이 춤이고요. 단순히 행사나 축제에 한 번 나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춤 속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정신을 배워야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급하지 않게 한발씩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덧붙인다.





▲ 60~75세 어르신들로 구성된 화성문화원 춤 동아리 '화성춤 클럽' 회원들은 화성이 낳은 전통춤의 대가 윤학 이동안 선생의 춤을 배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앞으로 20년 진정한 춤꾼이 되어 있겠지”

2011년 정식으로 '화성춤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춤 동아리를 출범시키면서, 배움을 나눔으로 환원하는 지역 활동 또한 소중한 역할로 삼고 있다. 2011년 진행했던 프로그램 '화성춤 나빌레라~ 화성인은 화성춤을 추고'는 윤학 이동안 선생의 전통을 배우고 이를 화성지역에서 나눔 활동으로 실천했던 과정이었다. 마도면, 정남면, 봉담읍, 우정읍 등 10여 차례 지역 나눔활동과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합동연수, 화성시 향토박물관 개관식, 수원 문화원 여름음악축제 등 5차례에 걸친 초청공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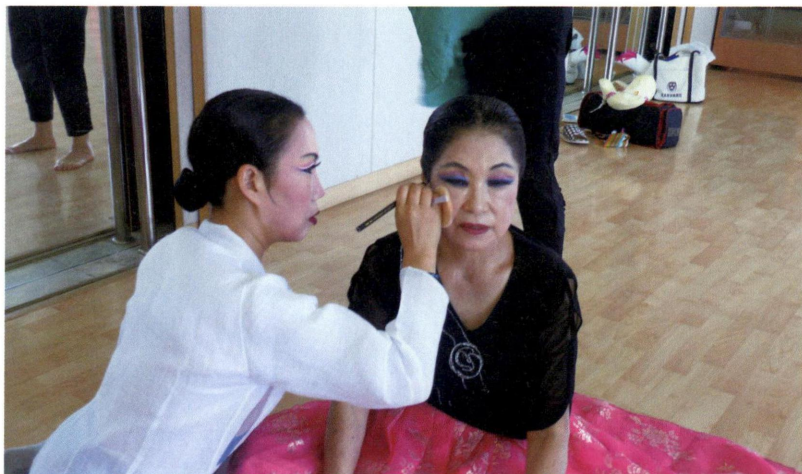
리고 수원 화성주부국악제 전국대회에서 특별상 수상과 여성학습동아리 발표회에서 희망여성상을 수상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5년째 춤을 배우고 있는 정춘선 회장은 이동안 선생의 춤을 배우면서 춤의 깊은 맛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동안 이쁜 춤을 많이 배웠지. 기분이 좋았지. 그런데 이동안 선생 춤을 배우면서, 내가 춤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일까? 춤의 절제와 가라앉는 마음, 정신이 차분해지는.... 그런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어요. 호흡에 대해 알아가는 것일까.... 지금 나이 육십이니 앞으로 이십 년 더 춤 배우면 지금보다 더 잘출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60이라는 숫자에 가려 20년이란 절차탁마의 시간을 별 것 아닌 소일거리 시간으로 흘려버리려 했던 생각이 죄송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누구였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의 주체로 ‘나’를 만나고자 하는 것, 춤을 배우는 자로서, 배운 춤을 나누는 자로서, 춤을 잘 추는 춤꾼으로서 계속되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나가는 ‘춤추기’ 속에서 생활을 즐기는 어르신들의 역동성이 느껴진다. 처음 춤을 배울 때 동네에 나가 춤을 추고 그들도 나도 즐거운 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무언가 시작했다는 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또 다른 생명의 힘이라고 본다. 나도 모르게 되어가고 있는 그것. 지금의 나를 나도 모르게 벗어



▶ 공연에 앞서 직접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



▲ 어르신들이 서로 한복과 족두리를 챙겨주며 공연준비가 한창이다

나고 있을 때 올라오는 생명력이다.

‘화성 춤 클럽’은 ‘화성 춤 보존회’의 비전을 갖고 있다. 운학 이동안 선생이라는 훌륭한 한국 춤 대가를 갖고 있는 화성에서 꿈꿔봄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꿈의 시작이 평균연령 65세의 춤 모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생긴 또 하나의 꿈이 있다. 이동안 선생의 춤을 배우는 청소년들의 춤 모임이 그것이다. 화성시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멘토로 한 춤 배우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은 것이 화성문화원 김숙이 과장의 바람이다. 춤 클럽이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 해온 김숙이 과장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본다. 매번 분장실에서 젊고 이쁜 것들(?)에 대한 시샘어린 불평을 들으면 서 슬며시 웃지만, 어련해 같은 투덜거림 속에서 세월이 갖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느낀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느낀다.

글 | 김설 자유기고가

화성문화원

T. (031)353-6330 F. 353-6331

445-926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9

Tip





‘효도하는 청소년’

키우는 효담보담 기자단



옛날엔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 3년 동안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보은과 효도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삼년상을 지냈다. 공자는 부모님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삼년상도 짧다고 했다. 요즘엔 삼일 장례로 끝낸다. 그렇다고 효의 의미나 중요성이 작아진 건 아니다. 효는 우리가 가꾸고 발전시켜 미래의 시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자, 가치다. 그리고 효는 타인에 대한 사랑의 ‘첫걸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는 시대에 따라 ‘효도선물’, ‘효도관광’ 등 방법적으로만 성장해왔다. 과천문화원(원장 이영구)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효를 주제로 한 기자단이라. 독특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예민한 청소년에게 효교육은 인성교육의 첫걸음
현직 기자 지도하에 기사작성법부터 취재, 신문제작까지



2010년 처음 구성돼 3기째 맹활약 중

청소년사이버기자단 ‘효담보담’은 이름부터 남다른다. 효담(孝談)은 말 그대로 ‘효 이야기’다. 거기에서 ‘어느 누구보다 바른 삶을 살자’라는 뜻의 ‘보담’을 합쳐 ‘효담보담’이라고 학생들이 직접 기자단 이름을 지었다. 2010년 1기를 시작으로 2011년 2기, 2012년 3기까지 해마다 15~2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기자단은 3년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1, 2기 기자단은 중·고등학생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다 활동의 폭을 넓여보자는 취지에서 3기 때는 어린 초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효담보담’은 학생기자로 활동하면서 과천을 알리고 청소년에게 효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사랑과 공경에 대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나 까다로운 면접, 실기시험이 없다. 오로지 효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초·중·고등학교)들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학생 중에는 효담보담 기자단 소식을 듣고 수원, 안양 등 인근 지역에서 찾아온 이들도 있다.

▶ 인터뷰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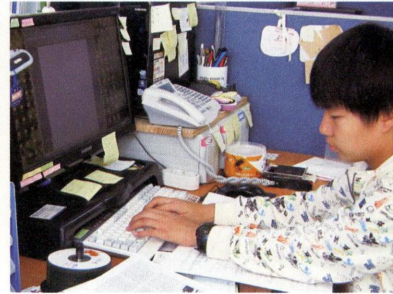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효'를 테마로 한 효신문

그렇다면 효담보담 기자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일까. 효담보담은 단순히 기사작성법만 배우지 않는다. 어른 기자 흉내내기식 수업도 없다. 기자단은 4월부터 12월까지 월 1~2회 정기 모임과 온라인 카페를 통해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취재 및 기사작성법, 인터뷰 기술 익히기, 효 문화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 효담보담 신문 발간이 주요 활동이다. 그리고 역사와 논술을 배우고 신문제작과 홈페이지 운영체계 프로그램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강의는 현직 기자가 책임지고 한다. 취재원 섭외, 질문방문, 기사작성, 사진촬영, 교정·교열 등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가 직접 강의하고 지도한다. 그야말로 밀착지도다. 기자단이 발간하는 신문은 '효'를 테마로 하는 국내 유일의 효신문이다. 2010년 9월 30일 '효담보담 창간호'에는 한국효문화센터가 주최하고 과천문화원과 과천향교 주관으로 열린 '세대가 공감하는 효 포럼'이 1면을 장식했다. 특히 조선시대 효자인 입지(立之) 최사립(崔斯立)의 효행을 알리기 위한 '제1회 입지 효 문화제'의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조선 중종 때 과천에서 태어난 최사립은 부모를 극진히 봉양해 '동국신속삼강행실도', '과천군읍지' 등에 그의 효행이 기록된 인물이다. 효담보담 기자단은 효를 주제로 백일장, 한시 짓





▲ 작성한 기사를 교정·교열 중인 기자들



기, 사진 콘테스트, 문인화 그리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 현장으로 달려가 생생한 소식을 취재했다. 이와 함께 《효행실천 10가지》 기사를 보도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게재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1. 사랑한다고 고백을 자주해라 2. 늙음을 이해해야 한다
3. 웃음을 선물해라 4. 용돈을 꼭 챙겨 드려라 5.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려라 6. 이야기를 자주해 드려라. 7. 밝은 표정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8.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를 잘 드려라 9. 부모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려라 10.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다

- 김수민 기자 -

2011년 7월 14일 발행한 제3호 신문에서는 △온온사를 찾아서 △과천의 효자 최사립의 효행을 추모하는 입지효문화축제 현장 스케치 △경기소리전수관 △부모님을 위한 미역국 만드는 방법 등의 다채로운 기사로 신문을 꾸몄다.



효녀 · 효자되고 기자활동도 하고 1석2조

학교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학년도 다른 학생들이 효신문을 제작하는 일은 만만치 않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담보담 기자단원들은 2011년 11월 30일자 4호 신문까지 발행했다. 학생들은 효담보담 활동을 하면서 무엇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좋아졌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기사쓰는 법, 취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뛰어 넘어 지역의 효와 관련된 문화제나 문화유산 그리고 인물을 취재하면서 효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 특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효담보담 활동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효'란 일상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함께 하는 것, 부모님을 위하는 진정한 마음이 '효'라는 것, 큰 것 보다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쳤다고 했다. 또 효담보담 활동 덕분에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는 학생도 있다. 바로 정우진양(과천외국어고등학교 3년)이다. 정우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게시판에 붙은 기자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 장래희망이 PD였던 정양은 효담보담 초창기 멤버

▼ 기자단 후배의 원고를 봐주고 있는 학생





▲ 효담보담 기자단 학생들이 신문 편집회의를 하고 있다

로 3년 활동했다. 바쁜 학업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한 정양은 올해 입학사정관으로 서강대학교 중문학과에 입학했다. 정우진양은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면서 3년 동안 학생기자로 활동하면서 익힌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정확한 의사 전달력이 합격에 주효했다”며 “무엇보다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이 든 기자단 동생, 친구들과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만든 것이 고등학교 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구 문화원장은 “과천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추운 겨울날 벽에서 칙꽃을 피게 한 ‘벽상가화’의 주인공인 효자 최사립의 고장”이라며 “이에 걸맞은 기자단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문화원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과천문화원

T. 02)504-6513 F. 507-1422
427-090 |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40-1

Tip



광주문화원 | 남한산성문화제

부천문화원 | 부천농기고두마리 공연

오산문화원 |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안양문화원 | 안양만안문화제

양평문화원 | 전통혼례지도자양성과정

평택문화원 | 웃다리문화촌

연천문화원 | 미수문화제





마을공동체

회복의 길목에 서다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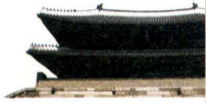
세계문화유산 등재 앞두고 2천년 역사를 한눈에

“말짱 도루묵!”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이 헛수고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말한다. 얼핏 ‘도루묵’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들어본 것 같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사용하게 됐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병자호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답이 나온다. 조선 인조 임금이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다가 ‘묵’이라는 생선을 먹고 맛이 좋아 ‘은어’로 부르도록 했다. 임금은 은어의 맛을 잊을 수 없어 병자호란이 끝난 뒤 남한산성을 다시 찾았지만 처음과 같은 맛을 느낄 수 없어 다시 묵으로 부르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루묵’으로 불리고 있는 것. 이처럼 남한산성은 외적을 물리치는 중대한 군사 역할과 함께 ‘도루묵’이란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남한산성의 2천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17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가 광주문화원(원장 남재호) 주최로 2012년 10월 19~21일 성대하게 펼쳐졌다.



▲ 백제를 창건한 온조대왕과 남한산성 축성 총책임자였던 이서 장군을 기리기 위한 송열전 제향이 열리고 있다



“

온조대왕 이서 장군 제향의식 열려
12거리 큰 굿 대동굿을 절정으로
사흘간 10만여 명 문화제 만끽

”

백제 온조대왕과 이서 장군의 혼을 기린다

백제를 창건한 온조대왕의 불굴의 의지와 남한산성 축성 총 책임자였던 이서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송열전 제향이 남한산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렸다. 제향의식은 매년 음력 9월5일 온조왕과 이서 장군의 신주를 모셔놓은 송열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에서 거행된다.

이날 제향의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신주 앞에 폐백을 드리는 전폐례(奠幣禮), 벼슬아치가 신위 앞에 첫 술잔을 올리는 초헌례(初獻禮), 아헌관이 신위 앞에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례(亞獻禮), 종헌관이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종헌례(終獻禮), 신에게 올렸던 술을 마시는 음복례(飮福禮), 폐백과 축문을 태우는 망료례(望燎禮) 순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악공들의 잔잔한 음악 연주가 더해지면서 유림, 탐방객 등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봉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10년 만에 복원된 남한산성 행궁에서부터 남문행사장까지 행렬하는 호궐의식 재현이 진행됐다. 조억동 광주시장, 이성규 광주시의회 의장, 남재호 광주문화원장 등은 말을 타고 취타대, 의장대 등과 이동하며 과거 남한산성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해산하기 전 임금이 노고를 치하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냈다.

탐방객들은 의복을 갖춰 입은 행렬을 가만히 지켜보다 이내 신기한 듯 함께 발걸음을 옮기면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남한산성 분위기를 조성했다.



▲ 광주지역 고등학생 120명이 '남한산성 도전 골든벨'에 참여해 퀴즈를 풀고 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는 '남한산성 알리미'

승열전 제향, 호궐의식 재현 등 역사적 의식이 끝난 뒤에는 그야말로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남한산성문화제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산성백일장, 남한산성행궁 사생대회, 휘호대회가 열리는 곳에서는 그동안 실력을 갈고 닦았던 학생들의 남한산성을 주제로 기량을 뽐내는 장이 펼쳐졌다. 탁본체험, 떡메치기, 무형문화재, 정보화마을, 도자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마련된 행사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줄을 지어 기다리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특히 곤지암고, 광주 중앙고, 광남고, 경화여자e비즈니스고 등 광주지역 고등학생 120명이 참여한 '남한산성 도전 골든벨'이 이번 문화제의 하이라이트다.

학생들은 환호와 탄식을 쏟아내며 남한산성과 광주시의 역사에 대해 줄줄이 출제되는 문제를 풀어나갔다.

천주교의 발원지인 ‘천진암’을 맞추는 여섯 번째 문제에서 반 이상의 학생들이 탈락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회자는 센스 있게 패자부활전을 이끌어내며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의 ‘말춤’ 플래시몹을 요구했다. 춤을 열심히 춘 자만이 자기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말이다. 학생들은 각자 개성 있는 말춤을 선보이며 이날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큰 웃음을 안겨줬다.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난 김경태(17·중앙고1)군은 광주의 동물, 조선시대 일반 서민까지 사용했던 도자기, 광주 소속 읍·면·동 쓰기 등의 정답을 적어내면서 결국 골든벨을 울렸다.

김군은 “일주일 정도 남한산성과 광주 역사책을 보며 골든벨을 준비했다”며 “여태껏 몰랐던 광주시와 남한산성에 알게 되고 상금까지 받게 돼서 일석이조”라며 미소를 지어보였다.

이와 함께 평양 꽃바람 예술단 공연, 전통줄타기 공연, 산성음악회 등이 펼쳐져 문화제를 찾은 10만여 명의 관람객들은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질어가는 단풍 속에서 남한산성문화제를 만끽했다.

▼ 산성음악회에서
열창하고 있는 고등학생



▼ ‘남한산성 도전 골든벨’ 패자부활전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말춤을 추고 있다



남한산성문화제의 모태 '대동굿'

문화제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남한산성 문화제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대동굿이 펼쳐졌다. 대동굿은 원래 조선인조 2년(1624년) 남한산성을 축성하고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참형 당한 이회 장군과 그의 두 부인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굿이었다.

하지만 광주시와 광주문화원이 남한산성 대동굿을 중심으로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1997년 남한산성문화제로 명칭을 바꾸고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비는 전통무속 행사로써 문화제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날 대동굿은 광주, 하남 등 인근에 사는 무속인들이 함께 펼치는 큰굿으로 모두 12거리로 진행됐다. 거리마다 무속인들이 7~10명 정도가 나와 각기 다른 굿을 선보였다. 특히 비수 12개를 계단으로 만들어 놓고 한 계단씩 타고 오르는 비수거리(일명 작두타기)가 진행될 때에는 관람객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 몰리며 장사진을 이뤘다.



◀ 무속인이 '작두타기'를 하는 장면을 관람객들이 보고 있다



▲ 문화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천연염색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손을 모으고 조마조마한 모습을 보이다가 무속인이 아무 탈 없이 거리를 끝내자 박수를 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매년 문화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소원지태우기가 이번 축제의 끝맺음을 알렸다. 달집에 꽂혀 있는 탐방객들의 소원지에 불이 붙여지자 관람객들은 광지원농악단의 대동놀이 가락에 맞춰 강강술래를 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자신들의 소원을 바라봤다.

김진영 문화원 사무국장은 “남한산성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1호부터 6호, 국가사적, 자연풍경 등 모든 게 갖춰져 있다”면서 “매년 시행착오는 있지만 광주를 알리고 남한산성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민이 어울리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사진 | 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

광주문화원

T. (031)764-0686 F. 761-0315
464-800 | 광주시 문화로 85번길 19-12

Tip





상부상조의 정신, '석천농기고두마리' 공연

에 헤리 방애호
에 헤헤리 방애호
이 방아가 뉘 방안가
방아방아가 돌방아나

2012년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복잡한 부천역 남부광장에 때 아닌 논을 다 매고 나오면서 부르는 '방애소리'가 울려 퍼졌다. 뺨뺨로데이를 앞두고 데이트 나온 연인들, 대형마트에 시장 보러 나온 가족들, 친구들과 소주 한잔 하러 나오신 어르신들까지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뉘 놓고 공연을 보고 있다.

농부 100여명이 짚신을 신고 나와 논매기를 하고 나서 '농기(農旗) 싸움' 하는 장면은 고충빌당이 즐비한 부천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풍경치곤 생경스럽다. 쌀쌀한 늦가을, 농부들은 왜 도심에 등장했을까.



▲ 서촌말과 술안말 양 마을 농군들이 본격적인 농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

핑 쫑지깃 묶어 만든 ‘핑장목’ 빼앗는 놀이
 풍년 기원하고 농민들 노고 서로 위로
 부천지역 사학자들 노력으로 ‘화려한 부활’

”

각 마을 농기 · 풍물패 · 농군, 자웅을 겨루다

부천시민들의 발과 눈을 붙잡은 농부들은 부천우수전통민속놀이 ‘석천농기고두마리’ 공연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부천농기고두마리보존회 소속으로 초등학생부터 주부, 교사, 어르신, 대학생 등 세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천문화원(원장 박형재)이 주최하고 부천농기고두마리보존회(회장 손영철)가 주관한 석천농기고두마리는 풍물이 어우러진 일명 ‘상좌다툼놀이’다. 1800년대 초부터 1910년대까지 옛날 부평군 석천면, 현재의 부천시 송내동과 상동 및 중동 일대에서 이어온 민속놀이로, 십 수 년 전만해도 넓은 별판의 평야지대인 이곳에서 논농사와 세벌매기를 마치고 7월 백중날(음력 7월 15일) 마을 대향으로 치른 놀이로 특히 철종 이후 조선 말기에 성행했던 것으로 전해 온다.

석천농기고두마리는 농기를 사용하는데 농기 위에 핑의 쫑지깃을 여러 개 모아 묶어 만든 핑장목을 쫓는다. 이 핑장목을 부천 고유어로 ‘고두마리’라 불러왔고, 농기싸움은 바로 이 고두마리를 빼앗는 놀이인 것이다.

농기고두마리는 우선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고된 농사철을 보내는 가운데 농민들이 서로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으로 행해졌다. 다른 한편으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반상의 차이가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신분상승에 대한 희망을 농기다툼의 승자를 통해 표출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부천의 들녘이 사라지면서 농기싸움도 자연히 사라졌다. 그런데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

이는 부천 지역 향토 사학자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부터 '석천농기고두마리' 복원과 재연작업을 해왔고 2010년 8월에는 '석천농기고두마리'의 발전적 계승을 위해 '부천농기고두마리보존회'가 창립하면서 가능했던 것.

재연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흥겨운 자리

오후 4시, 부천역 남부광장에 서촌말, 술안말 양 마을 풍물패가 농기를 앞세우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등장하자 행사가 시작됐다.

이어 논매기 준비를 위한 한바탕 놀이가 펼쳐지고 풍물이 그치고 북이 논매기 준비를 알리기 위해 점고가 끝나자 100여명의 농군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논 안으로 들어가 '상사디 소리'에 맞춰 논매기 한다.



▲ 모내기 후 손발을 닦고 있는 농군들



◀ 지난해 패자마을 농군들이 제사상을 차려 놓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 마을 장정들이 농기싸움에 앞서 씨름을 하고 있다

세벌 논매기가 끝나자 마을 장정들의 씨름판과 마을잔치가 벌어졌다. 풍물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해 패자마을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려 놓고 같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런 다음 본격적인 농기싸움이 펼쳐졌다.

풍물패는 농기를 중심으로 풍물을 치고 농군들은 자기 마을 사람들의 사기를 돋우는 함성과 춤으로 열기를 달궜다. 지난해 승자마을에서 패자마을에 농기싸움을 하자고 점고를 보내고 패자마을에서도 싸움에 응한다고 점고를 보낸다. 지난해 패자마을의 농기가 놀이에 앞서 상좌마을의 농기에 기 세배를 한다.

기 세배가 끝나자, 각 마을의 농기는 서로 밀고 당기며 자웅을 겨루었다. 이 장면이 바로 석천고두마리 행사의 하이라이트.

빙빙 돌면서 만났다가 멀어지기도 하면서 서로 한껏 두 세 차례 시세를 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싸움이 시작되고 마을 사람들의 절반은 자기 마을의 농기를 지키기 위해 빙 둘러서고 나머지 절반은 상대 마을의 농기를 쓰러뜨리기 위해 상대 마을 농기를 향해 달려갔다.

이날은 서촌말 농군들이 술안말 농기에 꽂혀 있는 깃털(고두마리)을 뽑아 승자가 됐다. 술안말 농군들은 땅에 주저앉아 분함을 감추지 못해 땅을 치고 짚신을 벗어던지기도 했다.

농기싸움 후 양쪽마을 풍물패가 하나 돼 신명나게 춤을 추며 노는 화합의 한마당을 끝으로 공연은 막을 내렸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연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흥겨운 풍물소리에 어깨를 들썩이며 즐거워했다.

무엇보다 전통민속놀이 공연에 소녀 팬들이 몰려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김가현(소명여고 1년) 학생은 “여월초등학교 풍물부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요나 팝송 보다 흥이 나는 우리 풍물소리를 더 좋아했다”며 “친구들과 같이 직접 와서 보니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아파트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엔 볼 수 없는 농경사회의 협동정신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웃으며 관람하던 유재호(72) 어르신도 “도시개발로 상전벽해를 이룬 부천에서 건전한 민속놀이가 계승 발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며 “삭막한 도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석천농기고두마리 행사를 통해 농경사회 상부상조의 정신을 키우고 지역의 단합력을 결속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양 마을 풍물패가 농기를 앞세우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등장하고 있다





▲ 세벌 논매기 중인 농군들

석천농기고두마리에서 이긴 농군은 패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패자는 승자를 위해 축배를 드는 아량이 있다. 무엇보다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애가 숨어 있다. 이에 부천문화원과 부천농기고두마리보존회는 단순한 재연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 하는 살아있는 민속놀이로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박형재 문화원장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작스런 도시의 변천사 속에서 석천농기고두마리는 많은 향토 사학자들이 놀이의 근간을 찾아 연구해 계발하고 그 내용을 자료화해 놀이의 원형을 찾아낸 것으로 앞으로도 자료를 바탕으로 시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석천농기고두마리를 알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사진 | 전형민기자 hmjeon@kyeonggi.com

부천문화원

T. (032)651-3739 F. 656-9200

422-819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92번길 25

Tip





달집에 액운 날리고... 소원성취하세요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1월 1일이 중요하지만, 달의 움직임을 표준으로 삼은 음력을 사용하는 사회에서 가장 큰 첫 보름달이 뜨는 1월 15일의 중요성이 그에 못지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월 대보름은 일년 농사의 풍년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설에는 집에 못 갔더라도 보름에는 꼭 집에 들어가 농사짓기를 준비해야하는, 온 가족의 생존이 달린 명절이다.

하지만 농업인구가 급감하면서 정월대보름의 의미도 퇴색하고 다채로운 세시풍속도 사라졌다. 이러한 가운데 오산문화원(원장 임명재)이 정월대보름의 전통적 의미를 담은 축제를 마련, 이를 지역 대표 행사로 발전시킬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

2005년부터 풍성한 대보름 축제
전통살린 체험프로그램 다채
오산 대표 축제로 우뚝

”



오산문화원이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10미터 높이의 대형 달집태우기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있다

역사 속, 정월대보름

음력 1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세시풍속으로 따지면 설날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날로 꼽힌다.

이날에는 약밥 또는 오곡밥, 묵은 나물, 복쌈, 부럼, 귀밝이술 등을 먹었다. 지금도 오곡밥과 나물, 부럼, 귀밝이술 등은 많은 이들이 정월대보름을 기념해 챙겨 먹는 것들이다.

특이한 것은 설에 개인적인 의례를 행한다면 대보름에는 마을 공동의 의례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소망보다 그네들이 함께 머무는 마을 공동체의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로 풍년을 기원하며 짚을 묶어 기 모양을 만든 후 그 끝에 벼·기장·피·조의 이삭 넣은 것을 매달아 집 곁에 세웠던 ‘벧가리’가 있다. 또 짚·솔잎·나무 등을 모아 언덕 위에 쌓아 달집을 짓고 달이 뜨면 불을 질러 대나무가 타는 소리로 마을의 악귀를 쫓고 다 타서 쓰러질 때 그 방향과 모습으로 흉풍을 점치는 ‘달집태우기’, 대보름날 아침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말해 다가올 여름 더위를 대비하는 ‘더위팔기’도 있다.

노는 것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 어울릴 수 있는 놀이가 대부분이다.



▲ 외줄타기 공연이 한창인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장

단순한 유희나 오락이 아니라, 승패를 가르며 농사의 풍흉을 점쳐보는 데 목적이 있다는 특징도 있다.

대보름날 밤에 거행하는 줄다리기, 이에 앞서 펼쳐지는 고싸움놀이, 햇불을 들고 놀다가 빼앗거나 꺼뜨리는 햇불싸움, 부인들이 허리를 숙여 만든 다리위를 성장한 공주가 양쪽 시녀의 부축을 받아 노래에 맞춰 걸어가는 ‘놋다리밟기’ 등이다.

기록 속, 오산시의 정월대보름

명절에 펼쳐지는 마을 공동 의례나 놀이 등은 지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과 그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오산의 정월대보름은 어떠했을까.

오산문화원이 발간한 ‘오산의 역사와 문화’에 따르면 오산시 금암동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당집산에 올라가 짚수세미를 돌돌 묶어서 달이 뜰 때 각자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비는 ‘달맞이’를 했다고 한다.

또 오산시 서동(서넉말)에서는 달맞이를 가장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매봉재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서동에서는 정월 14일 ‘쥐불놀이’를 했다. 마을의 서씨네와 유씨네가 서로 마주면서 논두렁을 태웠는데, 이 때 유씨들은 “서강아지 쥐불이요”라고 하고 서씨는 “유강아지 쥐불이요”라 외치면서 서로 쥐불놀이 싸움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오래전 오산에 터 잡고 살았던 많은 마을 사람들이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대보름에 어울려 함께 즐기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기록이다.

이 같은 전통적인 정월대보름의 분위기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오산문화원은 이 문화유산으로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섰다.

정월대보름을 현대화시키다

오산문화원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오산천 둔치에서 진행해오던 것을 논밭을 태우며 농사짓기를 준비하는 전통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논이 있는 오산 운암뜰(시청 앞 교차로~부산동 고속도로 지하차도)로 행사장을 옮겼다.

시 최초로 도로를 통제하고 행사를 진행해 불만을 가진 일부 시민의 반발도 있었지만, 2만여 명의 어마어마한 시민이 운집했다.

▼ 요즘엔 보기 힘든 널뛰기를 보기 위해 온 시민들



장소를 변경함에 따라 전통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은 물론, 쥐불놀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깡통을 돌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등 마을 공동체가 어울리는 기존 정월대보름의 의미가 한층 강화됐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풍성하고 쉽게 즐길 수 없는 프로그램 덕이다.

5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행사에서는 옷놀이 경연을 비롯해 연 만들기, 널뛰기, 제기차기, 굴렁쇠, 투호놀이, 깡통 돌리기, 거리행진 방식으로 진행한 지신밝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옷놀이 경연은 시 6개동에서 초중등부, 청장년부, 여성 및 주부, 어르신 등으로 부문별 경연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로 효자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호두와 땅콩과 같은 부럼, 팽튀기, 엿치기, 떡메치기 등 전통적 먹을거리도 제공했다. 오산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전문 상인이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 했다는 평이다.

지자체의 문화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도 풍성했다.

풍물놀이, 북청사자놀이, 줄타기, 널뛰기, 민요 등 전문가(단체)가 특설무대에 올라 흥겨운 명절 분위기를 만들었다. 남사당놀이 보존회의 권원태 무형문화재 제13호, 국악협회 오산지부, 북청사자놀이 보존회 등이다.

무엇보다 오산문화원이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검은 하늘에 휘영청 밝은 달을 향해 솟아오르는 빨간 불길인 인상적인 ‘달집 태우기’다.

▼ 연날리기 재미에 폭 빠진 어린이들





떡메치기, 옷놀이, 투호놀이를 직접
해보고 있는 어린이들과 시민들

오산문화원은 행사장의 논 한가운데에 높이 10m의 대형 달집을 세운다. 이날 행사 중 일반 시민이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달집에 엮어놓은 새끼줄에 가득 묶고 불을 붙인다. 드디어 달집에 불을 붙이면서 시민의 간절한 소원도 함께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것이다.

유종대 문화원 사무국장은 “전통문화를 찾고 그것을 현대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문화원의 역할”이라며 “2011년부터 좁은 천변 길에서 너른 논밭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프로그램과 참여·방문 인원이 크게 늘어 풍요를 기원하는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은 도시 오산은 더 많은 사람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인근 수원이나 서울 등에서도 현대식 건물만 있어서 이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큰 축제를 경험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 오산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 |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오산문화원

T. (031)375-7755 F. 375-7959

447-010 | 오산시 오산천로 275 1층

Tip



정조의 효심이
문화유산으로 꽃 핀 곳,
안양



2012년 10월 14일 오후 안양만안문화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정조대왕 화산능행차가 원형에 가깝게 재현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

정조 애민정신 기리는 축제로 성장
 화산능행차 시연 문화제 ‘백미’
 전통혼례식·민속경연대회 등 풍성

”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재위 1776~1800년 24년간)은 업적만큼이나 효심이 깊었다. 조선 왕조사에서 가장 파란만장하고 굴곡진 삶을 살았던 정조의 일생을 놓고 보자면,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사도세자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영조로부터 끊임없이 성군의 자질을 시험받는가 하면, 외척의 모략과 암살 위협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겪어야 할 고통은 끝이 없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왕조를 파국으로 몰아 간 파당정치를 해소하고,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어 냈는가 하면, 부국강병으로 앞날을 도모한 성군 중의 성군. 바로 ‘정조대왕’이다.

이러한 정조의 효심과 애민정신(愛民精神)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매년 안양문화원 주최로 열리는 ‘안양만안문화제’다. 혹자는 ‘정조의 도시는 수원 아닌가’ 하고 반문하기도 한다. 모르는 말씀. 안양도 정조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고장이다. 뜨거웠던 2012년 제27회 안양만안문화제 현장에서 그 인연의 끈을 찾아봤다.



전통문화체험 코너에서 어린이들이
다식 만들기를 체험하고 있다

정조의 만안교(萬安橋)···“만년동안 편안하게 건너라”

안양만안문화제의 시작은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만안교(萬安橋 · 경기유형문화재 제38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만안교는 정조대왕이 생부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 화산에 옮기고 거의 해마다 능을 참배하러 갈 때 행렬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다. 당초 능참로는 동작동에서 남태령을 넘어 과천, 고천, 수원, 화성으로 이어졌다.

당시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용산, 노량진, 동작, 과천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으나 중간에 교량이 많고 남태령 고개 때문에 행차로를 닦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때까지 왕이 행차하는 길에는 임시로 나무다리를 가설했다가 끝난 뒤 바로 철거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행차 때마다 놓았다 헐었다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평상시에도 백성들이 편히 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정조의 명으로 영구적인 돌다리를 놓게 되었다.

무엇보다 과천에서 인덕원으로 나오는 길 오른쪽에 아버지 사도세자를 영조에게 모함해 죽게 만든 정승 김상노의 친형 김약노의 묘가 있어 이를 불길하다 해 능참로를 변경했던 것. 만안교는 ‘만년동안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조가 직접 지었다. 전체적으로 축조 양식이 매우 정교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홍예석교로 평가된다.

원래는 남쪽으로 약 460m 떨어진 석수로의 교차지점에 있었는데 1980년 국도 확장 때 이곳으로 옮겨 복원했다.

이에 안양문화원에서는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이 녹아 있는 안양의 대표 문화유적 ‘만안교’의 뜻을 기리고자 안양만안문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2년 27회째를 맞은 안양만안문화제는 안양의 대표적 전통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채워진 ‘종합선물세트’

2012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안양문화원, 안양아트센터, 안양삼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안양만안문화제는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먼저 10월 10일 안양시민속경연대회로 그 화려한 서막을 연 문화제는 전통혼례, 정조대왕 화산능행차 시연, 전통문화체험, 문화가족발표회 및 문화가족 작품전시회, 안양향토문화연구소 세미나, 안양서도회전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축제의 달, 10월 안양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2012년 10월 3일 안양삼덕공원에선 신랑 김병진씨와 신부 황명자씨의



▲ 안양삼덕공원에서 딱지치기에 한창인 학생들



▲ 2012년 10월 13일 안양 삼덕공원에서 신랑 김병진씨와 신부 황명자씨의 전통 혼례식이 거행됐다

전통 혼례식이 거행됐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신랑·신부들은 안승용 선생의 집례(주례)에 따라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었다.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전통혼례를 재현해 혼례의 서막을 알리는 길놀이로 시작으로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댁에 드리는 절차(전안례),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랑·신부가 손을 씻는 의식(관세례), 신랑·신부가 맞절을 교환하는 절차(교배례), 술잔을 서로 나누는 근배례에 이어 인사를 마치는 예필까지 주례 선생의 자세한 안내에 따라 총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전통혼례식에는 가족, 친지 외에도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행복을 기원했다.

전통 혼례식이 워낙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신랑·신부와 관계자들이 잦은 실수를 연발해 웃지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보는 이들도 절도 있고, 복잡한 혼례절차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6살 손주 녀석과 함께 전통혼례식을 지켜본 유병만(68)씨는 “요즘은 30분 만에 초스피드하게 끝나는 결혼식이 대부분인데 오랜만에 전통 혼례복과 초례상, 꽃가마, 조랑말 등 우리의

전통 결혼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복잡한 절차로 서로에게 예를 정성껏 다하는 전통 결혼식은 부부에게 경건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안문화제의 백미... 정조대왕 화산능행차

2012년 10월 14일 진행된 정조대왕 화산능행차 시연은 안양만안문화제의 백미다.

오후 2시 안양여고 앞을 출발한 행차는 300여 명이 참여해, 중앙로와 우체국 사거리를 거쳐 명학공원에 도착하기까지 조선시대 당시 화려하면서도 위엄 있던 어가행렬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며 일대 장관을 연출했다.

조선 정조대왕이 능행차시 억울한 백성들이 임금님께 직접 호소하기 위해 징을 치게 하고 억울함을 직접 해결해 주었던 ‘격쟁(擊諍)제도’를 시행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안양만안문화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했다.

탈춤추기부터 딱지치기, 전통 매듭짓기, 다식 만들기, 전통 떡 맛보기, 옷놀이, 투호, 조랑말 타보기 등 평소 학교와 학원에선 경험할 수 없는 각종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상덕 문화원 사무국장은 “안양만안문화제는 지역의 향토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안양시민이 참여해 시민과 함께 안양의 전통문화브랜드를 창출하고 안양의 문화가치를 높여 안양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축제로 거듭날 때 안양의 전통문화예술은 지역의 폭넓은 문화벨트로 자리매김해 안양문화의 정서적 근간이 된다”고 말했다.

글·사진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안양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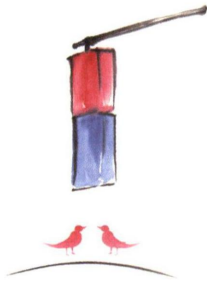
T. (031)449-4451 F. 442-0230

430-856 |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53

Tip



연지곤지 짚고 족두리 쓰고... 백년가약



“오늘 하루만 신부 빌려준 거지. 우리 마누라 다리 아프니까 적당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아 그 양반, 자기 신부라고 엄청 챙기네(웃음). 그래도 순서대로 할 건 해야지.”

부인을 빌려줬다면서 힘들까 봐 챙기는 남편과 한 자리에서 난데없이 다른 남자를 신랑으로 맞으면서도 수줍게 웃는 신부, 이 두 사람에게 핀잔을 주면서도 자못 진지한 사람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대화와 상황이 왁자지껄하게 펼쳐지는 이곳은 어디인가. 양평문화원(원장 장재찬)이 2012년 처음으로 진행한 강좌 ‘2012전통혼례지도자양성과정’의 수업 풍경이다.



▲ 양평문화원 전통혼례지도자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전통혼례 방식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

교육·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기

실버 수강생들 대거 몰려 열기 후끈

2012년 4월, 40억 들여 단독원사 갖춰

”

무료로 배워 아르바이트까지... 실버수강생들은 즐거워

2012년 10월 11일 오후 4시, 양평문화원의 ‘2012전통혼례지도자양성과정’ 수강생은 한껏 들떠 있었다.

본보 취재진의 방문을 알고 있었던 터다. 이미 2시간여 전부터 평소와 달리 전통복장을 갖춰 입고 사진으로 연습해왔던 음식을 마련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취재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열정은 높은 가을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특히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이 강좌의 심화반을 두 번이나 함께 들은 수강생들은 ‘취재가 있는 특별한 날 아내를 빌려줄 만큼’ 돈독한 관계를 자랑했다.

앞서 양평문화원은 가례해설전서교육과 혼례, 상례 등을 가르치는 강좌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이를 발전시켜 실습하고 직업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는 전통혼례지도자양성과정을 개설한 것이다.

기존에 이론으로만 익혔던 실버 수강생이 대거 몰리면서 두 번의 심화과정에 40여명이 청강하고 있다.

수강료가 무료인데다 배우고 나면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고 전통 혼례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로도 뛸 수 있으니 그 인기가 높다고.

그래서인지 부부참여자도 2쌍이나 있다. 부인이 먼저 배운 후 남편을 데리고 오거나, 남편이 먼저 배운 후 부인과 함께 오거나 참여과정은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들 부부는 새로운 것 없는 노년에 새로운 대화주제가 생겨 집에서 애정 한 가득이란다.

집에서 절하는 법이나 차례상 차리는 방법 등을 배운 그대로 실천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소원했던 가족들이 돈독해지는 효과도 맛봤다고 거듭 자랑이다.

수강생 천영숙(60)씨는 “1972년도에 시집갈 때 족두리를 쓰고 가마타고 전통혼례를 치렀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각 절차의 의미를 배우면서 자긍심도 생겼다”며 “전통적인 부분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쪽 머리를 할 수 있도록 몇 달간 머리를 길렀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니 모든 여성 참가자 머리에는 옥빛 비녀가 꽂혀 있다. 이 머리스타일을 하려고 ‘님 오길 기다리며 내내 우는 소쩍새처럼’ 머리를 길렀다고 이구동성이다.

한정아 강사는 “수강생 대부분 50~60대여서 전통 혼례 과정을 외우고 반복적으로 절하는 등의 실습이 힘이 들 텐데 그 열의가 대단하다”며 “가족 구성원이 각각의 삶이 바빠 ‘밥상머리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절 때라도 여기서 배운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새로운 대화거리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모습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 양평문화원 전통혼례지도자양성과정은 50~60대 수강생들이 대부분이다





▲ 양평문화원 전통혼례지도자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전통혼례 방식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전통 혼례 공간 속 특별한 의미도 가득

양평문화원은 2012년 4월 말, 국비 4억 원, 도비 14억 원, 군비 12억 원, 기탁금 10억 원 등 총 40억을 들여 1만4천250㎡ 부지에 건축 총 면적 2천7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단독 원사를 갖게 됐다.

양평군립미술관을 지나 양평여성회관 바로 옆에 있는 문화원(양평읍 마유산로)의 신축 원사는 풍물연습실, 서예실, 다도실, 자료실, 문화전시실, 문화교실 등을 갖췄다.

무엇보다 독특한 공간은 2012전통혼례지도자양성과정이 진행되는 전통혼례식장과 전통음식연구실 및 실습실 등이다. 전통 혼례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무대와 하객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마련돼 있다.

실제로 원사를 개관하자마자 5월에만 4쌍의 연인이 이곳에서 성스러운 혼인 맹세를 맺었다고.

2012년 11월에도 혼인한 지 예순 둘을 축하하는 부부의 기념잔치인 '회혼례(回婚禮)'와 부부의 연을 전통적 방식으로 맺기로 한 예비부부의 혼례식이 거행됐다.

재미있는 공간은 또 있다. 전통 혼례를 치르는 중앙무대의 양옆에 있는 작은 방 두 개다. '초자례(醮子禮)'와 '초녀례(醮女禮)'가 쓰여 있다.



▶ 양평문화원 전통혼례지도자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전통혼례 방식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그 뜻을 알고 보니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의 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의미 깊은 방이다. 과정은 이렇다. 초자례와 초녀례는 자식이 예식을 치르는 날 아침 일찍 조상에게 고하고 부모의 교훈을 받으며 한 가정의 꾸리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서약하는 절차다. 신랑은 초자례, 신부는 초녀례다.

이리 따져보면 전통적으로는 혼인 전에 이뤄지는 절차인 만큼 혼례가 치러지는 이곳에서는 필요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양평문화원측은 현대에 들어서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공간을 꾸려 본격적으로 혼례식을 진행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각각 부모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젊은 수강생’ 한정아(45)씨는 “초자례와 초녀례를 진행할 때 신부와 그 부모님이 정말 많이 운다”며 “폐백을 받지 못해 서러웠던 신부 측 부모님이 현대 결혼식장에서는 폐백 받기를 주장하지만 초녀례를 받으면 그런 서운함도 없어 보이더라”고 말했다.



▲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단독 원사를 갖고 있는 양평문화원

문화원 건물에 전통혼례식장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위치한 여성회관 ‘덕(?)’이다.

양평문화원이 기존에 인근 여성회관이 서양식 웨딩홀을 갖추고 현대 결혼식 사업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문화원으로서 전통적인 혼례를 치를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원의 원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화원 측의 의지를 반영해 건물 최고층에 전통혼례식장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김영희 문화원 과장은 “전통혼례지도자 양성과정은 원사의 전통혼례식장을 활용해 단순 취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깊다”며 “어르신들이 남의 좋은 일을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돈도 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양평문화원의 대표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글 | 류설아 기자 rsa119@kyeonggi.com

사진 | 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

양평문화원

T. (031)771-3866 F. 772-2511

476-802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5

Tip





흥물스런 ‘폐교’ 웃음소리 꽃피는 문화공간으로 ‘활짝’

“아이고, 오늘 파란 눈 손님들 오는 날인데 빨리들 준비혀.”

“오전에 밭에서 배추 뽑다 말고 택시 타고 왔어~”

“콩고물은 준비된 거?”

2012년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평택시 서탄면 한적한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70~80대 어르신들이 손님 준비가 한창이다. 인절미도 보이고, 무슨 잔칫날이라도 되는가 싶어서 여쭙는다. “잔치는 무슨, 웃다리촌은 핵교여 핵교, 오늘 강의 있는 날이라 수업 준비하느라 바쁜 것이구먼.”

흰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많은 할아버지와 허리도 못 펴고 꼬부랑자세로 서 있는 할머니들이 핵교(?)에서 도대체 무슨 수업을 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서 반나절을 지켜봤다.



▲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에 소재한 웃다리문화촌 전경

“

폐교 금각초교에 2008년 개관해
마을 주민 힘 합쳐 전통+놀이 결합한 문화메카로
계층 · 나이 불문 프로그램들 외국인도 “원더풀”

”

교부랑 할머니와 흰머리 할아버지 선생님

오늘의 강사는 정용녀, 심성자, 이민희, 임재혁, 정난옥, 허삼열, 이근우, 이정태 어르신.

어르신들의 미션은 평택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80여 명의 장병 가족들을 위해 떡메치기 체험과 장승 만들기를 강의하는 것.

이정태 어르신은 박동린 평택시 문화해설사의 영어 통역으로 장승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터 이어갔다.

“장난감 같이 생겼지요. 장승은 수호신의 역할을 합니다. 마을이나 절에 들어 올지도 모르는 나쁜 기운이나 병마 · 재액 · 호환을 예방하는 동시에 마을의 풍농과 화평, 출타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장승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따라 맹글어 봅시다.”

신이 난 미군 장병 가족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승 주재료인 나무를 자르고, 붙이고, 감고 손을 바빠 움직였다.

특히 장승 만들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표현. 외국인들이 봐도 해학적이어서 우락부락하면서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무섭게 보이면서도 다정다감하게 느껴져서 신기하고 재미가 있다.

외국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강사의 도움을 받아 장승 만들기를 완성했다. 뒤에 진행된 인절미 떡메치기 체험은 빵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들에게겐 그야말로 서프라이즈한 체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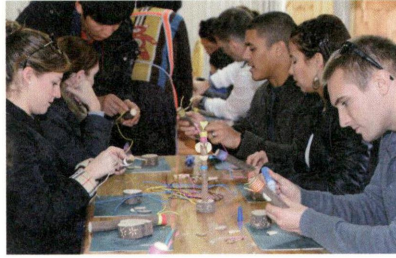
“인절미는 한국식 빵이라고 보면 되는 거. 떡 드셔보셨지요. 찰쌀을 찌서 떡메치기 틀에 붓고는 떡메를 쳐서 잘 부습니다. 찰진 반죽이 될 때까지 치고 또 치고 해야 쫄깃쫄깃한 인절미가 만들어집니다. 맛보고 싶은 양반들은 떡메치기부터 하고 줄 스셔.”
노란 콩고물을 꼭꼭 눌러 문힌 쫄깃쫄깃한 인절미를 한입 베어 문 외국인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oh~ It's delicious”를 연발하며 떡 맛에 매료됐다.

웃다리문화촌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어르신들의 전통공예
수업을 경청하고 있다





◀ 실버기업 '희망숫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이 외국인 방문객에게 장승만들기를 지도하고 있다



◀ 장승만들기가 한창인 미군들

2000년 폐교에서, 문화를 꽃피우다

어르신들 말씀대로 학교는 학교인데 뭔가 좀 특이하다. 교장선생님도 없고 산수, 국어수업도 없고 무엇보다 시험이 없는 학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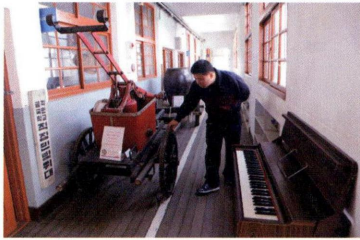
‘웃다리문화촌’의 정체는 뭘까. 웃다리는 농악의 한 종류다. 농악은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충청·경기도 지역의 농악을 ‘웃다리 농악’이라 부른다. 그 중에도 평택농악은 지난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웃다리 농악을 대표한다. 이 곳 문화촌을 웃다리라 지은 것도 이러한 자부심 때문이다.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에 소재한 웃다리문화촌은 사연이 많다.

2008년 8월 문을 연 웃다리문화촌은 옛 금각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섰다. 1945년 개교한 금각초등학교는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를 거쳐 지난 2000년 폐교됐다. 미군부대 때문에 개발이 제한돼 젊은 주민들이 하나 둘 마을을 떠났기 때문.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학교는 이내 마을의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흥물스럽게 남아 있던 폐교가 전통과 놀이가 결합된 문화체험공간으로 태어난 건 2006년의 일.

평택문화원이 주축이 돼 천연염색, 생활도예, 공예, 놀이미술, 민속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접목시킨 웃다리문화촌을 조성하면서부터다.





▲ 1950~80년대 부모님 세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물건들이 전시된 '웃다리박물관'



▲ 떡메치기를 하고 있는 평택 미군부대 내 군 장병들

웃다리문화촌이 자리 잡기까지는 마을 주민들의 힘이 컸다. 초창기 땀 매일 문화촌에 나와 부족한 일손을 보탬과 동물을 기증하거나 농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내일처럼 나서 품을 들였다. 잡초만 무성하던 흙물스런 폐교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웃다리문화촌은 개관 5년 동안 평택의 새로운 문화메카로 거듭났다. 인구 43만 명의 평택시는 박물관·미술관이 없다. 그리고 문화원 원사도 없다. 그만큼 문화적 척도가 낮은 지역이 평택이었다.

그러나 웃다리문화촌이 체험하는 문화촌, 즐기는 예술의 장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연간 5만 여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

계다가 지게, 양철도시락, 딱지 등 1950~80년대 부모님 세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물건들이 전시된 '웃다리박물관'과 도시생활 속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닭, 염소, 돼지, 거위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 '동물농장'도 색다른 재미를 준다.

무엇보다 웃다리문화촌은 프로그램이 짙쨍하다.

어른신을 위한 프로그램, 외국인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군 장병 프로그램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계층 위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웃다리문화촌 프로그램 운영담당자 김윤겸씨는 "장애인,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군 장병, 어린이, 어른 등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든 오면 60여 가지 체험이 가능한 곳이 바로 웃다리문화



촌”이라며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도시 평택에서 그나마 웃다리문화촌이 ‘문화인 큐베이터’ 역할을 자처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70대 사장님입니다!”...실버세대가 만드는 희망의 안테나

예전 평택하면 ‘미군부대’, ‘송탄햄버거’, ‘평택항’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엔 평택하면 ‘웃다리문화촌’, 웃다리문화촌 하면 바로 실버기업 ‘희망솃대’다.

‘희망솃대’는 이경태(79·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대표를 주축으로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수강생 30명이 주주가 되어 세운 회사다. 평택시 거주 60세 이상 남녀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솃대 만들기 강습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강사비와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솃대를 판매한 수익금이 이 회사의 주 수입원이다.

이경태 대표는 “오늘 수업 잘 한 것 같어? 외국인 상대로 한 수업은 더 긴장된다니께.(하하) 7년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짚풀공예, 장승·솃대만들기 교육을 한다기에 참여했는데 우연한 배움이 70대 노인의 인생을 바꿔버렸수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지키면서 어린이, 성인, 외국인까지 가르치고 돈도 벌게 되니 그야말로 신나는 노년을 살고 있수다. 오늘도 일하다 말고 수업이 우선이라 한걸음에 달려왔지 뭐”라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문화를 매개로 세대간 소통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실버기업 ‘희망솃대’. 지난 2007실버문화축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해 평택시가 실버문화를 이끄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평가받았다.

김은호 평택문화원장은 “서탄면의 폐교가 지역의 애물단지가 아닌 문화예술 체험장이자 쉼터로 환골탈태할 수 있었던 것은 발상의 전환과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프로젝트였다”며 “앞으로 웃다리문화촌이 경기도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사진 | 전형민기자 hmjeon@kyeonggi.com

평택문화원

T. (031)655-2002 F. 654-8807
450-810 | 평택시 중앙로 277

Tip





17세기의 지성 미수 허목, 선생과 ‘처음’ 만나다



▲ 미수 허목 선생 조선후기의 문신

“

30세에 과거의 뜻 버리고 조선성리학 주류에서 벗어나
말년에 연천 ‘은거당’에 머물며 오로지 학문에만 매진
학술회의·서예대전 후끈...선생의 삶 재조명 눈길

”

경기도 연천군에는 없는 것이 많다. 우선 병원과 대형마트가 없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이 없다. 여기에 3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도 없다. 그러다 보니 서울과 연천은 불과 60km 밖에 되지 않지만 2시간이 넘게 걸린다. 이처럼 연천군이 의료·문화·교통 등의 인프라가 열악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한 규제를 받아 ‘없는 것’이 많은 연천군에서 2012년 처음 ‘생긴 것’이 있었다. 이름 하여 ‘미수문화제’. 이름만 들어선 사생대회를 연상케 하지만 실체는 조선후기의 문신,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년) 선생을 기리는 문화제다.

연천군 사람들도 잘 모른다는 미수 허목 선생은 연천과 무슨 인연일까. 2012년 10월 19일, 연천문화원(원장 이경순) 주최로 열린 ‘제1회 미수문화제’를 통해 허목 선생은 다시 태어났다.

눈썹이 눈을 덮을 정도로 길었던 허목, 연천의 대학자·전서체의 대가

미수 허목은 1595년 한양 창선방에서 현감 교(喬)의 삼형제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양천이다. 태어날 때부터 손바닥에 문(文) 자가 새겨져 있어서 자를 문보(文甫)라 했고, 눈썹이 눈을 덮을 정도로 길어서 호를 ‘미수(眉叟)’라 했다. 영의정을 지낸 오리 이원익(梧里 李元翼, 1547~1634년)의 손녀와 19세에 결혼했는데, 이원익은 허목의 그릇을 알아보고 “언젠가 반드시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이다”고 공언을 했다.



▲ <은거당 옛터> 허목이 살았던 본가이나 지금은 터만 남아 표지 비석만 서 있다



조선 제19대 왕 숙종 때 우의정까지 지낸 허목은 흔히 조선왕조의 일반적 인 선비와는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학문의 길을 걸었다.

허목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 문신으로 사상적으로는 이황, 정구의 등의 학통을 계승해 이익에게 전승시킴으로써 기호학과 남인의 선구자이고 남인 실학파의 토대가 됐다. 그는 당시의 사회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의 제시에 주력했다.

즉, 그의 예(禮)를 준거로 한 합리론은 정치적으로 왕권강화를 위해 여러 주변세력들을 통제해 왕조의 권위와 질서를 확립하고 일반대중들이 왕실에 대해서 유교적이 예를 보편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집권층인 사대부의 권위를 높이려는 입장에 정면으로 대립했다. 특히 일반 사대부가 기회균 등을 보장하려는데 주력했다.

또한 허목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방의 제1인자'라는 독특한 그의 전서체이다. 중국 진한 이전의 문물에 대한 탐구가 문자에 적용된 경우인데 그 아름다운 글자체는 그가 직접 쓴 '척추동해비'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비석을 세워 삼척의 바닷물도 물러나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신기가 어려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시와 글 쓰며 말년을 보낸 은거당, 한국전쟁 때 소실

허목은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소재한 ‘은거당’에 칩거하면서 지인들이 청해오는 묘비문이나 비문 등을 써주고 시와 글을 쓰며 말년을 보냈다. 은거당(恩居堂)터(연천군 향토문화재 제14호)는 미수 허목이 말년에 자연을 벗삼아 저술 활동을 주로 행했던 곳으로, 허목이 84세가 되던 해인 1678년(숙종 4) 국가에 공이 많은 신하를 예우하기 위해 왕명의 특전으로 건립된 7칸 규모의 가옥이었다.

허목은 은거당이 완성된 후 당호(堂號)를 ‘수고은거(壽考恩居)’라 하고 괴석원(怪石園), 십청원(十靑園) 등의 정원을 손수 가꾸었다. 은거당에는 허목의 각종 유품을 비롯해 정원의 각종 괴석, 희귀목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 건물은 전소했고 그나마 남아 있던 정원의 괴석과 희귀목들도 모두 밀반출 됐다. 다만 근래에 십청원에 있었다는 석호(石戶) 명문 괴석이 발견돼 허목의 묘 아래에 옮겨져 있다.

현재 은거당터에는 ‘은거당옛터’라 음각한 커다란 안내 비가 조성돼 있다. 은거당은 소치 허련이 그린 ‘십청원도’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춤·음악·떡이 없는 문화제… 제2회 미수문화제를 기다리며

허목은 강원도 삼척, 경남 창원과 합천 전남 나주 등지에서 전설처럼 전해 오는 큰 인물이다.

허목의 묘는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민간인통제구역 인근에 있으며 경기도 지정 기념물 제184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연천에서 허목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경순 연천문화원장과 이준용 사무국장이었다.

이경순 원장은 “오래 전부터 연천의 대학자이며 행정가, 예술가, 정치가였던 미수 허목 선생을 기리는 문화제를 개최하고 싶었지만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 못했다”며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시작이라도 해보면 결국에는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심정으로 제1회 미수문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은거당은 한국전쟁 때 소실돼 지금은 터만 남아 있으며 조선 말기의 화가 소치 허련이 그린 '십청원도'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천문화원은 2012년 10월 19일 연천수레울 아트홀에서 제1회 미수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김규선 연천군수, 왕영관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양천허씨 대종회장 허찬씨, 미수 허목 선생의 후손, 군민 등 20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

미수문화제는 크게 서예대전과 학술회의로 나뉘 진행됐다. 서예대전에선 박대명씨(의정부시)가 대상을, 유연일씨(고양시)와 홍영섭씨(의정부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패널로 양태진 박사(전 인천대 교수), 이도남 건국대 사학과 교수, 최영택 전 서경대 교수 등이 나서 미수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양천허씨 대종회장인 허찬(미수 허목선생 12대손)씨의 감회도 남달랐다. “연천문화원에서 미수문화제와 허목 선생과 관련 된 학술대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후손된 사람으로 뜻깊은 일”이라며 “권력의 집행자로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임금을 보필했고 늘 군덕(君德)과 시정에 대한 의견을 올려 정치가 바로 되게 한 허목 선생의 삶이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 2012년 10월 19일 연천수레울 아트홀에서 제1회 미수문화제 일환으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패널들이 허목 선생을 재조명하고 있다



◀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에 소재한 미수 허목 모 전경

‘제1회 미수문화제’는 다른 문화제와 달리 가수도, 댄서도 없다. 떡도 음료수도 없다. 시끌벅적하지는 않다. 오로지 전서체 대가이며 조선 중기 대학자인 미수 허목선생을 기리고 도학과 철학에 대한 역사적 중요성과 예술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수문화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1회 미수문화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해 미수 허목에 대한 더욱 심도 있고 활발한 논의를 이루어내 연천의 위상을 높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전국 규모의 학술문화의 장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글 |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연천문화원

T. (031)834-2350, 834-3450 F. 834-2015
486-802 |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43

Tip



epilogue

에
필
로
그



▲ 제9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참여한 학생 퍼레이드 장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어제와 내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혁신은 혼란스럽지만 똑똑하다.
위에서 내려오는 혁신은 질서 정연하지만 멍청하다.”

미국의 혁신이론가인 SRI인터내셔널의
커티스 칼슨 최고경영자(CEO)의 말이다.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중구난방 그러나,
그 날 선 목소리가 지혜로운 발전을 이루는 근간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 2012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때 우수 임직원 및 회원 시상을 통해
경기도 문화원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돈금없이 왜 경영혁신 주장을 설명하나.

최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이하 도지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힘을 실어주는 데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급격한 마을 해체와 새로운 도시 형성에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은 제 자리를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각 지역 특유의 전통적 문화 정체성을 전승하고 새로운 문화정책을 제시했던 지방문화원은 현대식 문화예술기관과 문화재단 등에 그 역할을 내줬다.

문화원의 존재 이유는 희미해졌고, 찾는 사람 역시 줄었다. 기존의 대표적인 문화 사업으로 그 명맥만 유지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숨만 간당간당 붙어 있던 도내 지방 문화원들의 심장이 다시 펄떡펄떡 뛰기 시작했다.

도지회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반복적인 자문(自問)을 통해 반성하고 지방문화원에 손을 내민 것이 힘이 됐다.

“도지회는 각 지방 문화원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후, 필요에 의해 조직됐다.

단체 설립 목적이 밑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아 수행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지방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에 도지회는 각 지방 문화원 소통의 구심체로서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사업 방침을 세웠다.”

2012년 추대받은 정상중 도지회장의 말이다.

이처럼 도지회는 스스로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 문화원으로까지 역동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가장 먼저 ‘사업연계도’를 그렸다. 도지회의 역할을 정립하는 작업이었다.

기존의 4개 책 발간 사업에 2개 문화 행사를 주최했던 도지회의 사업을 분석, 이를 세분화하고 추가 확대해 재배치했다.

그 중심에 ‘네트워킹 사업’을 세웠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을 지닌 각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2011~2013년 3개년에 걸친 네트워킹 사업 계획에 따라, 첫 해 경기도 문화원 위상제고 및 역할강화를 위한 문화욕구수요조사사업을 벌였다.

학자와 전문가(제3자일 수밖에 없는)의 공허한 주장 대신, 각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실무진들의 현실적 요구를 수렴한 것이다. 이는 각 지역의 다름을 인정하며 맞춤형 발전 방향을 세우는 초석이다.



▼ 2012 경기도 시·군 문화유산원형 토론회 장면



이를 바탕으로 ‘조직과 법제의 시스템화’ · ‘문화예술교육’ · ‘축제와 문화사업’ · ‘향토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4개 키워드를 뽑았다.

네트워킹 사업 2차년도인 2012년에 지방문화원의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 4개 분과의 TF팀을 꾸려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했다. 드디어 2013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밑에서부터 올라온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모두 공감하는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지회는 또 이 네트워킹 사업과 연계해 ▲정책사업 ▲향토자료발굴조사연구사업 ▲향토문화 보급, 활성화 사업을 각각 추진했다.

정책사업은 문화원형 토론회와 문화원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로 구성, 문화원 사업의 의미와 추진 방침을 모색했다. 실제로 2011년 도내 문화원형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데 합의, 2012년에는 이 콘텐츠를 구체적인 사업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논의했다. 의정부의 ‘의순공주’와 하남의 ‘도미설화’를 공연 콘텐츠로 개발한 것이 그 예다.

향토자료발굴조사연구사업은 문화원 본연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의 음악분야 인물부터 발굴조사, <경기음악>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앞으로 시대별 음악계 흐름과 장르별 인물을 조명하는 책을 발간할 예정이며, 건축과 미술 등 타 장르로 확대할 방침이다.

▼ ‘제9회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에서 진행된 경기도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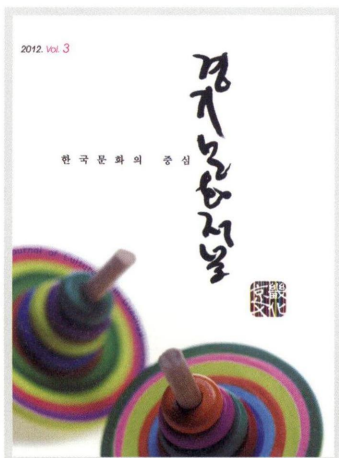


또 향토문화보급 및 활성화 사업은 도지회가 지방문화원의 협업을 토대로 행사와 교육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광역단위에서의 효과적인 보급창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제9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문화예술체험’·‘예절 교육 사업’ 등이다. 이 중 예절교육 사업은 도지회가 공식 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앞장선 것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도지회는 실무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민도 볼 수 있는 홍보 창구 〈경기문화저널〉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각 사업의 성과보다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사업이 도지회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긴밀한 지방문화원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연계사업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도지회의 전체 사업 11개에 협력문화원이 20여개에 달한다. 이들이 가진 회의만도 연간 70회 이상이다.

‘왜’라고 시큰둥하게 반문했던 지방문화원은 이제 스스로 협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도지회가 도민과 문화원 회원의 소통 창구로 발간, 서점에서 판매하는 경기문화저널 표지

의례적 사업 수행에서 탈피하고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 도지회의 노력이 가져온 변화다.

정상종 도지회장은 “도지회의 각 사업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원의 존재 이유와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며 “이를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문화원간 연결고리가 되자 자연스럽게 지방문화원도 각각의 정체성과 임무를 고민하고 명확해지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한다.

또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과업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일을 자주 반복해야 한다”며 “도지회는 각 문화원이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광역 단위 차원에서 연계해 문화적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도내 31개 문화원이 장기간 함께 고민한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현실에서 풀어내는 일이 남았다.

도지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고 역할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주도했던 도지회를 주목하는 이유다.

글 |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경기도문화원들이여, 맘껏 울어라!”

경기도내 각 지역문화원은 참 멀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와 경기일보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
자가용으로 2시간 30분을 꼬박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보다 더 멀었던 것은 마음이었다.

고백한다. 수년 간 문화부 기자로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접했지만 문화원만큼
은 관심 밖이었다. 해명하자면 문화예술기관과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기존 문화원이 해왔던 많은 역할을 각 전문기관과 단체에서 도맡아 했다.

그 뿐이라. 새롭게 등장한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젊은 지
역민을 끌어안겼다.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법이다.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문화원은 영역이 축소됐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
는지 새로운 흐름에 도태되는지 살펴볼 겨를도 없었다.

단지 기자 한 사람의 느낌이었을까. 현대인이 가진 ‘문화원과의 심리적 거리
감’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나는 이 책을 내놓기까지 문화원 현장을 다니면서 비로소 알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문화원이 끊임없이 ‘살아있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한 문화원은 노인고령화 시대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해 전
문가 강좌까지 신설했다. 그곳에서 본 어르신들의 소년 소녀같은 미소는 지금도
생생하다. 어떤 문화원은 어린이들의 고사리 손을 일일이 잡고 잊혀져가는 우리
의 것을 알렸다. 집중하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에서 밝은 미래가 엿보였다.

모든 문화원이 제 갈 길을, 차이가 있지만 잘 걷고 있었다.

정치 바람에 휩쓸리는 문화계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실무진이나 많은 이가
외면하는 문화원에 사명감을 갖고 제 발로 들어간 젊은 전문가들이 그 힘이
있으리라. 문화원이 이제 좀 울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역민이 젖을 줄 것
아닌가.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울어야만 하는 이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는지부터 알았으면 한다.

갓 태어난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은 시원한 울음소리다. 문화원의 생명력, 이를
방증하는 울음소리가 밖으로 밖으로 메아리치길 바란다.



문화는 행복이고, 사랑이고, 사람이다.

“누구세요”, “재미 없는데, 왜 굳이”, “돈 줘야 하나요”

그는 까칠했다.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다.

또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누군가가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해 기자를 사기꾼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2012년 8월~12월까지 5개월 동안, 만나 이가 있다. 까칠한 그는 나를 울고, 웃게 했다.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와 경기일보가 공동 기획한 ‘경기도문화원에서 노을자’는 만나는 내내 참, 골치 아픈 녀석이었다. 시작은 도내 문화원에서 취재하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생각했다. 기자생활 8년차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아줌마기자지만 현장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문화원 사람들은 기자라는 직업군을 싫어했고 본인들만의 리그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까칠할 수밖에.

그래 맞다. 경기도내 문화원의 첫인상은 까칠하고 딱딱했다. 오랫동안 방치돼 왔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기에 빛나지 못했다. 나의 역할은 간단했다. 도내 문화원들의 주옥같은 주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것. 의왕을 시작으로 남양주, 시흥, 용인, 안양, 안성, 과천, 김포, 부천, 포천, 여주, 평택, 연천까지 총 13개 문화원을 돌았다. 문화원 사람들, 그리고 문화원과 살 맞대고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경기도내 문화원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로서,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문화’는 역사를 만들고 정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복돋우고 자유와 평화를 꽃 피운다. 경기도 문화원들도 조용히, 낮은 곳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2013년 다시 만났을 때, 덜 까칠한 경기도 문화원을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선 그만큼의 관심과 애정이 절실하다. 문화는 행복이고, 사랑이고, 사람이다. 문화를 느끼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지역 문화원으로 달려 가보자.

강현숙 기자



역사가 공존하는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주길

먹고 살기 어렵던 시대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배 따습고 밥 굶을 걱정 안 하는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즐길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문화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지역민이 전시를, 공연을 때로는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런 가운데 지역민들 사이에서 점점 잊혀가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오래전부터 전통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힘써 온 '문화원'이다.

주위 사람들만 봐도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는 수강과목 스케줄과 접수 일정은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서, 지역 문화원이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기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9월 한옥 건물이 돋보였던 고양문화원을 시작으로 파주, 광주, 성남, 동두천, 양주, 이천 등 7개의 문화원에 다녀왔다. 27년 동안 경기도민으로 살아오면서 파주, 광주, 동두천, 양주는 처음 방문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았다. 특히 성남문화원의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남한산성의 가을과 어우러져 세계를 들썩이는 사이의 '강남스타일'에 버금가는 소리를 들려줘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다.

반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다. 각 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지역축제가 대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 비단 기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현장에서 들은 관광객들의 목소리도 포함돼 있다. 올해는 지역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프로그램들로 축제를 물들여 달라진 '문화원'의 새 얼굴을 만나고 싶다.

즐거움 반, 아쉬움 반의 인상을 남겼지만 문화원이 자칫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전통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현대인이 접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준 역할을 해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가 없이는 현재도, 미래도 없는 법이다. 전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문화원이 2013년 더 많은 지역민에게 전통의 기를 전파해 역사가 공존하는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경기도 문화원의

숨길 수 없는 매력을 찾아서

2012년 7월 25일,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을 빛내 줄 첫 기사
‘프로로그-문화,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관계의 미학’이
경기일보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매번 신문 한 쪽의 작은 공간에서 눈에 띄지 않던 기사가 신문 한 면을 차지하는 백조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약 8개월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매일 보는 신문기사 중 하나일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문화원들에게는 희망이고,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결과가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길이가 길게 되었다. ‘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을자’라는 이번 기획은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보석 같은 사업들을 일반 도민들에게 좀 더 쉽게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 기사를 통해 문화원들의 다양한 사업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감동할 만한 요소들이 참 많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 도지회는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과 접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화원들은 상황이 다르다. 문화원의 문화가족들은 다양한 문화사업, 축제, 문화예술 교육 등을 통해 사람들과 부딪치고, 부대끼는 동안, 사람들 역시 문화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들을 그 현장에서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문화원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앞으로의 희망이 된다. 이번 사업은 이제 막 껍질을 벗긴 양파에 불과하다.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 각 문화원의 숨길 수 없는 매력을 내놓고자 한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을 위해 애쓰고 고민하는 모든 원장님과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을자

발행인 정상중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경기일보
기획 최영주 장세영 박해정
주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6층)
전화 031-239-1020 **팩스** 031-239-3785
홈페이지 www.kccfgg.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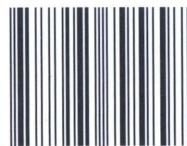
제작책임 이선호
감수 박정임
글 류설아 강현숙 장혜준
사진 김시범 전형민 추상철
표지디자인 오태식 두원공과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
디자인·제작 경기정판사
440-703)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3번길 6(송죽동)
전화 031-250-3333 **팩스** 031-250-3432
홈페이지 <http://www.kyeonggi.com>

발행일 2012년 12월 30일
등록번호 ISBN 978-89-957958-9-7

* 이 책은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을자

값 15,000원



03300



9 788995 795897

ISBN 978-89-957958-9-7